

#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뉴스잡지 171호



## ◆ 전세계 우수 정책 지도자상

- \* 호주 정부가 스승님의 사랑이 담긴 상을 받다
- \* 어린이들과 학교에 채식의 유익함을 깨우쳐 주다  
-안토니아 데마스 박사

##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전세계가 스승님의 사랑의 메시지 '대안적 인 삶'을 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다

## ◆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일

세계 최고의 두 감부가 자선 사업에 힘쓰다

## ◆ 채식 시대

삶의 질을 높이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채식을 권장하다

## ◆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긍정적인 생각, 건강한 삶

# 신의 길을 걷는 삶을 살면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청하이 무상사/ 2001. 12. 23.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25

수행자라고 해서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온갖 종류의 할 일이 있습니다. 이론을 공부하고 계율을 지키고 명상 수행을 하지요. 스승을 보기도 하는데 그건 보너스입니다. 이 밖에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수행을 통해 얻은 우리의 지혜와 힘을 운영해야 하며 수행 진보와 더불어 자비심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만 있는 게 아니지요. 우리는 앉아서 명상하며 지고의 존재를 묵상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높은 우리 내면의 힘과 연결됩니다. 또한 고아한 도덕적 기준을 유지하여 훌륭한 사람, 훌륭한 남자, 훌륭한 여자가 됩니다. 그리고 내적 수행의 힘을 통해 사랑과 자비와 지혜를 발전시켜 보다 편안하고 보다 단순한 생활 방식을 영위합니다. 삶이 단순하면 전처럼 힘들게 일할 필요는 없지만 돈은 더 많이 벌게 되지요. 한 푼을 절약하면 한 푼을 버는 것과 같으니까요.

이제 여러분은 비교적 단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설령 같은 일을 한다 해도 전보다 많은 돈을 벌니다. 또는 전보다 덜 분주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자기 삶을 잘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떠한 생활에서도 만족하되 많은 문제와 두통을 일으키고 돈도 많이 들게 하는 일들은 날이 갈수록 피하게 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려면 일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일을 더 많이 하면 건강을 대가로 치러야 하고 또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명상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시간을 쓰지 못하고 돈을 버는 데 낭비하게 되지요. 게다가 돈을 더 많이 벌면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하고 일이 많아지면 신경 쓸 일도 많아지며 회계사한테 들어가는 돈도 더 많아집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삶을 살고 있으며 시간도 더 많아졌습니다. 시간이 많아졌으니 명상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지혜도 많이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아져 자선 활동도 더 많이 하게 됐으니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행복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다는 것은 일을 더 적게 한다는 것이고 더 건강하다는 것이며,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결혼 생활과 가정이 더욱더 행복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수행의 이로움은 이토록 많습니다. 전세계 사람들이 이것을 안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명상을 하며 우리의 생활 방식을 따를 것입니다. 이 길이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생활 방식이니까요. 다른 모든 방법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생활 방식을 따르기만 하면 삶의 다른 모든 면이 향상될 것이며 전에 할 시간이 없었던 모든 면이 발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적게 하면 더 건강해지고 심지어 돈도 더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돈이 더 많아지면 가끔 선 행사에 참가해 자신의 영성 수준과 건강 상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낀 돈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지요. 전에는 자선 활동을 할 돈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겼겠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도처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돕고 아르헨티나를 도우며 칠레,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를 돕고 있지요.

여러분은 전과 같은 금액을 벌지만 모든 곳을 돕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지게 되어 세상에 봉사하고 일하느라 바빠서 부족해진 면을 채워 자신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 지혜로워지고 친절해지고 자애로워지고 사랑이 많아지고 관대해지고 이해심이 더욱더 많아지게 됩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내면과 외면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심지어 겉모습도 더 예뻐지고 젊음도 더 오래 유지되며 병에 걸리는 일도 적어집니다. 설령 병에 걸렸다 해도 빨리 회복됩니다.

모든 것이 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훌륭한 생활 방식이며 유일한 생활 방식, 천국의 생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신의 왕국을 따르고 신의 왕국을 찾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과 불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 말고는 달리 실천할 길이 없습니다. 부처는 자비와 지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모두를 가지고 있지요. 예수도 물론 신의 왕국을 강조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고 신의 왕국을 말했으며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요. 신의 왕국이란 지혜를 뜻합니다. 신의 왕국을 성취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신의 왕국과 연결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신처럼 지혜롭다거나 적어도 신과 비슷하다는 것, 또는 점점 더 신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그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론하고 요구하고 강조하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행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가지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것입니다. 

# CONTENTS

## 차례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71호

출판일자 : 황금시대 3년(2006년) 11월 18일  
 설립년도 : 1990년 4월 1일  
 발행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Hsieh Hsin-lin  
 인쇄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042) 543-9250  
[www.godsdirectcontact.or.kr](http://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kpt@yahoo.co.kr](mailto:chinghaikpt@yahoo.co.kr)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인터넷 상에 한국어·중국어 간체 및 번체·영어·어울락어·스페인어·프랑스어·독일어·태국어·일본어·인도네시아어·포르투갈어·몽골어 등 전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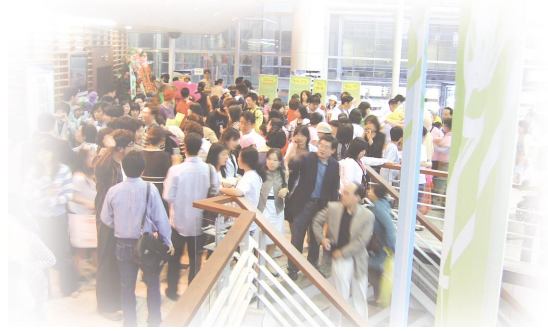
- 2 **스승님 말씀**  
신의 길을 걷는 삶을 살면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 5 **다채로운 이벤트**  
대한민국/ 캐나다/ 미국/ 모리셔스
- 11 **전세계 우수 정책 시리즈**  
호주 정부가 스승님의 사랑이 담긴 상을 받다/ 어린이들과 학교에 채식의 유익함을 깨우쳐 주다/ 변화를 이루는 데 헌신한 삶이 긍정적인 차이를 만들다-안토니아 데마스 박사와의 전화 인터뷰/ 유럽의 주류에 경고문이 붙다
- 18 **매체 보도**  
새로운 보고서로 확인된 음주의 실제 대가/ 한 사람의 용기가 육식의 진짜 대가를 밝히다
- 22 **지구의 긍정적인 발전**  
유럽, 담배 연기 없는 황금시대를 예고하다/ 동티모르의 무기 이양
- 24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일**  
세계 최고의 두 갑부가 자선 사업에 힘쓰다
- 25 **황금시대의 생활 방식**  
작은 마을의 위대한 친환경 모범 사례
- 26 **신기한 감응**  
살아 계신 큰스승의 영원한 보호/ 날마다 일어나는 작은 기적들
- 28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상황에 맞아야 지혜라 할 수 있다
- 29 **관음 웹사이트**
- 30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긍정적인 생각, 건강한 삶
- 33 **골라 뽑은 수행 문답**  
배움은 운명을 뛰어넘는다/ 단순한 생활, 훌륭한 명상
- 36 **유용한 정보**  
생활비를 줄이고 더 즐겁게 생활하라
- 38/ 90 **수행의 길목에서**  
고백/ 최고로 영광된 사랑
- 39 **수행 수상록**  
과학적으로 입증된 생각의 힘
- 40 **감로범어**  
생각과 말의 힘
- 40 **시**  
스승님을 기억하며
- 41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독일/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루마니아·우크라이나·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마케도니아/ 몽골과 러시아/ 러시아/ 미국/ 나미비아와 보츠와나/ 홍콩/ 대한민국/ 싱가포르/ 포모사
- 70 **이야기 세상**  
채식인의 높은 이상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다
- 72 **채식 시대**  
'아일랜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일어난 일대 변화/ 삶의 질을 높이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채식을 권장하다-타이완 위생병원 영양과 주임과의 인터뷰
- 76 **스승님의 농담**  
천국의 야구/ 재능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 77 **사랑의 실천**  
미국/ 스페인/ 포모사/ 대한민국
- 86 **사랑의 바다에서 온 물방울**  
한 사람 한 사람 이어지는 신의 사랑
- 87 **전세계 연락처**
- 90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CD/ DVD
- 91 **스승님의 최신 그림**  
생존력



## 대한민국 소식

놀라운 채식 선물을  
아이들에게 전하다


서울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서울] 황금시대 3년(2006년) 5월 27일, 나루 아트센터에서 ‘헨젤과 그레텔’ 연극 공연이 있었다. 장애 이동을 비롯한 모든 어린이들이 초청받은 이번 행사에서 서울 사형사저들은 관객들에게 무료 채식 음식을 제공했다.

동수들은 채식 샌드위치, 초콜릿, 쿠키, 음료 등 800인분의 점심과 함께 가장 중요한 ‘대안적 삶’ 전단을 준비했다. 연극이 끝난 뒤 나오던 아이들과 부모들은 귀여운 동물 복장을 한 동수들을 보고 놀랐다. 아이들이 이들을 보고 너무나 좋아하는 바람에 엄청난 인파가 몰렸고 몇몇 어린이는 이 동물 친구들과 놀며 사진을 같이 찍기도 했다.

어린이들을 두 번째로 놀라게 한 것은 무료 선물이었다. 처음에 몇몇은 부끄러워하며 주저했으나 나중에 그들과 장애 아동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선물이라는 것을 안 뒤에는 기쁘고 고마운 마음으로 받았다. 부모님들은 채식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며 어디서 ‘콩고기’를 살 수 있는지, 채식 식당은 어디에 있는지, 또 채식 요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또한 다른 한 조는 페이스 페인팅 행사를 열어서 아이들에게 더없이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그날은 순수한 웃음과 즐거움으로 가득했다. 



## 캐나다 소식

## 하느님 아버지와 다시 연결되다

토론토 뉴스그룹 정리 (원문 영어)

[토론토] 황금시대 3년(2006년) 6월 18일, 아침 단체명상 전 토론토 센터 동수들은 손수 만든 채식 요리를 포장하느라 손을 바쁘게 놀렸다. 이날 오후 한 공립 도서관에서 열릴 강연회에 가





저가치 위한 것이었다. 또한 이날 아침 많은 동수들이 단체로 주문한 재킷과 조끼를 받고 기뻐했다. 강연회에 참석해 일을 돕기로 한 사형사저들은 새 유니폼 조끼를 처음 입고 흡족해했다.

오후가 되자 사람들이 강연회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다양하면서도 하나같이 맛있는 채식 요리에 감탄했다. 스승님의 출판물과 그림에 둘러싸인 손님들은 아주 행복해 보였으며 동수들의 친절 한 접대를 받고 매우 좋아했다. 또한 스스로 강연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기도 했다.

어떤 여성이 도착했을 때 한 사형이 다가가 강연회에 참석하러 온 것인지 묻자, 그녀는 “나는 빛 때문에 왔어요.” 하고 대답했다. 그래서 그 사형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인지 묻자 그녀는 “이 내면의 빛 때문에 온 거지요.”라고 말하고선 떠날 때 다음과 같은 메모를 남겼다. “관음 여러분께, ‘빛’을 나눌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를 시청한 후 많은 참석자들이 영적인 질문을 했으며 방법법을 배우고자 열망했다. 그 중에는 20대 후반의 청년도 있었고 90에 가까운 노인도 있었다. 몇몇 사람들은 친구들과 친지들에게 나눠 주기 위해 ‘대안적인 삶’ 전단을 더 요청하기도 했다. 어떤 사람은 강연회가 끝난 후에도 모두 자리를 비워야 할 때까지 남아서 동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방법법 신청자들 중에는 입문을 신청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 중 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채식을 했다는데, 한 사람은 스승님의 그림과 함께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 물었다. 우리는 영성의 씨앗이 이미 그들의 가슴속에 싹트고 있으며 얼마 안 있어 무성하게 자라날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

이 강연회가 아버지의 날에 열리는 바람에 사람들의 참석률이 저조할까 봐 걱정하는 동수들도 있었지만 행사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방법법을 배웠으며 입문을 신청한 사람들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반응이 매우 호의적이어서 우리가 괜한 걱정을 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중국어로 ‘스승’이라는 단어는 ‘아버지’와 ‘선생님’이라는 의미가 합쳐져 있다. 그러므로 진리를 찾는 구도자들은 이날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와 다시 연결되는 특별한 아버지의 날을 맞이할 수 있었다. ✨



## 행사 메모

현재 진행 중인 지구의 영성 고양에 발맞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비디오 강연회와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친구·친척들과 참석해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최근의 홍보 활동 일정에 대해선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atest\\_news/events-datebook.htm](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latest\\_news/events-datebook.htm](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어)



## 미국 소식

테네시에서  
스승님의 사랑을 나누다

솔렌지 모라 사저/ 미국 테네시 (원문 영어)



## 박람회

[테네시] 황금시대 3년(2006년) 6월 10일, 스승님의 사랑과 안배 속에 테네시, 켄터키, 오하이오 센터 동수들은 내슈빌(Nashville)에서 개최된 ‘치유 모임(Healing Gathering)’이라는 박람회에 참가했다. 다양한 단체들이 이 박람회에 참가해 대체 의약품과 관련 상품을 선보였다. 우리 센터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누고 ‘대안적인 삶’ 전단을 배포했다.

박람회 기간 동안, 조화로운 분위기로 가득 찬 환경 속에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우리 부스에선 눈부시게 빛이 났다. 누구나 우리 부스 전체가 천국의 빛으로 둘러싸여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부스 앞에 발걸음을 멈춰 스승님의 사진과 출판물을 보고 ‘대안적인 삶’ 대형 포스터를 읽은 방문객들 대부분은 누군가가 이처럼 중요한 메시지를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에 흐뭇해했다. 우리는 방문객들로부터 TV 프로그램 ‘예술과 영성’을 통해 스승님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그 프로그램을 좋아한다는 한 여성은 스승님이 너무 아름다우시다고 말했으며 다른 사람들도 스승님의 가르침과 명상 수행에 대해 관심을 표했다. 한 여성은 행복한 표정으로 “이것이 제가 찾고 있었던 바로 그거예요!”라고 말했다. 그 밖에 두 명의 숙녀와 신사는 스승님의 가르침에 매우 관심있어 하면서 조만간 지역 도서관

에서 개최될 관음법문 강연회에 참가 신청을 했다. 스승님의 복음을 접한 모든 사람들은 더욱 빛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워 보였다!

우리 부스 앞에 위치한 다른 부스의 참가자도 스승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다. 그녀는 우리가 탁자 위에 전시해 놓은 한 DVD 겉면에 ‘관음법문’이란 문구가 쓰여 있는 것을 보고선 스승님과 강하게 연결된 힘을 느꼈다. 그녀는 그 즉시 그 DVD를 구입하고선 헌신과 감사의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DVD를 꼭 껴안고 말했다. “나는 이미 스승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녀는 토요일에 개최될 강연회에도 참가하겠다고 신청했다.

이번 박람회에 공연 초청을 받아 하프 연주를 통해 아름답고 매혹적인 선율을 선사한 한 음악가는 스승님의 높은 사랑의 진동력과 큰 인연이 있었다. 그녀는 우리를 찾아와 부스에서 행복이 느껴지며 우리 또한 매우 행복해 보인다고 말했다. “여러분 스승님은 위대하신 분이 틀림없어요. 입문한 사람을 보면 그 스승을 가늠할 수 있지요.”

## 강연회

6월 17일 토요일, 내슈빌과 일리노이 센터 동수들은 내슈빌에 있는 한 도서관에서 강연회를 개최했다. 모든 것이 스승님에 의해 ‘마법처럼’ 안배되었고 스승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최고로



멋진 분위기를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행사장 설치를 마치자 이내 방문객들이 도착해 조용히 안으로 입장했다. 사람들은 집중된 모습으로 '사랑의 길을 걷다'를 시청했다. 그들은 비디오에 완전히 몰입했으며 시청이 끝나자 스승님께 박수를 보냈다. 이어서 스승님의 필리핀 강연이 상영됐는데 하얀 드레스를 입으신 스승님은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 방문객들은 마치 스승님께서 바로 우리 앞에 계시는 듯 차분하게 강연을 시청했다.

짧은 휴식 시간 동안 방문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그들이 스승님과 어떻게 연결됐는지에 대해 놀라운 사연을 들을 수 있었다. 저번 박람회에서 만난 적이 있는 한 여성은 이번엔 남편과 함께 왔는데, 그들은 스승님과 만날 기회를 가진 데



대해 매우 감사히 여기면서 방법법을 수행하기를 갈망했다. 그녀는 스승님을 본 사람이면 누구나 스승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승님을 처음 알게 된 사람들도 모두 대단히 좋아했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보다 깊이 배우고 싶어하는 등 굉장히 멋진 강연회였다. 강연회가 끝난 뒤에도 일부는 아쉬움에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남아서 차에 짐 싣는 일을 도와주었다. 우리는 강연회가 끝난 뒤 '대안적인 삶' 전단을 내슈빌 도심지에서 배포했다.

그날 우리가 느꼈던 마음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 스승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과 축복을 받은 우리는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다. 우리에게 이 크나큰 선물을 주신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

## 미주리

# 미주리 롤라가 큰 걸음을 내딛다

미국 미주리 센터 (원문 영어)



[미주리] 황금시대 3년(2006년) 6월 2일부터 3일까지 미주리 센터는 인디애나, 켄터키, 볼트모어,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센터의 도움을 받아 미주리 롤라(Rolla) 시에서 개최된 '66번 도로 페스티벌'에 참가했다. 미국 중서부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롤라는 다소 보수적인 편이라서 21세기인 오늘날까지 채식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

다. 우리는 '대안적인 삶'의 메시지가 인쇄된 티셔츠를 입고 만들기 쉽고 맛있는 다양한 채식 음식을 대중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채식의 개념을 소개했다.

채식 음식 시식회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들은 음식마다 어찌면 이렇게 맛있냐며 매우 놀라워했다. 일부 사람들은 몇 번이나 돌아



와 맛을 보았고 나중에는 친구와 친척들을 데려와 먹어 보라고 권하기까지 했다. 우리는 방문객들에게 모든 음식의 요리법도 알려 주었다. 그 밖에도 동수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안적인 삶’ 전단을 돌리고 스승님의 TV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놀라웠던 점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스승님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전에 열렸던 우리 강연회에도 참석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갖고 영적인 질문을 하기도 했다.

한번은 십대 소년 세 명이 우리 부스에 들렀다. 채식 음식이 맛있을지 반신반의하던 한 소년이 먼저 시식해 보기로 결심했다. 놀랍게도 그 소년은 채식 음식을 매우 좋아하면서 다른 두 친구에게도 좀 먹어 보라고 권유했다. 세 소년은 우리 부스 앞에서 한참 동안 서서 음식을 두루 섭렵하곤 각 음식의 요리법을 가지고 부스를 떠났다.


잠시 후, 십대 소녀들이 우리 부스에 들러 채식 음식을 시식했다. 그 중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라하던 한 소녀는 채식을 하고는 있지만 밖에서 채식 음식을 먹을 기회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중에 세인트루이스(St. Louis)에서 온 한 부부는 우리 부스에서 꽤 많은 채식 음식을 구입했다. 그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동수들에게 물라에 채식 음식 점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이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준 것에 아주 고마워했다. 이 밖에 한 남성은 우리 부스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음식을 아주 맛있게 시식했다. 음식을 먹는 동안 자리에 앉아 스승님의 강연을 즐겁게 시청한 그는 우리 부스에서 두 시간 넘게 있다가 동수들이 부스 문을 닫는 밤 11시 30분경이 되어서야 마지못해 자리를 떠났다.

토요일 아침, 동수들

이 부스를 차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맛있는 채식 음식을 먹기 위해 그때부터 벌써 줄을 서서 기다리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한 동수가 아직 메뉴를 붙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음식의 종류를 알고 있냐고 신기해하며 묻자 그들은 지난밤에 우리의 음식을 먹어 보고 아주 좋아하게 됐다거나 그 전날 용감하게 채식 음식을 맛본 친구에게 들었다고 알려 주었다. 한 여성은 의사로부터 건강 때문에 고기는 줄이고 채소를 많이 먹으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우리 부스의 음식이 모두 채식인 걸 알고 많이 구입해 갔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차례 방문해서 채식 음식을 구입했다.

토요일에는 스승님의 출판물과 사진, 그림, 만세등도 전시했다. 우리 부스에 찾아온 한 남성은 여러 다양한 스승들과 함께한 자신의 놀라운 영적 여행과 이번 생에서 느낀 좌절에 대해 한 사저와 함께 긴 대화를 나눴다. 이 젊은 서양인은 기독교 신자인 듯했지만 노자의 가르침에 진리가 있다고 믿고 있었고 노자에 대해 큰 존경심을 품고 있었다. 같이 대화를 나눈 사저는 그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속으로 스승님께 기도드린 후 그에게 예수, 노자, 공자 모두 깨달은 성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같은 진리를 가르쳤다고 하신 스승님의 말씀을 들려 주었다. 사랑하는 스승님의 지혜는 그에게 상당히 설득력 있게 느껴진 듯했다. 그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조금 이나마 알게 되어 아주 기쁘다면서 앞으로 있을

강연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연락처에 대해 물었다.

지난해에도 이 행사에 참가하긴 했지만 올해에는 채식과 스승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았다. 이것으로 보아 미주리 물라가 앞을 향해 큰 걸음을 내딛는 듯하다! 



## 모리셔스 소식

# 축복 받은 모리셔스 도서관과 국민들

모리셔스 뉴스그룹 (원문 영어)

[포트루이스] 모든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인 지고의 가르침과 위대한 사랑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모리셔스 동수들은 조별로 나누어 스승님의 책들을 전국 도서관에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

우리는 책 속에 '대안적인 삶' 전단을 붙여서 도서관마다 최소 두 권씩 기증했는데, 며칠 만에 모든 책이 배부되었다. 사서들은 스승님의 책을 받고 매우 감동했으며 스승님의 사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들은 스승님이 채식을 한다는 것에 존

경을 표하며 스승님의 사심 없는 사랑과 고결한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렸다. 또한 이토록 혼란스러운 시대에 스승님의 책이 모든 독자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큰 이로움을 주리라고 확신했다.

사서들은 스승님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면서 서적과 웹사이트를 통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길 기대했으며 조만간에 스승님의 강연회를 열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다음은 사서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 가운데 하나이다.

친애하는 귀하께

귀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모리셔스 국립 도서관에 기증해 주신 프랑스어판 『즉각 깨닫는 열쇠』 제1권과 『즉각 깨닫는 열쇠 문답록』 제1권, 영문판 『즉각 깨닫는 열쇠』 제5권을 잘 받았습니다.

이 서적이 우리 독자들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담당자 찬감론 배상

스승님의 출판물을 주문하려면 <http://www.theCelestialShop.com>을 방문하시거나 다음 주소로 연락하세요: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Taipei, Formosa

Tel: (886) 2-87873935/ Fax: (886) 2-87870873

E-mail: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mailto: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대만 우체국 송금계좌 번호: 19259438(포모사 내 주문시)

수취인: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스승님의 최신 간행물 목록과 간략한 내용을 다룬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어)/ <http://www.smchbooks.com/> (영어, 중국어)



# 전세계 우수 정책 시리즈 밝은 미래를 여는 깨달은 정부

세계 우수 지도자상



## 호주 정부가 스승님의 사랑이 담긴 상을 받다

호주 뉴스그룹 (원문 영어)

황금시대 3년(2006년) 5월 22일, 호주 동수들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를 대표해서 스승님의 소중한 선물 ‘세계 우수 지도자상’을 캔버라에 있는 국무총리·내각 사무실 대표들을 통해 호주 정부에 전달했다.

서방 정부들은 과도한 관료적 형식주의로 유명하다. 그렇지만 신의 은총으로, 현지 동수들은 주관 부서를 알아내서 호주 정부로부터 예비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기관의 응답은 즉각적이었을 뿐 아니라 매우 정중하기까지 했다. 시상 문화국(Awards and Culture Branch)의 정부 대표들은 대단히 협조적이어서 이렇게 소중한 선물을 전달한다는 것이 황송하고 영광스럽게 느껴질 정도였다. 우리는 상장을 수여하는 한편 호주 정부가 우리 단체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스승님의 시집과 DVD ‘음악으로 하나 되는 평화의 세상’, 단행본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같은 스승님의 가르침이 담긴 출판물도 선물했다. 정부 대표자들은 이를 매우 감사히 받았다.

이 상은 밖에 정신을 국내외적으로 자리잡게 한 점, 자국 국민과 이웃 나라를 모범적으로 보살핀 점, 그리고 인류의 삶의 질을 증진시킨 점 등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 온 호주 정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하기 위해 전달되었다. 시상 이유에는 전 태평양 지역과 멀리 아프리카·중동의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의학·교육·기술 지원을 베푼 점과 호주 국내에서 신분과 재산 상태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일류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점도 포함되었다. 이 밖에 호주 정부는 대중 매체를 지혜롭게 활용해 TV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운동과 건강한 생활 방식을 홍보하기도 했다.

스승님이 자주 언급하셨듯이, 정부의 지혜로운 지도력은 이 세상과 인류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호주 동수들은 정부측에 스승님의 사랑이 담긴 지지와 격려를 전달할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뻐다.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른 나라의 긍정적인 정책을 서로 배워 자국민과 지구촌을 이롭게 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

# 전세계 우수 정책 시리즈 밝은 미래를 여는 깨달은 정부

세계 우수 지도자상



◀ 어린이들에게 건강상  
채식의 이로운을 알리고  
자 노력하고 있는 '식품  
연구 학회'의 설립자 안  
토니아 데마스 박사.

## 어린이들과 학교에 채식의 유익함을 깨우쳐 주다

데브라 카우치 사저/ 미국 로체스터 (원문 영어)

황금시대 3년(2006년) 6월 24일, 로체스터와 뉴욕의 동수들은 스승님을 대신해 안토니아 데마스 박사(Dr. Antonia Demas)에게 '세계 우수 지도자상'을 수여하기 위해 뉴욕 트루만스버그(Trumansburg)로 향했다.

데마스 박사는 '식품 연구 학회(Food Studies Institute)'의 설립자이다. 이 비영리 단체는 어린이들을 건강에 좋은 식물성 음식 요리하기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데마스 박사는 어릴 때부터 보기 좋고 건강에 이롭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데에 관심을 가져 왔다. 그녀에게 큰 영향을 미친 이탈리아 출신의 조부모는 항상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고다드 대학(Goddard College)에서 사회 영양학 학사 학위를 딴 후 식품 교육자가 되었다. 그녀는 직업과 어머니로서 얻은 경험을 통해 아이들이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해 보면 그런 음식을 즐겁게 먹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이 관찰 내용을 과학적인 각도에서 증명하기 위해 코넬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했다.

코넬을 졸업한 후 데마스 박사는 '식품 연구 학회'를 설립해 어린이들에게 영양에 대해 가르침으로써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녀가 개설한 교육 프로그램 '음식은 교육의 기본이다'는 학생들에게 채소를 기르고 조리하는 과정에 참여케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를 소개하고 춤과 예술을 이용해 과일과 채소를 먹는 것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데마스 박사는 이미 이 교육 과정을 수백여 개





# 전세계 우수 정책 시리즈

## 밝은 미래를 여는 깨달은 정부

### 세계 우수 지도자상

학교에 소개했고 그곳 선생님들에게도 식품 교육을 전수했다.

‘식품 연구 학회’는 또한 대부분의 학교 체계에서 공급하고 있는 점심 식사가 건강에 해롭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데마스 박사는 각 학교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재료들을 이용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영양 채식 음식을 만들도록 돕고 있다. 이 방식이 큰 성공을 거둬에 따라 그녀는 창의적인 점심 식사 메뉴를 설계한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농무부와 영양 교육 협회(Society for Nutrition Education)에서 수여하는 상을 받았다.

이 밖에 데마스 박사는 채식 식생활이 학생들의 건강과 행동,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기도 했다. 그 중 한 연구에서는 한 대학 기숙사에 있는 남학생들이 3주 동안 완전 채식을 하기로 자원했는데, 연구 결과 모든 지원자들의 학업 평균 성적과 운동 실력, 체력이 향상됐으며 공격적인 태도가 감소하고 행복감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기입한 내용은 ‘식품 연구 학회’의 웹사이트([www.foodstudies.org](http://www.foodstudies.org))에 게재되어 있다. 이 결과를 보면 학생들이 더욱 에너지가 넘치고 기억력이 좋아졌으며 대체적으로 침착해졌음을 알 수 있다.

시상식은 데마스 박사의 집에서 이뤄졌다. 그녀는 콜린 캠퐸 박사(Dr. T. Colin Campbell) 부부와 ‘식품 연구 학회’ 웹 관리자인 르넬 카펜터(Renell Carpenter) 씨를 초대했다. 코넬 대학 영양 생화학 명예 교수로서 채식에 대한 연구로 널리 알려지고 존경을 받고 있는 캠퐸 박사는 ‘식품 연구 학회’의 이사회에 속해 있기도 하다. 데마스 박사는 캠퐸 부인이 채식에 대해 전세계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며 그녀의 남편은 그 두 번째라고 소개했다!

시상식이 끝나자 데마스 박사는 모두에게 자신이 준비한 과일 타르트와 차를 대접해 친절과 환대의 마음을 베풀었다. 아름다운 여름날, 우리 모두 그녀의 베란다에 앉아 아름다운 정원을 바라보며 즐겁게 담소를 나누었다.

데마스 박사는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그들이 자기가 먹을 음식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에 매우 열성적이었다. 그녀의 노고로 무수히 많은 어린이들이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 동수들은 사람들을 깨우치는 이 여성에게 ‘세계 우수 지도자상’을 수여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



데마스 박사에게 ‘세계 우수 지도자상’을 수여하다.



왼쪽부터 콜린 캠퐸 박사, 데마스 박사, 캠퐸 부인, 르넬 카펜터 씨, 동수 대표.

# 전세계 우수 정책 시리즈

## 밝은 미래를 여는 깨달은 정부

### 변화를 이루는 데 헌신한 삶이 긍정적인 차이를 만들다

-안토니아 데마스 박사와의 전화 인터뷰

평가오 사저/ 미국 일리노이 시카고 (원문 영어)



학교에서 조리에 쓸 토란 키우는 법을 배우는 하와이 학생들.

안토니아 데마스 박사는 '식품 연구 학회'의 창립자로서 저명한 채식 교육자이자 연구가이며 뛰어난 채식 요리사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상까지 받은 '음식은 교육의 기본이다'라는 그녀의 혁신적인 학교 교과 과정은 유치원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학생들로 하여금 채식의 유익함을 이해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도입하도록 도왔다.

질문: 어떻게 해서 열네 살 때 채식을 하기로 결정하셨나요?

답변: 음식과 그 출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동물을 먹는 게 거부감이 느껴졌습니다. 살해 당한 동물들에 대해 생각하고 그들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주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육류를 모두 안 먹기로 했지요. 그 당시에는 그게 대중적이지도 않아서 저에게는 어떤 문화적인 지지나 부모님의 지지도 없었습니다.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수밖에 없었는데 부모님은 그냥 묵인하셨습니다.

질문: 그 당시에 채식을 장려하는 일이 평생의 사명이 될 줄 알았나요?

답변: 어느 정도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음식에 관한 과제들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저는 반은 이탈리아인이어서 아름답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만드는 법과 음식을 만드는 데 쓰이는 식물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느낌을 물려받았습니다.

질문: 어떻게 해서 학교 어린이들에게 채식을 소개할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까?

답변: 아이들은 저의 또 다른 열정의 대상이었어요. 엄마가 되고 나서 탁아소에서 자원 봉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학교에서 제공되는 음식이 그다지 영양가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음식과 아이들은 제 열정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조합이었지요.

질문: 가족들도 채식을 합니까?

답변: 제 아이들을 채식주의자로 키우려 시도했지만 마음을 크게 가지기로 했어요. 그건 개인의 선택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전(前) 남편과 아이들은 내가 해 준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채식 요리사이기도 해서



학생들이 채식 요리법을 창조하고 준비하면서 건강한 생활 방식에 관해 배우고 있다.



# 전세계 우수 정책 시리즈

## 밝은 미래를 여는 깨달은 정부

음식을 아주 잘한답니다.

질문: 그러니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채식을 소개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하겠군요?

답변: 그렇지요. 고기를 아주 좋아하던 사람들도 우리 집에 자주 오곤 하는데 고기를 전혀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채식 음식을 요리하는 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채식을 하도록 이끄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질문: ‘음식은 교육의 기본이다’라는 교과 과정을 설계해 미국 전역에 있는 여러 학교에 소개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학교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했는지 아시나요?

답변: 아마도 30개 주 500여 개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을 겁니다.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어서 제대로 집계를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 아주 깊이 관여하고 있고 실제 성과를 문서화하느라 바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식품 교육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전국을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현재 또 다른 두 개 주가 이 프로그램에 동참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만든 채식 요리를 보여주는 학생들.



학생들이 학교 식당에 그린 벽화. 다채로운 색감으로 채식 음식의 영양 정보를 제공한다.

질문: 시행 성과를 어떻게 기록하시나요? 구체적인 게 아니라서 쉽지 않으실 텐데요.

답변: 저는 학술 연구를 한 배경이 있고 박사학위도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시작하려면 그 전에 준비를 하고 조사를 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정보를 수집하고 싶은지 알아야만 하지요. 우리는 사전 실험과 사후 실험을 합니다. 그래야만 정책 결정자의 주의를 끌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음식 프로그램은 반드시 기초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아이들은 음식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공립 학교 교과 과정에는 이런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 고기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십니까? 그림을 보여 주시나요?

답변: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정치적이거든요. 그러면 많은 학부모들이 불쾌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들에게 식물성 음식을 보여 주고 채식 음식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설명합니다. ‘피와 내장’ 같은 것은 끌어들이지 않지요. 어떤 정치성 있는 내용이 들어가면 학교에서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변화를 일으키자는 것과 학교에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식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기존에 별로 시도해 보지 않았거나 접하지 못했던 대안적인 음식을 소개하는 긍정적인 방법이지요. 난 그들에게 아이들이 채소에 대해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세계를 소개합니다. 아이들은 채소를 심고 요리하는 것을 배우는데 그 과정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고기를 먹게 되면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아이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전세계 우수 정책 시리즈

# 밝은 미래를 여는 깨달은 정부

니다. 제게 있어서는 그게 교육의 본질입니다. 저는 그들이 무엇을 먹는지에 대해 비난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전에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대안적인 음식의 새로운 세계를 소개하지요.

질문: 이 프로그램에 대해 아이들과 학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그들은 정말 좋아합니다! 신기해하지요! 그들은 재배법을 배우고 맛을 보고 창조하고 오감(五感)을 모두 사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긍정적인 반응을 받아 왔습니다.

질문: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예, 제 목표는 이 활동이 가능한 한 많은 지역 사회에서 대중의 이목을 끌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학교측에서는 보통 우리가 소개하는 이런 음식을 아이들이 절대 먹으려 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들의 일만 많아질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과 행정관들이 채식의 유익함을 직접 보고 그만한 가치가 있겠다고 느끼기만 하면 이를 시도할 것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시험 결과만 보지, 그것과 음식의 연관성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음식이 사람의 사고 과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말이지요.

질문: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답변: 전국을 돌아다니며 교육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일정이 바쁘지요. 때로는 여행하는 게 정말 피곤하답니다. 선생님들도 훈련시키는데, 일년 교과 과정을 계획하는 일을 돕습니다. 저는 계획만 세워 놓고 실행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질문: 연구 결과에 대해선 어떻게 측정하십니까?

답변: 연구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이를테면 어떤 특정한 날에는 아이들의 상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날씨도 통제할 수 없고 심지어 학교가 수업을 할지도 통제할 수 없지요. 하지만 이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깥에는 이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가 없으니까요.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주로 측정합니다. 첫 번째가 학습 성취도인데,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이들은 다른 일반 교과 과정의 학생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모든 감각을 다 사용하니까요. 두 번째는 건강 부분입니다. 아이들의 건강은 채식을 채택하자마자 향상되기 시작하며, 그 아이들은 가족과 부모의 식습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을 보는데,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면 제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설탕과 지방을 섭취하면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지요. 이 밖에 알레르기를 시험할 계획도 있습니다. 볼티모어에 있는 의사와 함께 알레르기가 아이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공동으로 연구할 예정입니다.

### 결론

혁신적인 발상과 함께 그것을 끌고 나갈 결단력과 끈기를 갖춘 데마스 박사 같은 성인과의 대화는 많은 것을



## 전세계 우수 정책 시리즈

# 밝은 미래를 여는 깨달은 정부

배울 수 있는 경험이 되었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마스 박사는 세상을 고양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우리의 이상과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의 빛나는 모범이 아닐 수 없다.

## 유럽의 주류에 경고문이 붙다

영국 뉴스그룹 (원문 영어)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매년 약 60만 명의 유럽인들이 음주와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며 이로 인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2천억 유로(미화 2,530억 달러)를 지출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 유럽은 주류 정책에서 전환점을 맞이하려 하고 있다.

스승님께서 황금시대 3년(2006년) 1월에 모든 정부는 음주의 해악에 대해 국민들에게 경고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신 후(뉴스잡지 164호 참고) ‘유럽 공동체(The European Community)’는 회원 국가들을 소집해 건강 경고문 부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하게 했다.

6월에 발간된 ‘알코올 연구 학회(The Institute of Alcohol Studies)’의 한 보고서는 모든 주류 상품에 경고문을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 집행위원회의 자금 지원을 받아 주류가 사회·경제·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 보고서는 주류 상품의 경고문에 알코올의 해로운 영향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대중들이 알코올 음료로 인한 생리적인 영향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갖지 않도록 상품 포장·경고문·광고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조기 교육과 대중 인지 프로그램을 통해 음주를 줄이도록 추천하는 한편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여겨지는 식당이나 술집조차 큰 타격을 받지 않는 것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긍정적인 권고 사항들을 고려해 올해 9월 ‘알코올과 건강에 관한 토론회(Communication on Alcohol and Health)’에서 새로운 주류 정책을 제출할 것이다.

주류 경고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곳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뿐이 아니다. 몇몇 유럽 국가들이 이미 그와 비슷한 계획을 도입했다. 프랑스는 지난해 가을에 알코올 음료에 경고문을 붙이는 것이 음주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밖에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모두 알코올 음료에 임신 부를 위한 경고문을 붙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올해 4월에는 영국 공공 보건부 캐롤라인 플린트(Caroline Flint) 장관이 2년 안에 영국에 있는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에 건강 경고문을 붙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경고문은 담배 갑에 붙여진 것과 비슷한 것으로 주류 상품뿐 아니라 술집과 주류를 파는 가게에도 부착될 것이다. 🍷

참고:

<http://www.europeanspirits.org/>

<http://www.euractiv.com/en/health/alcohol-products-carry-health-warnings/article-155768>

[http://ec.europa.eu/health-eu/news\\_alcoholineurope\\_en.htm](http://ec.europa.eu/health-eu/news_alcoholineurope_en.htm)

<http://www.beveragedaily.com/news/ng.asp?n=67084-alcoholic-drinks-health-labelling>

# 새로운 보고서로 확인된 음주의 실제 대가

미국 플로리다 뉴스그룹 (원문 영어)

2006년 6월 30일, 영국 국립의료원(British National Health Service)은 영국에서 알코올성 간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지난 5년간 37%나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십여 년 동안 알코올성 간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 수는 100%, 알코올성 정신 질환 사례는 75%, 알코올 중독은 60% 이상 증가했다. 술은 이제 영국과 다른 많은 국가의 청년 남녀를 해치는 첫 번째 살수(殺手)가 되었으며 지구상의 그 누구도 술이 미치는 파괴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상태가 됐다(164호 뉴스잡지 '음주에 따르는 실제 대가' 참고).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놀라운 소식은 어린이의 음주 비율 증가와 관련된 것이다. 11세에서 15세까지의 취학 아동 가운데 22%가 지난주에 술을 마셨으며, 이 연령대의 1인당 음주량은 1990년보다 2배로 늘어났다. 또한 10대에서는 15세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전체로 봤을 때는 1인당 술 소비량이 50년 전에 비해 121% 증가했다.

영국 취학 아동들은 왜 자신의 심신을 해로운 술로 파괴하는 것일까? 술의 해로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졌고 건강과 영성에 대한 의식도 향상되었지만 이런 이상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이런 비통한 현실에 대한 이유 중 하나는 주류 사업의 성장이다. 현재 술은 보다 저렴한 단가에 생산되며 연간 가구당 수입

으로 보자면 전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술 제조사는 교묘한 광고를 이용해 젊은층을 겨냥한 신제품을 개발해 왔다. 알코팝스(Alcopops)라는 제품의 경우 영국에서, 특히 여학생들 사이에 대단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이 제품은 도수가 높은 술에 설탕과 향료를 가미해서 만든 것이다. 그런 알코팝스가 이제는 영국 여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알코올 음료가 되었다.

술 제조업계의 강한 압력 때문에 영국 정부는 술 판매 시간을 연장하는 법을 지난 2003년에 통과시켰다. 과거에는 술집에서 밤 11시 이후 술 파는 것을 금지했었지만 2006년부터 정부는 이 제한을 풀어 술집, 슈퍼마켓, 주유소 및 다른 상점에서 하루 24시간 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다. 이 법은 또한 어린이들도 제한된 술집에 출입할 수 있게 허락하는 한편 성인과 동반한 경우엔 16세만 되었으면 식당에서 술을 마실 수 있게 했다.

가장 어처구니없는 것은 다수의 대중들이 이 새로운 법을 반대하고 있으며 건강 전문가들도 공통된 목소리로 이 법을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론의 흐름은 이미 변했으며 술집 주인들조차 다수가 이 법을 반

## DRINK DEATHS SOAR

**BRITAIN'S binge-drinking culture is claiming lives at an alarming and escalating rate, figures revealed yesterday.**

The last five years have seen a 37 per cent rise in drinkers dying from alcohol-related disease - while hospital admissions for the condition have doubled in a decade to a record level of more than 183,000 a year.

The stark statistics emerged in a report by Julie Winstanley, Science Correspondent.

The report also revealed that there has been a large rise in people visiting hospital for acute alcohol poisoning, with a 100 per cent increase in the UK over the last five years.

One source said: "The figures are shocking and show a real crisis in the way we drink. It's not just about the health of the nation, it's about the health of the economy. Alcohol is a major cause of lost productivity and a huge burden on the NHS."

The report also found that the number of people who die from alcohol-related diseases has risen by 37 per cent in the last five years. This is a significant increase, especially when you consider that alcohol is the leading cause of death for young people in the UK.

The report also found that the number of people who are hospitalized for alcohol-related diseases has doubled in the last decade. This is a worrying trend, especially as the number of people who die from alcohol-related diseases continues to rise.

The report also found that the number of people who are hospitalized for alcohol-related diseases has doubled in the last decade. This is a worrying trend, especially as the number of people who die from alcohol-related diseases continues to rise.

## Drinking deaths soar

Continued from Page One

...and young children, aged between 11 and 15, had lost a drink in the previous 12 months.

The report also highlighted research which showed that the number of people who die from alcohol-related diseases has risen by 37 per cent in the last five years. This is a significant increase, especially when you consider that alcohol is the leading cause of death for young people in the UK.


The report also found that the number of people who are hospitalized for alcohol-related diseases has doubled in the last decade. This is a worrying trend, especially as the number of people who die from alcohol-related diseases continues to rise.

The report also found that the number of people who are hospitalized for alcohol-related diseases has doubled in the last decade. This is a worrying trend, especially as the number of people who die from alcohol-related diseases continues to rise.



대하고 있다. 이 법은 공공 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시킨 영국 정부의 강경한 새 금연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또 전세계적으로 반(反) 알코올 입법이 증가하는 추세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세계의 의식 수준이 이미 고양되긴 했어도 일부 국가의 막강한 기업들은 알코올의 치명적인 영향을 은폐하는 환상을 만들고자 애쓰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에 대한 최종적인 대가는 순진한 학

생들을 포함해 매년 수백만 명이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는 이 기만적인 회사들을 법률로써 제지하고 술 소비를 완전히 근절해야 할 것이다. 

참고:

<http://www.godsdirectcontact.org/incoming/pub/enews164/e164.htm#veg>

<http://www.ic.nhs.uk/news/press/pr300606d>

## 한 사람의 용기가 육식의 진짜 대가를 밝히다

미국 플로리다 뉴스그룹 (원문 영어)

2006년 7월 3일, 영국 정부 약학자인 존 버렐(John Verrall)은 영국 『데일리 메일(Daily Mail)』지에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그는 영국 정부가 **성호르몬이 주입된 쇠고기 섭취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를 의도적으로 은폐해 왔다**고 주장했다. 『데일리 메일』의 기사는 그 즉시 전세계 다른 신문들을 통해 전파되었다.

49년 경력의 존경받는 과학자 버렐 씨는 정부의 ‘수의 제품 위원회(Veterinary Products Committee)’에 재직 중인데, 이 위원회는 육류업계의 호르몬 사용을 감독한다. 그는 위원회에 몇 차례나 경고했지만 무시당하자 의혹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진술에서 사람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영국 공무원들이 이미 여러 차례나 광우병과 육류 산업의 다른 위험성들을 은폐한 사실이 발각되었다는 것이다. 수상 경력이 있는 조프리 린(Geoffrey Lean) 기사는 “존 버렐의 입을 막는 행위야말로 우리가 먹는 음식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그들의 오만과 무관심을 증명하는 명백한 반증이 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

다.

참고 사이트: [http://www.dailymail.co.uk/pages/live/articles/news/news.html?in\\_article\\_id=393885&in\\_page\\_id=1770](http://www.dailymail.co.uk/pages/live/articles/news/news.html?in_article_id=393885&in_page_id=1770)

### 육류에 포함된 성호르몬의 무서운 실체

축산업자들이 소에게 성호르몬을 주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호르몬은 소의 근육이 보다 빨리 성장하도록 돕는다. 이들 호르몬 가운데 일부 호르몬은 운동선수나 근육량을 키우는 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는 테스토스테론 계열의 호르몬이다. 그 외 다른 호르몬은 에스트로겐 계열인데, 이는 소의 번식 주기를 감소시키며 소의 근육을 보다 빨리 형성시키는 작용을 한다. 호르몬 주입의 결과는 대단하다. 호르몬이 투입된 소들은 매일 3파운드씩 살이 쪼다. 이는 정상적으로 자란 소들보다 20%나 빠른 것이다.

성호르몬이 매우 강력한 화학물질이라는 것은 분



명하다. 바로 이 때문에 운동선수의 성호르몬 사용이 금지된 것이다. 성호르몬은 호르몬을 맞는 소(곧 도살돼질 지만)의 몸에 큰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극소량이라도 고기에 남아 있으면 사람과 다른 동물에게 장기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들 호르몬이 바람과 물을 통해 생태계 전반에 확산되었음을 보여 주는 미세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예컨대 주입된 호르몬의 12%는 소의 배설물을 통해 배출되어 강과 시내를 오염시킨다. 생물학자들은 어류와 파충류의 일부 기형 현상이 소의 배설물에 포함된 호르몬 탓이라고 보고 있다. 대체적으로 이들 기형은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인류의 상태와 유사하다. 이를테면 **남성의 음경과 고환이 수축된다든지 여성이 남성화된다**든지 하는 것이다.

호르몬이 남아 있는 고기를 먹는 사람들 중 가장 큰 피해자는 어린이와 임산부이다. 발육 중인 신체에 외부에서 이런 성호르몬이 유입되면 체내의 호르몬 균형을 깨트릴 수 있으므로 매우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그에 따른 잠재적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유방암, 전립선암, 고환암, 남아들의 생식기 수축**이 여기에 포함된다.

미국에서 공장식으로 사육되는 소들 가운데 90%가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는데, 그런 미국 여성의 유방암 비율은 유럽에 비해 45%가 더 높고 남성 전립선암의 경우는 2배나 높다. 유방암 비율이 높아지는 것

은 사춘기가 빨라진 것과 관련이 있다. **미국 여자아이들의 초경은 호르몬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전인 100년 전보다 거의 2년이나 빨라졌다.** 미국 보스턴 터프츠 대학(Tufts University) 의과대학의 카를로스 소넨샤인(Carlos Sonnenschein) 박사는 이런 암의 발병률이 높아진 가장 유력한 요인으로 육류에서 섭취한 호르몬을 꼽았다.

참고 사이트: <http://www.sciencenews.org/articles/20020105/bob13.asp>

## 은폐

2002년, 한 EU 과학자 위원회는 쇠고기에 있는 호르몬의 영향을 연구한 17개의 논문을 심사한 결과 위험성이 심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때문에 EU에서는 모든 가축들에 대한 호르몬 주입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많은 나라들은 호르몬 주입을 금지시키지 않은 상태이고 그곳 사육업자들은 EU에 쇠고기를 수출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EU는 호르몬이 사용된 육류의 수입을 금하고 있으나 수입 고기를 검사하지는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오염된 고기가 여전히 유럽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미국 정부와 영국 정부가 현재 이 금지 조치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정부가 최근 입장을 바꾸도록 만든 주범은 성호르몬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다국적 기업 몬산토(Monsanto)이다. 몬산토는 미국 우육 협회(US Cattle-men's Beef Association)와 같은 다른 육류 산업 단체들과 동맹을 맺고 갖은 방법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여러 가지 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절대 다수의 EU 시민들이 인간의 건강과 동물의 복지라는 측면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최근 EU에 호르몬이 주입된 육류 수입을 합법화시키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논쟁의 여지가 많은, 미국의 압

력에 의해 이루어진 지난번 WTO의 비밀투표로 인해 EU는 현재의 수입 금지 법안을 고수하는 대가로 매년 1억 2천만 달러를 미국에 지불하게 되었다. WTO의 최종 판결은 2006년 10월에 있을 예정이다.

영국 정부의 '수의 제품 위원회'에 소속된 관계로 존 버럴은 몬산토의 책략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과거에 그는 퇴직하면 돈벌이가 되는 일을 제공하는 식으로 공무원을 매수하는 몬산토의 수법을 폭로한 적도 있다. 현재 WTO를 통해 행사되고 있는 몬산토 변호사들의 엄청난 압력으로 인해 '수의 제품 위원회'마저 EU 과학자들의 보고서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현재 호르몬을 사용한 육류의 수입을 금지하고 몬산토에 대한 최대의 이윤을 가져다 주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수입을 반대하고 있는 EU의 입장을 와해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 육류 산업의 환상

이 모든 법적인 분쟁은 국제 변호사들에 의해 비밀리에 행해졌다. WTO 규정에 따르면 무역 정책 결정은 일반 시민들의 의견에 영향받지 않고 전문가의 의견을 기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존 버럴이 실상을 밝혔을 때, 전문가들이 내놓은 자료는 육류업계에 의해 통제되었다. 버럴의 보고서는 전문 보고서의 기본 요소 가운데 하나인 소수자 견해(Minority Report)로서도 인정받지 못해 호르몬에 관한 '수의 제품 위원회'의 공식 보고서 속에 포함되지 못했던 것이다.


같은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호르몬 주입의 영향에 대한 권위 있는 전문가 다이애나 앤더슨(Diana Anderson) 교수의 의견 또한 버럴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무시되었다. 버럴은 **지난 2년간 수많은 연구를 통해 호르몬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한 새로운 증거들을 무더기로 제출했지만 위원회는 버럴의 연구를 위원회 보고서에 조금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버럴은 인터넷에 자신의 '소수자 견해'를 공개적으로 발표해 위원회의 신용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다.

참고 사이트:

<http://foodethicscouncil.org/node/166?PHPSESSID=1d4a99ca9cfa75d141f0704fe92b1284>

버럴의 영웅적인 행동으로 인해, 적어도 WTO 협상이 결론지어질 때까지는 EU의 호르몬 금지 조치가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호르몬 문제는

육류업계와 대부분의 순진한 대중이 벌이는 대규모 전쟁 가운데 하나의 전투에 불과하다. 이는 대중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육식의 진짜 대가**를 은폐하려는 잘못된 정보와 법적 속임수의 전쟁이다. 동물 복지에 대한 여론이 현저하게 바뀌고 있는데 현대 육류 산업

의 실상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도덕 기준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현실은 과거와 같이 '비밀'로 잘 포장된 채 은폐되어 왔다(자세한 내용은 뉴스잡지 164호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을 참고). 육류 산업은 정부 정책을 강압적으로 조정하며 공중 보건 기관을 조롱해 왔지만 이러한 기만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존 버럴과 같은 사람들의 용기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테니 말이다.** 





## 유럽, 담배 연기 없는 황금시대를 예고하다

영국 뉴스그룹 (원문 영어)

1999년 5월 칭하이 무상사는 발칸 반도의 전쟁 와중에 유럽 대륙의 의식을 고양시키고자 유럽 순회 강연을 전개하였다. 스승님의 마지막 강연이 있던 날 밤 같은 시간에 전쟁 당사자 쌍방이 평화 조약에 서명했다. 유럽은 그날 이후 전례 없는 평화의 시대를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순회 강연 기간 동안 스승님은 유럽 전역에 걸쳐서 또 다른 형태의 파괴적인 행위, 즉 흡연을 목격하셨다. 스승님의 육신은 어떤 종류의 오염에도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호흡기 증세가 심해지셨다. 스승님은 유럽인들에게 그들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위해 담배를 끊어야 한다고 반복해서 경고하셨다.

놀라운 일은 유럽이 그때부터 전세계 금연을 주도하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점이다. 흡연은 유럽 문화에서, 특히 카페나 선물집에서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었지만 아일랜드, 노르웨이, 이탈리아, 몰타, 스웨덴, 스코틀랜드 등 유럽 6개국은 2004년부터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금연령이 이번 달에는 라트비아에서, 내년에는 영국에서 실시될 것이다.

한편 독일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채택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여론 조사에서는 독일 국민의 대다수가 이 금연령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의회는 현재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의 지지를 받아 금연 입법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 각료회의에서 흡연을 금지시킨 메르켈 수상은 “금연령 통과 가능성이 이보다 더 좋은 적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담배 생산품에 대한 과세 조치는 흡연을 줄이는 데 있어 공공장소 금연법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듯하다. 연구에 의하면 담배에 높은 과세를 매기면 청소년들의 흡연을 지속적으로 저지할 수 있다고 한다. 영국에서는 세금 인상으로 인해 담배 판매가 감소하는 반면 니코틴 대체 제품의 소비량이 늘어났다. 불가리아의 경우 올해 초 담배세가 인상된 후 담배 소비량이 대폭 줄어들어 불가리아 국영 담배 공사인 불가타박(Bulgartabac)이 도산 직전에 처해 있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고 한다. 공공장소 흡연 금지와 담배 생산품 과세 조치 외에 담배 광고 금지 또한 흡연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유럽연합은 1990년대에 TV 담배 광고를 금지했는데 이후 이런 금지 조치는 계속 확대돼 2003년에는 라디오, 인쇄 매체와 인터넷 광고 금지로 이어졌다. 이 밖에 유럽연합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담배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하는 캠페인에 수백만 유로를 들이고 있다.

이런 깨달음은 정책의 결실로, 2002년 33%였던 EU의 흡연 인구 비율이 2005년 가을에는 27%로 떨어졌다. 또한 유럽인 중 80%가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희망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스승님의 끊임없는 축복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고 담배 연기 없는 황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참고:

[http://news.yahoo.com/s/afp/20060627/hl\\_afp/latviahealthtobacco\\_060627121938](http://news.yahoo.com/s/afp/20060627/hl_afp/latviahealthtobacco_060627121938)

[http://news.bbc.co.uk/1/hi/uk\\_politics/4714992.stm](http://news.bbc.co.uk/1/hi/uk_politics/4714992.stm)

[http://www.businessweek.com/globalbiz/content/jun2006/gb20060629\\_205763.htm?campaign\\_id=search](http://www.businessweek.com/globalbiz/content/jun2006/gb20060629_205763.htm?campaign_id=search)

<http://www.yesmoke.ch/web/aspx/Templates/Pagina.aspx?idNews=1930>

<http://europa.eu.int/rapid/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MEMO/05/274>

<http://news.morningstar.com/news/DJ/M06/D28/200606280651DOWJONESDJONLINE000452.html?Cat=Staples>

<http://news.bbc.co.uk/1/hi/world/europe/5033284.stm>


## 동티모르의 무기 이양

호주 브리즈번 뉴스그룹 (원문 영어)

황금시대 3년(2006년) 6월 16일 인도네시아 옆의 작은 나라 동티모르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정부와 교전 중이던 군대 지도자가 자발적으로 호주가 이끄는 평화유지군 측에 자신의 총을 인도하고 부하들에게 똑같이 하라고 명령했던 것이다. (주 1)

2006년 4월 분쟁이 발생한 이래 동티모르에서는 133,000명의 난민이 발생했고 일부 경찰과 반군이 부상당하고 사망했다. (주 2) 이 작은 나라가 내전 직전에 처하자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포르투갈에서 파견한 2,200명이 넘는 평화유지군이 동티모르에 배치돼 질서를 회복하고자 도왔다. (주 3)

무기 이양은 동티모르의 수도인 딜리(Dili)에서 일어났다. 당시 사령관인 알프레도 레이나도(Alfredo Reinado) 소령은 자신의 M16을 호주 부대에 건네고 그의 부하들에게 똑같이 하도록 지시했다. 레이나도 소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사람은 협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일 뿐입니다. 목적은 평화와 정의입니다.” 이에 따라 약 12정의 총이 인도돼 금속 함에 봉해졌다. (주 4)

이 무기 포기는 일반 대중의 신뢰와 마음의 평화를 회복시키는 강력한 조치였다. 이 영웅적인 행동이 동티모르에 있어 더욱더 의미 깊은 까닭은 이곳에서 수십 년간 끊임없이 이어진 전쟁을 통해 수십만 명의 생명이 희생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아름다운 시(詩)와 수공예품으로 이름 높고 특히 백단향 생산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황금시대에 동티모르 국민들이 전쟁 도구들을 버림에 따라 이 향기로운 섬은 태평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섬 중 하나로 원래의 자연적인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다. 

주 1: <http://www.guardian.co.uk/international/story/0,,1799284,00.html>

주 2: <http://www.radioaustralia.net.au/news/stories/s1665096.htm>

주 3: <http://www.radioaustralia.net.au/news/stories/s1667326.htm>

주 4: [http://abcasiapacific.com/news/stories\\_to/1665096.htm](http://abcasiapacific.com/news/stories_to/1665096.htm)



## 세계 최고의 두 갑부가 자선 사업에 힘쓰다

매튜 서피스 사형/ 호주 태즈메이니아 (원문 영어)

최근 세계에서 두 번째 갑부인 워렌 버핏(Warren Buffet)이 자신의 총재산 440억 달러 중 370억 달러를 빌 게이츠(Bill Gates) 자선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는 '세상에서 가장 빈곤하고 소외된 지역, 특히 아프리카의 질병 퇴치와 교육 장려'를 목적으로 재단을 만든 바 있다(뉴스잡지 170호 참고). 버핏의 발표는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프트웨어 최고 설계 책임자의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자선 재단 일에만 완전히 몰두할 것이라고 말한 지 얼마 안 돼 나온 것이다.

재산 대부분을 왜 이 재단에 기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버핏은 “큰 돈이 걸린 골프 경기에서 자기 대신 타이거 우즈(Tiger Woods)를 선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내 돈에 대한 결정 또한 그런 심정과 같다.”고 말하면서 게이츠에 대한 깊은 신뢰를 나타냈다. 1991년에 알게 된 게이츠와 버핏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버핏의 이런 결정은 그러한 이해와 상호 존중에 기초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는 세계가 평등하고 조화로운 상태를 이루도록 돕고자 하는 깊은 열망에 기인한 것이다. 지구의 영적 의식이 고양되고 거주민들의 탐심이 줄어듦과 보다 이타적이 되어 가는 오늘날, 이런 바람은 더욱더 보편화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두 사람이 자신들의 돈과 시간 대부분을 고귀한 일에 바치게 된 것은 스승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우리가 황금시대로 들어섰기 때문일 것이다.

빌 게이츠와 그의 아내는 자신들의 재단을 직접 관리하고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임무를 수행한다. 버핏이 이 선물을 하면서 내건 한 가지 조건은 빌 게이츠 또는 그의 아내가 직접 재단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 또한 그의 선물이 진심에서 우러난 것임을 보여 주는 징표라 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현재 개인 재산을 전 인류를 위한 사랑과 자비의 행동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

참고:

<http://news.bbc.co.uk/2/hi/business/5115920.stm>

<http://news.bbc.co.uk/2/hi/business/3913581.stm>



빌 게이츠



워렌 버핏





# 작은 마을의 위대한 친환경 모범 사례



아일랜드 뉴스그룹 (원문 영어)

아일랜드 남서쪽 산을 등지고 바다를 마주보는 곳에 위치한 킨세일(Kinsale)은 그림처럼 아름다운 휴양지로서 미로처럼 뻗은 작은 거리들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 수백 년간 한결 같은 모습을 유지해 오던 이곳이 최근 들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2005년 이 지역의 한 대학이 이 마을을 위해 자원의 영구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 지속 가능한 계획을 세웠다. 이런 분야의 계획에 마을 전체가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는 국제적인 관심까지 얻게 되었다.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 회의가 열렸고 마을 의회의 지원과 함께 시민들의 전적인 지지를 얻게 되었다. 이 계획의 목적은 석유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지속 가능한 대체품의 사용을 늘려 가는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해 전력과 난방을 공급하고 비교적 자연적인 건축 자재 사용하기.**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에 따라 마을 전체의 주택과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높이기.**


**\*마을에 유기농 채소와 허브, 과일 등을 생산·공급할 공동체 농장을 만들기. 이 농장은 마을에 신선한 유기농 작물을 공급하는 한편 킨세일 대학과 연계해 교육 중심지가 된다.**

**\*호텔과 식당에 음식물 찌꺼기를 이용한 퇴비 만들기를 비롯해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작물 구매에 이르기까지 자원의 영구적인 활용에 대해 건의할 것.**

매체에 보도된 최신 에너지 위기와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 해법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에너지 불러틴(Energy Bulletin)'의 애덤 펜더슨(Adam Fenderson)은 이렇게 말했다. "...킨세일은 머지 않은 미래에 있을 석유 최고점(Peak Oil) 이론들 중 가장 긍정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다. 다른 많은 해결책들을 검토해 본 결과 킨세일에서 채택한 접근 방식이 우리가 직면한 난국에 대처하는 최고의 해결 방안이라고 믿는다. 긍정적인 태도로 조기에 대응한다면 보다 풍요롭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활력이 넘치는 지역 공동체를 구상하고 창조해 내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수개월간 아일랜드의 다른 많은 도시들도 킨세일의 사례를 따라 '절전 공동체 네트워크(Powerdown Community Network)'에 가입하고 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대체 에너지 사용을 위한 도시들의 네트워크로 그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킨세일 계획 추진 팀은 스웨덴, 미국, 호주 등 다른 나라에서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협력해 이상을 나누고 동료 의식을 발휘해 전세계의 환경 보호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생활 환경을 갖춘 지역과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들은 지구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성 고양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며, 현재 역사상 전례 없는 무서운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출처 및 참고 사이트:

<http://www.sustainable.ie/powerdown>

<http://www.energybulletin.net/>

<http://www.globalpublicmedia.com>

<http://www.fuellingthefuture.org/>

<http://www.localplanet.ie>

## 살아 계신 큰스승의 영원한 보호

샤오천 사저/ 포모사 난터우 (원문 영어)

남편과 나는 1995년에 입문했다. 입문 전 어느 일요일 오전, 우리는 지루해하며 TV를 켜서 볼 만한 게 있나 하고 이리저리 채널을 돌리고 있었다. 이 채널저 채널 누르던 중 문득 강연을 하는 한 여성이 눈에 띄었다. 우리는 그녀의 강연에 정신을 빼앗겼다. 그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서로를 쳐다보니 두 사람 다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그 당시 남편과 나는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느꼈다.

나중에 우리는 한 친구를 만나서 이 체험에 대해 얘기해 주었다. 그녀는 이미 그 스승에게 입문했다고 하면서 지역 연락인을 소개해 주었다. 입문한 후 1, 2년 동안 우리는 매우 신실하게 수행했고 좋은 체험도 많았다. 수행에서 계속 진보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셈인데, 그때 명상을 적게 하면 퇴보하는 속도는 더 빨라지게 마련이다. 남편과 나는 그런 기간을 겪으면서 거의 길을 잃을 뻔했지만 스승님은 이 게으른 아이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루는 남편이 척추가 아프다고 해서 나는 남편을 데리고 척추 교정사를 찾아갔다. 그 선생은 치료 도중 우리가 관음법문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자 갑자기 치료를 그만두었다. 남편이 왜 그러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들 스승님이 와서 말씀하시길, 당신들은 단체명상에 오랫동안 참석하지 않았으니 볼기 짝을 맞을 만하다고 했습니다.” 침상에 누워 치료를 받던 남편은 이 말을 듣고선 바로 뛰쳐나왔다. 그 척추 교정사는 우리가 단체명상에 나가는지 어쩐지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스승님은 그를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셨던 것이


다. 그날 마침 단체 명상이 있어서 우리는 서둘러 센터로 달려가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1999년 포모사에 대지진이 발생했다. 우리가 살던 7층 아파트도 크게 흔들려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였다. 게다가 전기도 나가 버려서 우리는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캄캄한 와중에 서둘러 건물 밖으로 뛰어나갔다. 많은 집들이 무너져 내린 광경은 처참했다. 우리가 살던 건물도 거주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철거 결정이 났고 그에 따라 주민들은 이사를 해야 했다.

나중에 물건을 챙기러 집에 돌아와 보니 벽에 걸려 둔 결혼 사진, 가족 사진 모두 떨어져 있거나 비틀어지게 걸려 있었는데 놀랍게도 스승님의 범상한은 그대로 반듯하게 놓여 있었다. 우리가 서재로 들어갔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물건들이 가지런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것은 분명 그 안에 스승님의 물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도와주러 왔던 친구도 놀라서 물었다 “이 방은 벌써 청소한 거야?” 이 물음에 나는 “아니, 지진 후에 처음 온 거야.”라고 말했다. 그 서재를 제외한 거실과 침실은 완전히 뒤죽박죽이었다. 가장 겁났던 것은, 장식장 하나가 넘어져서 유리 조각이 집 출구 주변에 흩어져 있었던 것이었다. 우리는 캄캄한 어둠 속에 맨발로 피신했는데도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 우리가 상처를 입지 않은 게 모두 스승님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지진으로 인해 살던 집을 잃고 우리는 답답한 심정이 되었고 어디로 갈지도 몰랐다. 얼마간 의논한 끝

에 남편과 나는 시동생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다. 당시 시동생은 혼자서 큰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방을 한 칸 빌려서 정착할 수 있었다. 의기소침해질 때마다 우리는 스승님을 생각했다. 그러면 우리를 강하게 지지해 주는 스승님의 힘이 느껴지곤 했다. 남편과 나는 서로를 격려하며 가장 어려웠던 그 시기

를 넘길 수 있었다. 2001년 우리는 조그만 땅을 사서 집을 지었다. 건축 과정은 아주 순조로웠다. 건축회사조차 그렇다고 말할 정도였다. 우연의 일치인지 시멘트 공 한 명도 채식주의자여서 정말 운이 좋았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스승님의 안배라는 것을 안다. 사랑하는 스승님, 정말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 날마다 일어나는 작은 기적들

마리안 헤일리-모스 사저/ 미국 뉴욕 (원문 영어)

스승님은 우리에게 해탈의 은혜뿐 아니라 매일 작은 기적들 속에서 사랑을 보여 주신다.

몇 주 전 치과 의사에게 이를 치료받고 나서 끔찍한 치통을 겪었다. 닷새 동안 고통을 견디다 못해 다시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걸었더니 공교롭게도 그 의사가 휴가를 떠난 상태였다. 상대방은 그 병원의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렇지만 예약을 할 수 없어서 나는 오후 내내 대기실에 앉아서 내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려야 할 처지였다. 나는 이것이 좀더 참았다가 3주 후에 돌아올 주치의를 기다리라는 신호로 여겨졌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아는 사람과 마주쳤다.

“어디 갔었어요? 이번 여름 내내 안 보이던데.” 내가 물었다.

“콜로라도예요.” 그녀가 말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바쁘네요. 때운 이가 아침에 빠져 버려서 치과에


가던 중이거든요.”

“좋은 의사가 있나요?”

“정말 훌륭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전화번호부에서 그녀가 소개해 준 의사를 찾아 전화했다. 그들은 그날 오전으로 예약을 잡아 주었다. 이를 뽑고 나자 이를 후에는 새 사람이 된 듯했다.

신께서는 ‘아는 천사’를 보내 좋은 의사의 이름을 알려 주신 것으로도 모자라 그날 바로 예약을 할 수 있게까지 해주셨다. 여러분은 그 치과 의사의 이름이 ‘닥터 오케이(Dr. Okay)!’였다는 것을 결코 믿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정말이다. 나에게는 그가 ‘오케이’라고 돼 있었다!

이런 안배뿐 아니라 매일 소소한 신의 사랑의 기적을 보내 주시는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마리안 헤일리-모스 사저는 저명한 여배우이자 작가, 인도주의자이다.





## 상황에 맞아야 지혜라 할 수 있다

청하이 무상사/ 1995. 6. 2 포도사 시후 선삼

(원문 중국어) 비디오테이프 No. 475

옛날 어울락에 폭군이면서 아주 거만한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조정의 한 신하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아주 정직한 그 신하가 왕에게 자주 강직한 충언을 올렸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왕은 그 신하를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왕과 문무 백관들이 함께 용선(龍船)을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부패한 간신들은 왕의 비위를 맞추는 데 아주 능수능란했습니다. 그들도 정직한 대신을 싫어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그를 비웃으며 그에게 티무니없는 말을 퍼부었습니다. 마침내 지쳐워진 왕이 그 충신에게 물었지요. “듣자 하니 그대가 박학다식하다더군. 그럼 백성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려다.” 그 정직한 대신이 대답했지요. “왕께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아는 이치로서 학문을 쌓아야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을 듣자 왕은 한층 더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했지요. “그대가 충신이라고 치자. 그

러면 왕이 죽으라고 명하면 죽을 것인가?” 왕은 함정을 판 것이었습니다. 충신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예, 전하.” 그러자 왕이 말했죠. “좋다. 그대가 죽기를 명한다! 즉시 바다로 뛰어들어 자살하라!” 그러자 그는 바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굴원보다 더 심하지 않나요? (대중: “예.”) 아니,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뭐 하러 죽어요? (스승님 웃으심)

그러자 배 위의 모든 문무백관들이 악어의 눈물을 몇 방울 짜내면서 큰소리로 통곡했습니다. “그가 죽다니, 이렇게 슬플 수가!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죽다니, 잘 죽었네! 오!” (스승님과 대중 웃음) 모두들 울고불고 소란을 피우고선 가짜 꽃 몇 송이를 바다에 던지며 그 충신을 전송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슬픈 울음소리를 들었는지 그 충신이 물에서 튀어 나왔습니다. (스승님과 대중 웃음) 그는 죽고 싶지 않았는지 물에 빠진 새 같은 모습으로 배에 기어 올라왔습니다. 왕이 말했지요. “오 죽지 않았군.” “예, 죽었어야 마땅한데, 밑에서 굴원을 만났습니다.” 이 말에 왕이 물었죠. “그래? 어떻게 굴원이 밑에 있을 수 있지?” 그가 말했어요. “예, 굴원은 원래 익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온 바다가 그의 것이지요! (스승님 웃으심) 그의 영혼은 모든 곳을 다 돌아다니는데, 제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는 황급히 저를 만나러 왔더군요! 그러고선 저와 이야기를 하더니 제게 올라가라고 시켰습니다.”

왕이 말했어요. “어떻게 그가 그대에게 올라가라고 할 수 있지? 내가 죽으라고 명령했는데, 감히 그가





뭐라고 그대에게 올라가라고 하는 건가?” 대신은 다 음과 같이 대답했어요. “굴원은 저를 마구 꾸짖었습니다. 명칭하다면서요! 왜냐하면 자기는 생전에 나쁜 왕 을 만났기 때문에 자살을 해야 했던 건데, 저는 지금 훌륭한 왕을 섬기고 있는데 왜 죽어야 하냐고 했습니다. (스승님과 대중 웃음) 저는 그의 비난이 옳다고 생각돼 서 죽을 수가 없어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들었지요? 이래야 훌륭하지요. 만약 그가 죽었다 면 난 그를 때려 줬을 거예요! (스승님 웃음) 그를 해 탈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은 어울락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어울락의 관리가 좀더 똑똑했나 봅니다. (스승님 웃음)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법과 왕에게 충언하는 법 을 비교적 잘 알고 있었습니다. 꼭 엄숙한 방법들만 사용할 필요는 없지요! 이 세상엔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왕 하나를 설득하지 못했다고 해서 죽어야 합 니까? 조금 있으면 왕은 죽을 텐데요! (스승님 웃음)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른 왕을 섬기면 됩니다. 여러분 재능과 지혜를 나라를 위해 바쳐야지 왕에게 바쳐선 안 되지요!

만일 왕이 훌륭하다면 우리는 그를 섬기고 존경하 고 우리의 모든 재능을 그에게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훌륭하지 않다면 우리는 신이 주신 우리 의 재능과 지혜를 잘 간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은 왕이 아닌 우리에게 재능과 지혜를 주셨으니까요. 나 라에 봉사하고 세상에 봉사하라고 재능과 지혜를 주 신 거지요. 그러니 만일 왕이 사람을 쓸 줄 모른다면 우리는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나라와 백성을 위해 봉사하고 사람 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는 것이지 왕에게 봉사하고 왕이 우리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 어, 우리에게 매우 아름다운 공작새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녀를 억지로 두꺼비와 결혼시키려 하는데 두꺼비가 공작새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결혼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슬퍼하며 공작새를 죽 여야 합니까? 그래야 합니까? (대중: “아닙니다.”) 그건 말도 안 되지요! 그러니 무슨 일을 하든 잘못된 시간 에 잘못된 상황에서 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일을 서두른다면 그건 좋지 않은 것입니다! ☺

\*굴원(B.C. 340년-B.C. 278년)은 중국 주나라 때 관리로서 당시의 부패에 저항해 자살했다. 용선(龍船) 축제(단오절)에 그의 죽음을 기린다.

## 관음 웹사이트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전세계 인터넷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nks/links.htm>

이 포털 사이트는 여러 나라 언어로 된 관음 웹사이트로 바로 연결시켜 주며 ‘예술과 영성’ 이 라는 TV 프로그램에 24시간 접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나라별 언어로 된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와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를 전자책(eBook)이나 인쇄용 포맷으로 다운받을 수 있고 각 사이트의 온라인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 긍정적인 생각, 건강한 삶

청하이 무상사/ 1994. 9. 28. 싱가포르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446

오늘날에도 많은 질병으로 인해 수백만 명이 죽습니다. 매년 약 1천 8백만 명이 갖가지 질병과 질환으로 사망합니다. 이는 일부 사람들이 신이 주신 이 귀중한 몸을 소중하게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이 우리에게 이 육신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우리 자신의 전능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담배를 많이 피우고 술을 많이 마시고 또 육식도 많이 해서 고기에 든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도록 하는 등 우리 몸에 치명적인 온갖 일들을 함으로써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좀더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몸을 더 소중히 여긴다면 사실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입맛에도 맛고 몸에도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되 적당량만 먹는다면 당연히 우리 건강은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채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합니

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 그렇습니다!) 실제로 병원엔 육식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채식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되지요. 채식은 그 자체로 건강할 뿐 아니라 채소의 진동력은 우리 몸에도 매우 조화롭습니다. 반면 동물의 진동력은 조화롭지도 못할뿐더러 그다지 평화롭지도 않습니다.

정말이지 단순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건 아주 쉽습니다. 약이나 주사도 별 필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에 독물을 집어넣어 스스로를 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한 삶, 영양이 풍부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방법을 안다면 우리에게 정말 의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면 의사도 쉬는 날을 더 많이 갖게 되어 의사와 우리 모두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에너지를 사용하면 할수록 우주로부터 더 많은 에너지를 받는다

힘든 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일을 하고 에너지를 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끌어들이 수 있는 일곱 개의 ‘차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건전지처럼 우주의 힘에 의해 자동적으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기계’를 계속해서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힘은 명상할 때 더욱더 풍부해집니다. 우리가 내보낼수록 이 에너지는 더욱더 많이 들어옵니다. 이 힘은 결코 끊이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업장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도우면 업장을 받을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면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간섭하려 하고 그들을 통제하려 하거나 이기적인 목적에서 그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일을 시키려 할 때만이 업장을 짓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필요로 할 때 도와주려 한다면 설령 그들 때문에 진짜로 업장을 받게 된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희생해야 하니까요. 우리는 사랑 속에서 더불어 살아야지 업장을 신경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볼 수 있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만 해도 각각의 긍정적인 생각이 오오라의 모양을 바꾸고 외모를 바꾸며 내면의 에너지를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활력이 더욱더 넘쳐나게 될 것이고 더욱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이고 나쁜 것, 비참한 것을 생각하기만 해도 여러분 오오라의 형태가 즉각 바뀔 것입니다. 염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런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면 그들이 여러분의 오오라를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여러분 몸의 에너지 복사본의 형태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 복사본은 겉보기에는 진짜 장기(臟器)처럼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심장은 이렇게 생

겼지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심장을 떼어 간다면 심장이 있던 자리는 비게 되어도 심장 모양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게 심장에 상응하는 에너지 복사본입니다. 때로 이 에너지 복사본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진짜 심장이 아니라 해도 그걸 고쳐야만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건강하고 단순한 삶을 살기만 하면 여러분이야말로 자신을 위한 최고의 의사인 셈입니다. 단순하게 살면서 숭고한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생각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형태와 나날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으니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고와 질병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시방의 큰스승들이 언제나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남겨져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천사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못 본다 해도 언제나 화신 스승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와 영혼을 믿지 않는다 해도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힘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어떤 질병은 우리 자신이 만든 것이라고 알려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 질병을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항력이 약해진 탓이지요. 예를 들어 알레르기의 경우, 평소에는 그 증세가 없다가도 저항력이 떨어지고 우울해지고 일을 너무 많이 하고 기력이 다하면 알레르기가 나타납니다. 매일 같은 음식을 먹어도 괜찮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기는 건, 아마 그때 여러분의 저항력이 아주 약해서일 겁니다. 면역 체계가 잠시 무너진 거지요. 반면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병도 아주 빨리 사라집니다.

면역 체계가 고장나면 우울해지고 고치기도 아주 어렵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끝장난 겁니다. 살거나 죽거나 하는 거지요. 여러분의 면역 체계를 가능한 한 잘 돌봐서 고장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면역 체계를 돌보도록 하십시오. 이걸 아주 간단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도움이 되지요. 사실 열심히 수행하면 때로는 육신의 존재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런 경험이 있나요? (대답: 예.)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지요? 운전 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 물질세계에서 애쓰지 않고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많은 일들을 좀더 가볍게 해낼 수 있으며 더 이상 지치지도 않습니다. 더 많이 명상할수록 기분은 더 좋아지고 일도 더 빨리 하게 됩니다. 문제 없지요.

여러분은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서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이 고대의 지혜를 수행해서 자기 내면의 신의 왕국과 접촉하고 스스로 불성과 접촉한다면 삶이 보다 흥분해지고 위대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것이며 지지거나 답답하거나 외롭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를 위한 유일한 치유책입니다. 사실 길보기엔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재앙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이 세상이 그렇게 빨리 끝날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아마도 어떤 부분들은 끝날 수도 있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죽기도 하겠지만 덕이 있고 선량한 사람들은 남아서 다음 세대를 돌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명상, 단체명상, 조용한 기도를 통해 생긴 긍정적인 에너지의 도움으로 이 세계는 우리가 희망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보존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길 바라는 겁니다.

## 올바른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라

한 사람이 많은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자신의 선량한 뜻과 자신이 하는 일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믿

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요. 그러니 개성이 강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좋다고 여겨지는 것은 무엇이건 고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는 좋은 본보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좋은 본보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도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더 나아졌으며 여러분이 정말 사회에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진보하는 방법이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파괴되지 않도록 구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에는 우리 자신을 파괴시키는 수많은 마약과 무기, 생활 방식, 그리고 서로를 오염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걸 조금도 의심할 게 못 됩니다. 하늘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지요.

만약 우리가 이 행성을 사랑한다면, 이 행성을 아름다운 곳이라고 여긴다면 말입니다. 오늘날 이 행성처럼 이렇게 아름다워지기까지는 수십억, 수천억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 우리도 공헌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지구를 수리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나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고칠 수 있다면 고쳐야 합니다. 그러니 이 좋은 소식을 전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으로, 올바른 생활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십시오. 바로 채식 을 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계율을 지키고 단순한 삶을 살며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며 수천 년을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성을 비롯한 삶의 모든 방면에서 진보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정말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이것에 개입할 외계인도 없고 우리에게 별을 내릴 신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를 축복해 줄 부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뿐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만 합니다. 좋은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 베꽃은 운명을 뛰어넘는다

청하이 무상사/ 2005. 2. 24. 헝가리 유럽 선행사 (원문 영어)



질문: 저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많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운명이니까요. (스승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해야 할 일도 없는 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스승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명상을 하는 것은 천국을 위한 것이지요. 그게 또 다른 보상입니다.

질문: 예.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것뿐인가요? 우리가 해야 할 다른 최선은 없나요?

스승님: 최선을 다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없다면 그게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할 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돕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하는 데는 운명이 필요없으니까요. 운명이란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과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것을 가리킬 뿐입니다. 하지만 나누고자 하고 주고자 하는 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건 자유죠.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 일을 하고 싶다면 그건 언제나 자유롭습니다.

영적인 측면과 마찬가지로 생활 속에서도 공짜인 것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에 돈을 내야 하지만 어떤 것은 공짜이기도 합니다. 무료 교육이나 무료 의료 검진, 무료 공기 등등 그런 것들은 무료지요. 때로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들 중에도 무료인 게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있기는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거나 돈을 쓰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매주 파티에 가는 줄 압니까? 개업 파티나 결혼식, 장례식에 가는 겁니다. 아무도 확인하지 않으니까요. 신문을 보면 여기 저기에 파티가 있는데, 그들은 그런 곳에 갑니다. 공짜로 먹고 마신 후에 다음 장소로 가죠. 그들은 평생 무료로 파티를 즐깁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예요! (대중 웃음) 단지 삶에는 공짜인 것도 있다는 걸 예를 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무료로 얻어지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우린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영적인 메시지를 나눌 수 있고, 수행의 공덕과 영적인 기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아무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어요. 





동수: 저희는 여기에 와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스승님: 일자리 얻기가 쉽던가요?

동수: 그냥 단순한 일입니다.

스승님: 여기서 일 구하기가 쉽나요?

동수: 아주 쉬워요. 단순한 일, 이를테면 청소 같은 일을 원한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스승님: 그래요. 안 될 게 뭐 있어요? 생활하기 충분하면 됐죠, 그래요!

동수: 예. 청소하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스승님: 단순한 삶을 원한다면 대단한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동수: 저희는 여유 시간도 많고 명상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하니깐요.

스승님: 아침에 일한다고요? (동수: 아침 4, 5시에 청소하러 갑니다.) 와, 아주 부지런하군요! (동수: 그러면 하루 종일 시간이 남습니다.) 아, 정말 훌륭하군요! (동수: 아주 멋진 삶이에요! 정말 좋습니다.) 정말 감동적이군요! 둘이 같이 일하나요?

동수: 예. 같이 청소합니다.

스승님: 청소하는 일은 어디서 구하지요?

동수: 사무실에서요. 때론 사람들이 소개해 주기도 하고요.

스승님: 그렇군요. 회사에 고용된 건가요, 아니면 자기가 알아서 찾나요?

동수: 자기가 찾기도 하고 중개업체를 통하기도 합니다.

스승님: 생활은 괜찮나요? (동수: 예. 저희는 맘에 듭니다.) 두 사람의 수입이 충분한가요?

동수: 예, 먹고살기에 충분합니다.

스승님: 그래요. 행복해 보이네요! (동수: 예. 아주 좋습니다!) 둘 다 아주 지혜롭군요.

동수: 저희는 대단히 행복합니다! 모두 스승님이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모두 스승님 덕분이에요.

스승님: 왜요? 내가 뭘 했다고요?

## 단순한 생활, 훌륭한 명상

청하이 무상사/ 2006. 1. 7.

영국 서리 (원문 영어)

동수: 매일 매일이 기적입니다! 스승님 비디오에서 청소같이 단순한 일을 하라고 조언해 주셨는데 정말 멋지게 풀렸어요.  
 스승님: 그래요! 당신이 미국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그건 장담할 수 없겠지만, 성실하게 살면서 자기 손으로 일하고 싶다면 그런 일은 아주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치 않는 일을 하면 됩니다. 두뇌를 너무 많이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두뇌도 자유롭죠! 일하는 동안 오불을 외우면서 그들의 집도 축복하고 돈도 벌면 됩니다!

동수: 청소하는 동안 스승님의 MP3를 들습니다. 스승님의 음악과 불찬, 강연을 듣지요.

스승님: 아, 좋아요. 또 운동이 되는 일이라 건강에도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비싼 돈을 들여 체육관을 가는데, 여러분은 의자를 들거나 탁자를 닦기만 하면 되죠! (대중 웃음)

동수: 전에는 명상할 때 무릎이 아프곤 했었는데 청소를 하고부터는 운동도 많이 되고 많이 움직였더니 이젠 문제없어요.


스승님: 그건 업장이기도 해요. 일을 해서 생계를 꾸리는 게 모든 점에서 좋습니다. 그럼 여기(스승님께서 당신의 심장 쪽을 가리키심)가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몸도 좋게 느껴지지요. 감정과 영성, 정신, 육체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요? 때로 너무 우울해지면 병에 걸리기도 쉽습니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온몸이 다 아프지요! 어떤 사람들은 청소라든가 막일 같은 육체 노동을 무시하는데, 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든 일자리를 찾아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나는 모두 존경합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은 모두 존경스러워요. (대중 웃음)

동수: 사람들은 퇴근해서 돌아와 집이 깨끗해진 걸 보면 정말 좋아합니다. (스승님: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열쇠를 맡기고 집에 들어가 청소하게 합니다. 우리를 아주 신뢰하는데, 정말 기분 좋습니다. 그들은 마음놓고 우리에게 집을 청소하라고 맡깁니다.

스승님: 그건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들도 느끼는 거지요. (동수: 예, 아주 좋습니다.) 잘됐네요. 나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지요? (동수: 날마다 행복합니다! 좋아요!)

동수: 저희는 스승님께 매일 감사하고 있어요.

스승님: 여러분은 아주 훌륭해요.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동수: 감사합니다. 스승님.) 아노, 그건 여러분이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훌륭하기 때문에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는 것이고 무슨 일을 하든 기분이 좋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부심이 없습니다. 뭔가 큰 인물이 되어야만 자길 존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우리 단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각자 할 일을 할 뿐이죠. 자신을 돌보고 정직하게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으면 우린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린 보통 누가 어떤 사람인지 개의치 않습니다. 난 묻지 않아요! 입문식 때 무슨 일을 하는지 묻는 건 만약을 위해서예요. 단체에서나 이재민들을 도울 때, 누가 뭘 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혹은 센터에서 일을 맡겨야 할 때를 위해서지요. 만약 당신 직업이 전기 기술자라면 센터에 전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일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고요! 난 여러분 대부분을 잘 모릅니다. 또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때로 묻기도 하지만 그건 그냥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일 뿐이지요. 난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내겐 여러분이 전혀 필요치 않아요! 그저 여러분이 행복하다는 걸 알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청소 일을 하며 내 가르침대로 살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생계를 꾸리며 자신을 돌보고 시간을 아껴 명상을 하고 있지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존경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런저런 일을 하며 얼마간의 돈을 벌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건 누구에게도 번거로움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지출이 많을수록 더욱더 많은 돈을 벌려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결국 거기에 매이게 되는데, 그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게 낫습니다. 많이 가졌으면 많이 쓰고, 적게 가졌으면 적게 쓰는 거지요. 



## 생활비를 줄이고 더 즐겁게 생활하라

청하이 무상사/ 2006. 1. 7. 영국 서리 (원문 영어)

때로 우리는 필요도 없는 많은 물건을 사느라 돈을 낭비합니다. 그렇지만 않으면 생활비도 줄이고 더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이를 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떤 남자가 원래 20년 동안 갚기로 하고 융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전문가가 단 2년 만에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자 그들 부부는 정말 해냈습니다!

전문가는 먼저 그들이 줄여야 할 항목을 일일이 검토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온갖 종류의 기계를 사는 것을 좋아했는데, 전문가는 “그런 건 필요치 않다.”고 일러 주었습니다. 남편은 많은 것들을 사서 그냥 쌓아 놓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선 그 물건들을 꺼내서 중고 가격에 처분해 약간의 돈을 벌었

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물건을 살 때마다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사지 않게 된 거지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 식당이나 커피숍, 카페테리아에 가는 대신 샌드위치를 도시락으로 싸가고 커피를 챙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달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 많은 돈은 아니어도 여기저기서 조금씩 아껴 모으면 큰돈이 되지요.

그들은 처음 6개월 동안 6천 파운드를 모았습니다. 단 6개월 만です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식으로 한 달에 천 파운드씩 모은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 부인은 담배도 피웠는데, 전문가는 일주일에 한 갑을 피우면 14파운드 정도가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가 하루에 두세 갑씩 피우는 것도 아닌데, 그 전문가의 산출에 따르면 그런 식으로 1, 2년 정도 되면 차도 한 대 살 수 있는 돈이 된다고 합니다! 2년은 금방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차를 한 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담배를 피우질 않길 바랍니다! (대중 웃음)

그 다음으로 그들은 자가용 대신 기차를 타고 통근했습니다. 그게 더 싸고 빠르고 안전하지요. 앉아서 신문을 보며 각종 정보를 얻거나 내 책을 읽는 등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 달에 100파운드나 50파운드 정도를 더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많죠! 요즘 휘발유 값이 아주 비싸잖아요? 매일같이 여기저기를 다니고 일하러 갈 때도 차를 타고 다닌다면 아마 돈이 더 들 겁니다. 물론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출근할 때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기차를 탄다면 적어도 한 달에 몇 백 파운드는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동수: 주차비도 듭니다.) 그래요. 주차 문제 같은 것도 있지요. 그러니 얼마나 더 절약되겠어요? 아무나 말해 보세요. 자가용으로 통근하지 않는다면 한 달에 얼마나 절약되지요?

동수 1: 보험료와 도로세, 주차비를 더하면 아마 200파운드쯤 될 겁니다.



스승님: 차를 운전하지 않아도 보험료와 도로세는 내야 하지요? (동수 1: 차를 처리한다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내 말은 차를 차고에만 넣어 두고 있어도 보험료는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동수 1: 그렇습니다.) 아니면 덜 내나요? (동수 1: 미국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면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아, 더 싸군요! 한 달에 200파운드면, 와, 일년이면 2,400을 아끼게 됩니다! 그럼 많은 물건을 살 수 있지요. 10년이면 얼마지요? (동수 1: 24,000파운드입니다. 하지만 그걸 투자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자가 생기지요. 좋아요. 그러니까 2년이면 4천 정도는 모을 수 있는 거군요. (동수 1: 2년이면 4,800정도 됩니다. 이자까지 하면 5,500가량 되고요.) 와! 보세요! 5,500이면 히말라야에 가서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명상만 해도 돼요! (대중 웃음)


동수 1: 스승님, 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재정 분석가이거든요.

스승님: 지금은 그냥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 예를 하나 드는 것이지요. 그것뿐 아니에요. 다른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최신 유행 옷 대신 세일하는 옷을 산다거나 또는 겨울 세일이나 시즌 마감 세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옷을 사면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고 실용적인 옷을 입으면 유행에 따라 옷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살고자 한다면 항상 유행을 따라갈 수는 없지요. 또한 그럴 필요도 없고요. 간혹 특별한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직장에서 면접을 보거나 근사한 옷을 입어야 하는 직업이라면 말이에요. 그러나 유명 제품을 사기 위해 많은 돈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근사해 보이는 옷들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 부부는 이렇게 돈을 절약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다른 일도 했습니다. 부인은 노래를 잘 부르고 남편은 다른 일도 잘 했기 때문에 그들은 밖에서 일을 더 해서 매주 부수입을 올렸습니다. 돈을 절약하면 돈을 버는 셈이 됩니다. 게다가 더 많이 벌기까지 하니 그게 계속 모이면 대단한 금액이 되겠지요.

그러니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고 밤낮으로 힘들게 고생하며 생명을 불태우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여러분은 술도 마시지 않잖아요. 그러니 매달 얼마나 많은 돈이 절약되는지 모를 겁니다. 아니까? (대중: 예.) 예컨대, 매일 맥주를 두세 잔씩 마신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나 절약할 수 있지요? (동수 2: 200파운드입니다.) 가볍게 200파운드를 절약하지요! 그런데 혼자 마시는 것만이 아니고 친구들이 와서 같이 마시고 그런 뒤에는 서로 교대로 불러 술을 마십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늘어나지요. 그것만이 아니고 건강도 상합니다. 그러면 병원에 더 자주 찾아가야 하고 의료비도 더 많이 들고 보험료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많이 아픈 사람일수록 보험료가 올라가지요. 다음에 건강 보험에 들 때는 여러분이 병원에 얼마나 자주 갔는지, 얼마나 아팠는지를 확인한 다음 보험료를 올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고라도 나면 목숨을 잃거나 손이나 발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영국식으로 말하자면 그야말로 손발을 대가로 치르게 되는 것(많은 돈이 든다는 의미)이지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 끝나니까 그나마 괜찮지만, 죽지 않는다면 영원히 남에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건강 보조금이나 산소 마스크에 의지해 누운 채로 가족과 사회의 짐이 되고 다른 모든 사람을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명상의 이로움은 말할 것도 없이 내가 하는 일과 가르침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많은 문제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명상을 안 하고 부처를 못 보고 성불하지 못했다 해도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자신과 사회에 있어 여러분은 안전한 시민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매일 수천, 수만 명이 죽어가잖아요! 전세계적으로 본다면 매일 수십만 명이 사망하는 겁니다. 운전자 자신만 생명을 잃는 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운전자, 부녀자, 아이들, 임산부 등 그 누구라도 죽을 수 있지요! 여러분도 알지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의 가르침은 여러분에게 이롭습니다! 안 그런가요? 내 가르침에 불만 있는 사람 있어요? (대중 웃음)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좋아요! 

## 고백

라도스티나 사저/ 불가리아 플로브디브 (원문 불가리아)


나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이 고백을 하기로 결심했다.

주변 상황들로 인해 나는 3년간 무직 상태로 지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울할 만한 일인데 다른 요인들까지 가세해 나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다. 나는 나만의 세계 속으로 움츠러들면서 완전히 냉담해졌고 아침이 되어도 좀처럼 일어날 수 없었다.

그 기간 동안, 우연히 지역 센터 연락인을 만나 방편법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달 후 입문을 했다. 명상은 내게 많은 일들을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었으며 내 삶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나는 나 자신을 다잡아 일으켜 세우고 의지력을 동원해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여러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달걀지 앓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하는 일이었지만 스스로 바빠 움직이면서 우울한 생각과 자기 연민에 빠질 시간을 없었다. 그러자 점차 이런 활동들 속에서 재미를 발견하게 되었다. 명랑하고 긍정적인 사람들을 알게 되면서 조금씩 자신감과 유머 감각을 되찾기 시작했다.

신에 대한 태도도 바뀌었다. 나는 지금 이날까지 무신론자였었고 아무 신앙도 없었지만 이제는 다르다. 많은 기도에 대해 응답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신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한다. 가장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나 혼자라고 스스로 일깨우는 한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삶의 작은 부분들을 즐기도록 나 자신을 가르치고 있다. 나는 매일같이 내게 주어지는 모든 아름다운 일들, 내가 받는 선물들, 재능(그것이 아주 미미한 것일지라도), 건강, 그리고 내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 주는 부모님과 진실한 친구들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그 밖의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히 여기고 있다.

내 삶은 전과 똑같아 보인다. 단지 삶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진 것뿐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완전히 바뀌었다. 다른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내게도 꿈과 목표가 있다. 하지만 설령 그것들이 실현되지 않는다 해도 '세상의 종말'이 되진 않을 것이다. 내가 즐길 수 있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말이다. 지금 나는 기쁨과 영감에 차서 일을 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내겐 충분하다. 나는 나 자신이 훨씬 강해졌고 삶이 가져다 주는 모든 도전들을 보다 잘 받아들이기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는다.

스승님과 명상 덕분에 내게 일어난 변화들은 정말 기적과 같다! 내 인생에 기적을 가져다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 과학적으로 입증된 생각의 힘

데이비드 R. 브룩스 사형/ 호주 퍼스 (원문 영어)


약 30년 전, 나는 인간의 감정을 인지하는 식물의 능력에 대한 클리브 벡스터(Cleve Backster)의 연구 내용을 읽은 적이 있었다. 내가 동료들에게 그 내용을 얘기하자 그들은 큰 관심을 보였다. 그래서 우리는 점심 휴식 시간에 실험을 해 보기로 했다.

당시 사무실에는 잎이 무성한 실내 식물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 탁자 위에 그 식물을 놓고 젖은 종이를 두 잎사귀에 얹어 놓은 후 전자 저항계를 이용해 두 잎사귀의 전기 저항을 측정하기로 한 것이다.

벡스터의 실험 순서에 따르면 그 다음은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식물의 잎을 태울 차례였다. 누가 자원을 할 것인가? 우리는 서로 쳐다보았다. 내가 아는 한 당시 우리 중에 수행을 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어느 누구도 식물을 해치길 원치 않았다. 우리가 고민하는 동안 계기 눈금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마침내 우리 중 '사나이'로 보이고 싶어하는 한 명이 말했다. “라이터를 쥚. 내가 태울게...” 그런데 그 '사나이'가 의자에서 일어서기도 전에 계기 눈금이 두 배로 올라갔다! 당연히 우리는 그를 말렸다. 벡스터의 이론은 이미 입증되었으니 식물을 해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자 계기 눈금이 천천히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우리가 목격한 저항 값의 증가는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 식물의 입장에서선 불이 가장 두려운 존재임에 틀림없다. 달아날 수도 없으니 위협을 받은 잎의 생명력이 움추러든 것인데, 잎에 수분이 적어지면 통과하는 전류도 감소하게 마련이다. 바로 그것이 계기 눈금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식물의 반응은 나아가 친구의를 청정히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신 스승님의 말씀을 입증한다. 이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면, 우리가 식물을 해치길 꺼려했을 때는 계기 눈금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지만 말을 하자마자 즉시 반응을 보였다. 비록 작은 예이지만 이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이 우리의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준다. 

주: 뉴스잡지 163호 '양서 입문'에 실린 식물의 인지 능력에 관한 클리브 벡스터의 연구 기사를 참고하세요.






## 생각과 말의 힘

청하이 무상사/ 2001. 12. 30.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32

우리의 생각과 말은 진실로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말은 조심할수록 좋습니다. 우리는 정말 친구의를 잘 돌봐야 합니다. 과학적인 증거도 있으니 더욱 무섭게 느껴질 것입니다. 전에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만 들었지 그게 그토록 대단한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에 기록되며 우리 주변의 기운에 영향을 미칩니다. 



## 스승님을 기억하며

성위 사저/ 포모사 타이난 (원문 중국어)

다음은 스승님의 크나큰 자비심과 형언할 수 없는 고귀한 지혜, 영적인 힘, 지순하고 거룩한 사랑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 쓴 시이다.

성모(聖母)의 마음, 부드럽고 자애로워  
양손을 맞잡고 지긋이 그 눈길 받으니  
끝없는 사랑이 내 마음을 적신다.  
세상의 환상 사라지고 사랑의 바다로 돌아간다.  
순수함과 하나 되는 순간 예고는 사라지고  
천국이 여기 있네, 눈부신 빛, 오묘한 소리로.

이마를 어루만지는 당신의 자애로운 품에 안겨  
지혜로 충만하신 눈이 눈부시게 빛남을 본다.  
세세생생의 업장이 사라지고 발걸음 가볍게 고향으로 간다.  
세상 인연이 다하니 지고하신 그분께 돌아간다.  
스승께서 베푸신 은혜, 형언할 길 없어라!

당신의 사랑, 바다와 별이 빛나는 밤처럼 드넓고  
당신의 지고함, 그 어떤 것에도 견줄 수 없으리.  
당신의 쾌활한 말씀, 지혜와 유머로 가득하며  
당신의 끝없는 은혜, 보답할 길 없어라!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 스승님의 자비의 메시지 ‘대안적인 삶’을 나누기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

동물과 인간 사이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전염병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전세계에 제시하고자 스승님은 직접 ‘대안적인 삶’이란 제목의 친근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전단을 디자인하셨다. 스승님은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채식을 하고 살생을 멈춤으로써 전세계적 공동 위기를 극복하고 무수히 많은 동물 친구들을 구하자고 하신다. 또한 스승님은 모든 동수들에게 전세계 곳곳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라고 당부하셨다. 이에 동수들은 스승님의 사랑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모든 노력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 각국에서 진행된 활동 소식들이다.

### 독일

## 뒤스부르크의 ‘대안적인 삶’ 프로젝트

뒤스부르크 뉴스그룹 (원문 독일어)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대안적인 삶’ 전단 111,000부 정도를 독일에 배포했다. 뒤스부르크(Duisburg) 센터가 활동의 중심이었다.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단체명상이 끝나면 동수들은 각자 전단을 가져가 집 근처에서 배포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뒤스부르크와 인근 지역 주민들이 메시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아헨(Aachen), 라인란트(Rheinland)의 몬하임(Monheim), 쾰른(Cologne), 본(Bonn), 마인츠(Mainz), 뤼셀스하임(Rüselshheim), 에르푸르트(Erfurt), 포르츠하임(Pforzheim), 프로이텐슈타트(Freudenstadt), 브레멘(Bremen) 같은 지역에까지 메시지가 확산되었다.

동수들은 거리에서 전단을 배포하는 외에 서점과 약국, 건강 식품점, 도서관, 학교 등지에도 전단을 배포하고 통근 버스와 기차에도 전단을 붙였다. 또한 우편함에 전단을 넣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식으로 많은 전단을 배포했다. 이 밖에 뒤스부르크와 아헨의 대학들에 도 전단을 배포하고 비치해 두었다. 학생들은 미래 사회를 형성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학교와 대학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에 메시지를 전하는 일은 특히나 중요하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수들은 환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전단을 배부했다. 몇몇 동수들이 솔선하여 지역 신문에 '대안적인 삶'의 메시지를 실은 덕분에 지금까지 신문사 세 군데를 통해 메시지가 전해졌다.

전단은 반응이 아주 좋았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메시지를 읽었고, 몇몇은 좀더 상세히 물으며 더 많은 정보를 요청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호응을 보내 왔다. 전단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단을 잘 접어서 가방에 넣었는데 그들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거나 이 소식을 나누길 기대한다. 어떤 이들은 사람들에게 나눠 줄 전단을 더 달라고 해서 우리를 기쁘게 했다. 



##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 신의 사랑이 담긴 메시지를 받은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바르샤바 뉴스그룹 (원문 폴란드어)



황금시대 3년(2006년) 5월 6일, 6명의 폴란드 동수들이 차 두 대에 리투아니아어 전단 3만 부와 라트비아어 전단 2만 부를 싣고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를 순회하는 8일간의 여정에 올랐다. 우리는 '대안적인 삶' 전단을 두 나라 여러 지역에 배포했다. 도중에 작은 마을에도 들러 공공게시판이나 버스정류장에 전단을 부착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두 나라 수도인 빌뉴스(Vilnius)와 리가(Riga)에서 배포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산책길이나 공원, 복잡한 거리와 같이 붐비는 장소에선 직접 전단을 나눠 주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과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누고 그들의 질문에 답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여겨졌다.

특히 즐거웠던 것은 학생들이 있는 대학이나 학원들을 방문했을 때였다. 그곳에서 우리는 허가를 받아 게시판에 전단을 붙이고 학생들이 직접 가져갈 수 있도록 입구 책상에 전단을 비치했다. 또 인터넷 카페와 쇼핑 센터, 애완 동물 상점,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공중 전화 박스 등에도 전단을 놓아두었다.

시간에 비해 가져간 전단이 많아서 우리는 대형 건물 우편함에 전단을 넣는 게 실용적이고 효과적 이겠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건물 대부분의 출입구가 보안 장치로 잠겨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이 집배원을 보내 주신 덕분에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 집배원이 전단을 읽어 보더니 동수들에게 우편함이 있는 현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던 것이다.

빌뉴스에서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필요한 만큼 빨리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해서 우리는 리투아니아 우체국의 도움을 얻어 1만 부의 전단을 발송하기로 했다.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리 가에서도 이런 요령을 발휘했다.

7일 동안의 순회 여정은 리투아니아의 카우나스(Kaunas), 빌뉴스, 파네베지스(Panevezys)를 거쳐 라 트비아의 리가, 엘샤바(Jelgava), 리에파야(Liepaja)를 돌아 다시 리투아니아의 클라이페다(Klaipeda)로 와서 끝을 맺었다. 우리는 가져온 전단을 그럭저럭 다 배포했다. 그리고 빌뉴스와 리가에선 채식 식당 같은 곳에 관음법문 안내 책자도 남겼고, 좀더 관심을 보이는 이에게는 견본책자도 나눠 주었다.

여행 내내 모든 일이 매우 순조로웠다. 두 나라는 매우 아름다웠으며 날씨도 좋았으며 사람들은 매우 친절했다. 특히 리투아니아 사람들은 스승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매우 흔쾌히 받아들였다.

우리 중에는 이런 여행이 처음인 사람도 있었고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두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스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걸 느꼈기에 이 여행이 우리한테는 축복이자 영광이었다. 🙏

### 루마니아·우크라이나·슬로바키아

## 자비로운 생활 방식에 마음을 열다

헝가리 뉴스그룹 (원문 헝가리어)

6월 5일부터 8일까지 세 명의 헝가리 동수들이 헝가리 국경 근처의 몇몇 도시를 방문해 ‘대안적인 삶’ 전단을 배포했다.

우리가 처음 도착한 곳은 헝가리 국경과 바로 접해 있는 루마니아의 오라데아(Oradea)였다. 이곳의 많은 사람들이 전단을 받아 흥미롭게 읽었다. 우리는 이미 채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만났는데, 그들을 통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도들이 운영하는 채식 식당에 대해 알게 되었다. 식당을 찾아간 우리는 그곳 주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식당 직원들 모두 우리를 만난 것에 기뻐했으며 손님들에게 나눠 주기 위해 2천 부의 전단을 식당에 비치하도록 해주었다. 전단이 무료라는 것을 알자 그들은 매우 좋아했다.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다음날은 클루지(Cluj)에서 전단을 나눠 주었다. 이곳은 몇 년 전 비디오 강연회가 열렸던 곳인데 이번에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개방적으로 바뀐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전에 방문했을 때는 반응이 그리 좋지 않았는데, 이제는 모두들 친절했고 대부분 전단도 잘 받아갔으며 채식 생활 방식에 관해 묻는 사람들도 많았다. 고기 없이는 못 산다고 여기는 사람들조차 채식주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 메시지를 나누려고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매우 감동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신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하고 기원해 주었다. 오후가 되자 가지고 왔던 루마니아어 전단이 모두 동이 났다. 반응이 이렇게 좋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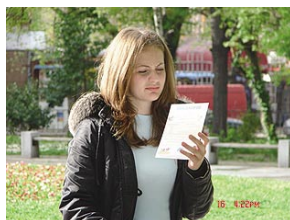
사흘째 되는 날에는 우크라이나의 두 도시 무카체포(Mukacevo)와 우즈고르트(Uzgorod)를 방문했다. 이곳 사람들 반응도 매우 비슷했다. 인구 8만의 무카체포에서는 3시간 만에 3천 장의 전단이 배포되었다. 말하자면 이날 이곳 인구의 4%가 사랑하는 스승님의 메시지를 직접 전해 받은 것이다!

마지막 날 우리는 슬로바키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코시체(Kosice)로 향했다. 아름다운 이 도시는 시내 여러 지역이 차량의 진입을 금하고 있었고 아름다운 교회와 많은 식당들이 늘어서 있었으며 사람들은 정말 여유롭고 행복해 보였다. 몇 시간 만에 우리는 가지고 있던 슬로바키아어 전단을 모두 배포했는데 여기서도 채식주의자들을 만나고 채식 식당도 한 곳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는 4일에 걸쳐 약 2만 8천 부의 전단을 배포했다. 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정작 큰 도시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총체적인 성공이 정말 놀라웠다! 이런 활동에 처음 참가한 한 사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각별한 기쁨과 행복을 느끼면서 “정말 뜻 깊은 활동이었어요!”라고 말했다. 우리는 “사랑을 나눌수록 더 많은 사랑이 돌아온다.”라는 스승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정말 깨달을 수 있었다. 



## 불가리아



## 사방에 빛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즐거운 경험

미클레나 사저/ 불가리아 플로브디브 (원문 불가리아어)



여러 달에 걸쳐 불가리아 동수들은 가는 곳마다 ‘대안적인 삶’ 전단을 나누어 주면서 스승님의 축복을 성심으로 전해 왔다. 사람들에게 이처럼 유익하고 훌륭한 메시지를 나누어 주는 일은 우리 가슴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했다!

전단을 배포하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단을 잘 받았으며 흥미롭게 읽고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잘 간직했다. 우리는 주요 도로와 공원, 유원지,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등지에서 전단을 붙이거나 직접 배포하는 한편 우편함에 전단을 넣기도 했다. 전단을 비치하도록 수락한 서점과 건강 식품점 직원들은 매우 우호적이었으며 우리 활동을 지지해 주었다. 🍌

## 마케도니아



### 신의 사랑이 마케도니아를 축복하다

예카테리나 아타나소바 사저/ 불가리아 소피아 (원문 불가리아)

황금시대 3년(2006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불가리아 동수 네 명과 크로아티아 사형 한 명이 '대안적인 삶' 전단 배포 활동을 위해 발칸 반도의 작은 나라인 마케도니아를 방문했다. 사랑하는 스승님의 축복과 도움 속에 우리는 마케도니아의 동쪽 절반을 순회하는 계획을 전개했다. 수도인 스코페(Scopje)를 포함해 6개 대도시에서 전단 5천 장(마케도니아어 전단 4천 장과 마케도니아에 있는 알바니아 교민들을 위해 마련한 알바니아어 전단 1천 장)을 배포했다.

다정하고 친절한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아름답고 다채로운 전단에 큰 관심을 보여서 전단을 그냥 받아 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에워싸고 직접 가져갈 정도였다. 그 중에는 되돌아와서 친구와 친척들에게 줄 전단을 더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경적을 울려 전단을 받으려고 하는 운전자들도 있었다. 마케도니아에서는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전단을 돌리거나 우편함에 전단을 넣는 것이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모두들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 또 무엇을 배포하고 있는지에 대해 무척 궁금해했다. 사람들은 전단을 읽고 나서 그것을 버리지 않고 호주머니나 가방에 넣어 집이나 일터로 가져갔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우리와 다시 마주쳤을 때 그것을 꺼내 보여 줬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채식을 시작하라는 호소에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우리와 다시 마주치면 우리에게 인사를 건네며 정중하고 친절한 태도로 우리를 대했다.

우리는 가지고 있던 모든 전단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성공리에 배포했다. 약국, 건강 식품점, 도서관, 문화정보센터, 종합병원, 우편함 등에도 배포했지만 대개는 길거리와 광장, 공원, 유원지 등에서 대중들에게 직접 나눠 주었다.

스승님의 축복이 가까운 미래에 마케도니아 서부에도 전해지기를 바란다. 우리는 유용한 도구가 되어 이 행성의 고양과 사람·동물·환경의 복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감사히 여겼다. 🍌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 몽골과 러시아



## 북쪽 나라를 여행해 자비로운 식생활을 장려하다

포모사 가오슝 차이원위안 사저 기록/ 타오위안 뉴스그룹 정리 (원문 중국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몽골은 인구가 2백만이 좀 넘는다. 국토는 광대하지만 인구가 희박해서 인구 밀도가 매우 낮다.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Ulaanbaatar)는 이 나라 최대의 도시이다. 황금시대 3년(2006년) 6월 12일 한밤중에 17명의 포모사 동수들이 울란바토르에 도착했다. 세관을 통과하자마자 열 명도 넘는 몽골 동수들이 열렬히 맞아주어 대단히 감동적이었다. 센터에 도착해 식사를 하고 나자 이미 새벽 두 시가 넘는 시각이어서 우리는 동이 틀 때까지 같이 명상하기로 했다.

### 텔레비전 방송-진심 어린 환영

6월 13일 아침, 우리는 다섯 팀으로 조를 짰다. 몽골의 연락인 가운데 한 명인 바산담보(Baasandamba) 사저의 안내로 다섯 명의 몽골 동수들이 한 조씩 맡아 우리를 안내해서 각기 다른 장소에서 전단을 배포했다. 몽골 사람들은 친절하고 순수했으며 ‘대안적인 삶’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였다. 몇몇 사람들은 전단을 받고 기뻐하며 말했다. “아, 당신들 단체를 알아요. TV에서 봤거든요....” 우리는 처음 그 말을 듣고 놀랐지만 나중에 노민진(Nominjin)이라는 인기 가수가 우리 동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노래는 현재 몽골에서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기자들이 지난 밤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 공황에 나왔던 그녀를 취재하려고 따라왔었기 때문에 우리의 전단 배포 활동에 관한 뉴스가 곧바로 TV를 통해 방송되었던 것이다.

그날 밤 러시아행 비행기를 타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후 4시쯤 센터로 돌아왔다. 하루도 채 안 되어 1만 장 정도의 전단이 배포되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전단을 배포하며 혼신을 다해 일하는 몽골 동수들의 모습은 매우 감명 깊었다. 그들은 전에 몽골 대통령에게 편지도 쓰고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 채식주의를 소개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몽골 대통령이 우리의 이상을 강력하게 지지해 주었다고 한다.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채식을 장려하기 위해 채식 고기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에 매우 열심인 한 사저는 육류가 점점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에도 좋고 값도 저렴한 채식 고기가 있다는 걸 알면 아주 좋아하고 기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동수들의 노력으로 몽골에 이미 많은 동수들과 약 700명의 방편법 수행자가 생겼으며 그 중 150명이 입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기쁜 상황을 알게 된 우리는 러시아로 가는 여행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그곳으로 출발했다.

## ‘시베리아의 파리’를 방문하다

울란바토르를 떠난 우리는 6월 14일 새벽 이르쿠츠크(Irkutsk)에 도착했다. ‘시베리아의 파리’로 잘 알려진 러시아의 남부 도시 이르쿠츠크는 현재 시베리아 동부 경제의 중심지로서 인구는 80만 명이다. 우리는 세 팀으로 나뉘었다.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몽골 동수 한 명이 우리와 동행했다.

그날 오전에 숙소로 잡은 호텔 근처의 앙가라(Angara) 강을 따라 러시아어로 된 전단 2천 부를 배포했다. 우리는 그날 저녁에 모여서 상황을 점검했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일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그날 밤 명상을 열심히 해서 재충전하기로 하고선 다음날 전단마다 인연 있는 주인을 만나길 기대했다.

## 내면에 집중하자 문제가 쉽게 해결되다

6월 15일, 우리는 세 가지 노선을 계획한 후 아침 식사를 마치는 즉시 활동을 시작했다. 우리는 길을 따라 걸으며 전단을 배포했는데, 공원이나 버스 정류장, 시장에선 좀더 오래 머물렀다. 기뻐던 것은 경찰과의 충돌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오히려 일부 주민들은 좀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우리에게 다가왔고 우리의 설명에 진지하게 귀기울였다. 공원에서 간식을 팔던 한 할머니는 자신의 가판대에 전단을 놓고 가도록 해주었다. 또한 우리는 그곳에서 제일 큰 시장에도 갔는데 온통 행상들의 판매대와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그 시장에서는 얼마 안 되어 모든 전단이 나갔다. 정오에 점심 식사를 하려고 숙소

로 돌아왔을 땐 모두의 얼굴이 환한 웃음으로 빛나고 있었다. 조장 또한 주요 신문사 두 곳과 협상을 해서 전단 1만 2천 부를 신문에 끼워 넣기로 합의를 보았다.

6월 16일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인 바이칼 호(Baikal Lake)로 갔다. 길을 따라 아름다운 침엽수가 우거져 있었다. 우리에게서 매우 즐겁고 편안한 느낌을 받았다는 여행 가이드는 자신도 한때 채식주의 했었지만 바쁜 일 때문에 계속할 수 없었다면서 다음날부터 다시 채식주의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즉시 “아,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어요!” 하고 응수하며 그녀에게 채식 치즈 라이스를 건넸다. 바이칼 호로 가는 길에 우리는 딸지목조 박물관(Taltsy Wooden Architecture Museum)을 참관하고 리스트비앙카(Listvyanka)라는 작은 마을을 방문해 이곳 사람들의 삶을 이해했다. 우리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단을 나눠 주는 한편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주택 우편함에도 전단을 넣었다. 러시아 사람들은 대부분 우호적으로 전단을 받아 주의 깊게 읽었다.

6월 17일 동이 트기 전에 우리는 몽골로 돌아왔다. 몽골 동수들은 우리를 위해 유목민의 생활을 관광하는 여행을 마련해 주었다. 오늘날까지도 전체 인구의 70%가 초원에 살고 있는 몽골 사람들은 생활이 비교적 어려워져 채식으로 바꾸는 일도 쉽지만은 않다. 그렇긴 해도 신의 축복이 있고 신심과 열정이 있는 몽골 동수들이 있으니 어떤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



몽골 센터에서 열린 송별회.

는다. 그날 밤 포모사행 비행기를 타야 하는 우리를 위해 몽골 동수들은 센터에서 송별회를 열어 노래를 비롯해 많은 공연을 선사했다. 몽골 동수들은 매우 영적이고 창조적이었다. 많은 동수들이 스승님께 드리는 노래와 시를 썼는데 대단히 감동적이었다.



## 맺는 말

스승님 덕분에 전단을 배포하는 동안 아무 장애도 없이 모든 일이 순탄하게 이뤄졌으며 우리는 이 짧은 1주일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위대한 사랑과 신의 축복으로 이 두 나라 국민들의 의식이 더욱 더 고양되리라 믿는다. ✨

## 러시아

# 신이 채식 이념 전파를 격려하기 위해 알맞은 때에 천사들을 파견하시다

포모사 타오위안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또 다른 포모사 동수 한 팀이 '대안적인 삶' 전단을 가지고 러시아 동부로 향해 황금시대 3년(2006년) 6월 16일부터 21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 하바로프스크(Khabarovsk) 등지에서 신의 메시지를 나누었다.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 ❁❁ 블라디보스토크 ❁❁

‘동방의 샌프란시스코’라는 이름에 걸맞게 블라디보스토크는 산비탈에 세워진 아름다운 해변 도시이다. 여행 가이드의 말에 따르면 이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특정 종교가 없고 있더라도 동방 정교회를 믿는다고 한다. 6월 17일 아침, 우리는 세 조로 나뉘어 중앙 광장(Central Square), 금각만(Golden Horn Bay), 브라이트 스트리트(Bright Street), 기차역, 버스 정류장 등과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전단을 배포했다.

기차역에서 전단을 배포할 때 우연히 만난 한 여의사는 우리의 이념에 크게 동조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우리는 그녀가 12년 동안 채식을 해 왔으며 세상 사람들이 모두 채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말에 감명을 받아 동수들은 스승님의 법상이 새겨진 펜던트를 그녀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녀는 스승님의 사진을 보고선 자신과 닮았다고 여기며 매우 좋아했고 스승님에 대해 각별한 친근감을 느꼈다. 그녀는 떠나기 전 우리에게 연락처를 주며 나중에 다시 한번 연락을 달라고 부탁했다.



동수들과 여의사(가운데 갈색 옷을 입은 사람).

우리가 브라이트 스트리트 근처의 지하철 출구에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난 청소년 세 명이 전단 몇 장을 받아가 읽어 본 후 나중에 다시 돌아와 전단 봉지를 달라고 하고선 전단을 열심히 나눠 주기 시작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달려가 전단을 나눠 주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마음이 훈훈해졌으며 사랑스런 세 명의 천사를 보내 우리를 격려하시고 신심을 가지도록 일깨워주신 신께 감사드렸다!



신의 사자들-이 지역 어린이, 청소년들이 전단 배포 작업을 도와준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때 만난 지역 상인들은 우리에게 다정한 눈길을 보냈다.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우리를 지켜보는 그들의 얼굴에서 찬사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이 밖에 어떤 버스 정류장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시간을 다투느라 바빠서 전단을 거부하는 비율이 높았다. 많은 사람들이 전단을 거부해서 풀이 죽어 있는데 그때 기적처럼 17, 18세 정도로 보이는 청소년 몇 명이 나타나 그 중 한 소년이 전단을 요청했다.

처음에는 그냥 장난으로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전세계에서 전단을 배포하는 동수들의 사진을 보여 주자 그의 장난스러운 태도가 금세 진지해졌고, 옆에서 그를 놀리던 친구들도 전단 나누는 일에 동참했다. 이 기적으로 우리는 사기가 올랐다.

세련된 옷차림을 한 숙녀는 전단을 읽은 뒤 친구들에게 줄 전단 네 장을 더 요청했다. 그녀는 동방 정교회의 신실한 신자라고 밝히면서 동방 정교회의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신실한 이들은 모두 채식을 한다고 알려 주었다. 이 때문에 그녀는 우리의 이상에 크게 동조했다. 우리는 그녀의 말을 듣고 큰 기쁨을 느꼈고 전단을 계속 배포할 투지도 더욱 불태웠다. 우리는 그날 밤 일정에 따라 다음 배포 지역인 하바로프스크로 가기 위해 열세 시간이 걸리는 기차를 탔다.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 하바로프스크

6월 18일 오전 하바로프스크에 있는 호텔에 도착한 우리는 잠시 쉬면서 간단한 식사를 마친 후 곧 두 조로 나뉘어 중앙공원, 레닌 광장, 교회 광장, 재래시장, 버스 정류장, 길거리, 전철역과 같이 인파가 많은 지역으로 향해 전단을 배포했다.

중앙 공원에서 한 사자가 배포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보초병이 와서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며 자리를 떠나라고 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근처에서 우리 전단을 읽고 있던 한 부부가 이를 보고선 그 보초병에게 가서 뭐라고 하자 보초병은 더 이상 사자를 쫓아내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또 다시 이처럼 강력한 천사 두 명을 보내 주신 신께 감사드렸다.

어떤 사형은 레닌 광장 앞 다리에서 전단을 나눠 줄 때, 17세 정도의 청소년이 도와주고 싶어했다고 한다. 그가 어찌나 일을 잘하는지 사형도 그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다. 그 소년은 순식간에 500부를 배포하고선 우리 일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아 우리를 감동시켰다.

다음날(6월 19일) 아침, 우리는 재래시장과 대로변의 버스 정류장, 전철역에서 전단 배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점심 무렵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배포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자 남은 분량을 우체국을 통해 각 가정으로 배달하기로 결정했다.

특별히 한 가지 언급할 일은, 이번 활동 도중에 원래 가이드가 일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거의 동시에 열성적인 여행 가이드 안드레이(Andrey) 씨가 우리 앞에 나타나서 도와주겠다고 자청했다는 것이다. 신이 보내신 이 사자(使者)는 열성적이고 총명해서 우리 상황을 깊이 이해한 후 이곳의 풍습과 군중의 관심에 잘 맞는 좋은 제안을 많이 제시해 주었다. 이를테면 지역 주민 99%가 영어를 모른다는 점과 전도 활동은 좋아하지 않고 건강을 중시한다는 점 등을 들어 영어로 된 전단 뒷면을 채식 재료와 요리법을 설명하는 러시아어판으로 바꾸면 주민들이 보다 쉽게 채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해 주었다. 그는 우리에게 '건강한 음식'이라는 말을 러시아어로 알아두라고 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한결 잘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쳐 주기까지 했다.

우리의 첫 번째 시도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낳아서 그 후로는 배포 작업이 더욱 순조로워졌다. 금세 주민들과의 거리가 좁혀져 전단을 받는 비율도 크게 높아졌다. 우리는 안드레이 씨가 우리가 앞서 배포 작업에서 겪곤 했던 문제에 대해 지적해 주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안해 준 것이 무척 고마웠다. 어떤 사람들은 채식 음식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며 “두부, 글루텐이 뭐예요?”, “채식 요리는 어떻게 하죠?”, “채식 요리법을 가지고 있나요?” 하고 종종 묻곤 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집에 인터넷을 할 컴퓨터가 없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대안적인 삶’ 전단을 배포할 때 가져간 채식 요리법과 관련된 자료가 매우 유용하게 쓰였고 절반의 노력으로 두 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

우리가 하바로프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되돌아왔을 때, 신실하게 입문을 기다리고 있는 한 여성의 안배를 통해 일곱 명의 중국인이 방편법을 배우도록 해주는 드문 행운을 얻게 되었다. 우리는 그들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의 영적 갈망과 외국인 노동자로서 겪는 고생을 알고 나서 스승님의 출판물과 천의, 채식 물품 등을 꺼내서 이들 새 수행자들에게 선물했다. 신의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스승님의 성스러운 사랑으로 고양되는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 누렸다!

이번 전단 배포 여행 동안 우리는 신의 기적을 끊임없이 목격하였고 어떤 어려운 문제도 신속히 해결해 주시는 스승님의 지속적인 보호를 체험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러시아 경찰들은 아시아인을 보면 이것저것 조사하는 게 보통인데, 우리가 전단을 배포할 때는 마치 호범처럼 조용히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다. 또 계속적인 거부로 동수들이 의기소침해질 때면 때마침 사랑스런 천사들이 나타나 전단 배포 작업을 도와주었다. 이 모든 성공은 스승님께 감사드려야 마땅하다. 스승님의 축복이 없었다면 우리는 말도 안 통하는 이 낯선 땅에서 이처럼 순탄하게 전단 배포 활동을 진행할 수 없었을 테니 말이다. 🍌



## 미국

### 🍌 테네시 🍌

## 아름다운 개틀린버그에서 ‘대안적인 삶’ 전단을 배포하다

오하이오 뉴스그룹 (원문 영어)

개틀린버그(Gatlinburg)는 매년 9백만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테네시 주의 유명한 마을 중 하나이다. 황금시대 3년(2006년) 6월 18일 일요일, 오하이오 동수들은 테네시 동수들과 함께 ‘대안적인 삶’ 전단을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배포했다.

이날 날씨는 화창했고 거리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다른 주에서 쇼핑과 관광을 즐기러 온 사람들이었다. 테네시는 스모키 산(Smoky Mountain)의 아름다운 구름과 안개 자욱하고 이슬 맺힌 아침으로 유명하다. 여기 사람들은 매우 개방적이어서 우리에게서 기꺼이 전단을 받아 근처 벤치에 앉아 읽기도 하고 걸어가면서 훑어보기도 했다. 한 무슬림 남성은 전단을 읽고 난 뒤 조심스럽게 접어 셔츠 앞주머니에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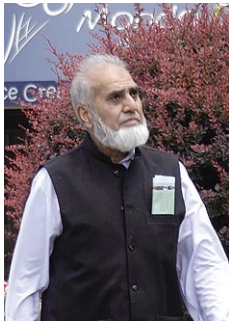
우리가 전단을 돌리는 것을 본 사람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와 채식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모두들 채식이 좋다는 것은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많은 채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식 요리법과 사진이 올려져 있고 채식 재료 구입처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 (<http://www.godsdirectcontact.org/veg/alternativeliving/recipe/>)를 알려 주었다.

몇 시간 만에 3천 장에 가까운 전단을 배포한 우리는 이 마을을 떠나기 전 여행자 안내소에 들러 사람들이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전단을 좀 비치해 두었다. 스승님의 메시지를 나누는 축복으로 인해 우리는 이곳에서 휴가를 보내는 듯 행복하고 즐거웠다. 테네시에서 보낸 시간은 정말 뜻 깊고 즐거웠다.

## ❧ ❧ 미시간 ❧ ❧

### 스승님의 사랑으로 뒤덮인 미시간

지니 미니에르 사저/ 미국 미시간 (원문 영어)

미시간 동수들은 ‘대안적인 삶’ 전단과 인디펜던트 TV(i: Independent Television, 이전의 PAX)를 통해 방송되는 ‘예술과 영성’ 프로그램 안내 엽서를 배포하느라 바빠 움직였다. 미시간은 땅은 넓지만 소규모 마을과 농촌이 많고 중소 도시들은 얼마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에서 전단을 직접 돌리는 방법과 더불어 전단을 신문에 끼워서 배포하거나 전면 광고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다.

많은 동수들이 직장가정이 있었지만 일을 마친 나머지 시간과 주말을 이용해 전단을 배포했다. 일부 동수들은 차를 몰고 도시로 나가 쇼핑몰과 학교, 식품점, 건강 식품점, 버스 정류장, 음식점, 빨래방, 도서관, 병원, 취업 안내소 등지에서 전단을 배포했다. 또 일부 동수들은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가서 신문에 끼워 배포할 ‘대안적인 삶’ 전단을 신문사에 전해 주고 좀더 멀리 있는 신문사에는 전단을 소포로 보내기도 했다. 이 밖에 전단을 신문에 끼워 돌리는 대신 전면 광고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미시간의 주도(州都)인 랜싱(Lansing)의 한 신문사는 구독자가 144,000명이나 되는데 우리 TV 프로그램 안내문을 무료로 실어 주었다. 현재까지 약 248,000부의 ‘대안적인 삶’ 전단과 TV 예고문이 미시간 주에 배포되었다.

한 동수는 대형 실내 쇼핑 몰에서 TV 프로그램 안내 엽서를 나눠 주다가 한 어울락 소녀가 다급하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는 것이었다.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후 그 소녀는 친구들에게 나눠 줄 전단을 몇 장 얻어 가면서 스승님의 사진이 인쇄된 TV 프로그램 안내 엽서를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동수는 대형 슈퍼마켓 근처에서 프로그램 안내 엽서를 나눠 주고 있을 때 어떤 여자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돌아보니 그 여성이 신이 난 모습으로 ‘재난은 인류의 부정적인 생각에서 비롯된다’라고 적힌 TV 프로그램 엽서를 흔들었다. 그녀는 웃으면서 “맞아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하고 큰소리로 외쳤다. 스승님께서 이 특별 프로그램 강연에서 전하신 메시지를 바로 이해했던 것이다.

우리는 스승님의 자비와 가르침을 언제 어디서나 계속 나눌 수 있어 너무도 행복하다. 스승님과 전세계 동수들의 노력이 하루 빨리 결실을 맺길 기원한다. 🍀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 나미비아와 보츠와나

### 신의 뒤뜰에 사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다

요하네스버그 뉴스그룹 (원문 영어)

#### ❧ 나미비아 ❧

황금시대 3년(2006년) 6월 15일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센터 동수들은 ‘대안적인 삶’ 전단을 나누어 주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나미비아의 수도 빈트후크(Windhoek)로 향했다. 이는 남아프리카 이웃 국가 순회 배포 활동 중 5번째 방문지였다. 동수들은 도착하자마자 시내 중심지에서 퇴근하는 주민들에게 800부의 전단을 나누어 주었다. 다음날 아침에는 보행자들과 차에 탄 사람들을 대상으로 2천 부를 나누어 주었다. 한 동양 여성은 동수를 쫓아 와서 채식 제품을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동수들은 거의 어디에서나 채식 식품을 살 수 있으며 채식 음식도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또 한 남성은 자기가 채식을 권장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이라 밝히면서 우리가 채식에 관한 전단을 나누어 주는 걸 보니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서 동수들은 중앙 우체국을 방문해서 우체통에 배달할 1천 장의 전단을 맡기고 왔다. 그 후 4시간을 운전해 바다가 사막과 만나는 나미비아의 아름다운 도시 스바코프문트(Swakopmund)에 도착했다. 이곳은 사막의 열기와 대서양의 냉기가 만나 아침저녁으로 안개 낀 경치를 연출한다. 덕분에 동수들은 이 마법과도 같은 신비로운 경험을 한껏 누릴 수 있었다. 이 특별한 곳에서 1천 장의 전단을 배포한 후 길거리와 과일 가게, 관광 안내소 등지에서 다시 1천 장을 배포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가던 길을 되돌아와 ‘대안적인 삶’ 전단을 받아가고 이 귀중한 선물을 받기 위해 도로에 차를 세우기까지 하는 것을 보고 아주 기뻐했다. 또한 버려진 전단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이 행성이 고양되었으며 황금시대가 도래했다는 증거이다. 이에 따라 지구상의 영혼들이 그 전단을 받을 때 그것이 사랑의 메시지임을 안다는 것이다.

#### ❧ 보츠와나 ❧

황금시대 3년(2006년) 6월 16일 금요일, 요하네스버그 센터 동수들은 4천 장의 ‘대안적인 삶’ 전단을 가지고 남아프리카 이웃 나라 중 6번째이자 마지막 방문지인 보츠와나로 향했다. 보츠와나는 야생동물과 울창한 식물군으로 유명한 아름다운 나라이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삼각주인 오카방고 삼각주(Okavango Delta)도 이곳에 있다. 보츠와나의 인구는 약 150만 명이고 수도인 가보로네(Gaborone)의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인구는 186,000명이다.

오후에 가바로네에 도착한 우리는 오후 3시부터 배포를 시작했다. 차를 타고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던 중 기차역 부근에 있는 아주 변화한 다리가 눈에 띄었다. 우리는 차를 돌려 그곳으로 가려 했지만 회전을 잘못해서 아름다운 '보건부' 건물 앞에 오게 되었다. 우리는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이 아니라 스승님께서 이 방향으로 이끄셨음을 알았다. 경비들은 이 건물에 약 2천 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알려 주면서 우리에게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드나들 때 가져갈 수 있도록 입구에 전단을 놓아두라고 제안했다. 그들은 근처의 다른 정부 청사에도 갈 것인지 묻기도 했다. 이 밖에 우리는 차에 전단을 꽂을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 스승님의 인도로 우리는 보건부와 교육부, 법무부, 심지어 유엔에서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다.



모든 일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대안적인 삶' 전단 또한 많이 배포되었다. 약 한 시간 뒤 다시 차를 타고 스승님의 인도를 받아 이번에는 기차역과 버스 정류장 일대로 향했다. 우리는 다리 양 끝에 서서 역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메시지를 나누어 주기로 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나 되었는데 수많은 인파가 우리를 둘러싸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전단을 받아가야 할 정도였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손을 놀리며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단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가져온 전단이 순식간에 거의 다 나가자 다음날 아침 다른 지역에서 배포할 전단 몇 백 장을 남겨 두기로 했다. 우리는 보츠와나에 사는 사랑스러운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는 채식과 영적 수행의 관계에 대해 매우 알고 싶어했다. 매우 신실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는 서류 가방에 성경까지 가지고 다녔는데, 누군가의 한 끼 식사를 위해 동물들이 이토록 고통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했으며 동물들이 학대받는 상황에 대해서도 괴로워했다. 우리는 스승님의 인도로 성경 구절을 쉽사리 인용해 말해 줄 수 있었다! 또한 예수님과 신은 너무 자비로우시므로 힘없고 아름다우며 순진한 이들 창조물들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고통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는 잘 납득한 것 같았으며 우리에게 자기 누나도 채식주의자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우리가 누나에게 줄 견본책자를 주자 그는 매우 고맙게 받았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남은 전단을 가지고 근처의 쇼핑몰로 갔다. 그곳에 도착해서는 포스터를 붙이고 한 약국에 전단을 좀 비치해 두었다. 나중에 우리는 보츠와나 대학이 그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서 마지막 전단과 포스터, 견본책자를 배포하기로 했다. 그곳 사람들은 모두 매우 친절했으며 즐겁게 전단을 받았다. 그들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휴가 중이니 도서관에 전단을 비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람들이 신의 사랑의 메시지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은 정말 대단히 멋진 광경이었다. 주민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고 매우 친절했다! 이번 여행에서 사랑 어린 인도와 지원을 베풀어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이웃 나라에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영원토록 감사드릴 것이다! 🌸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  
홍콩  
.....

## 채식으로 시작되는 아름다운 삶

홍콩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황금시대 3년(2006년) 6월 23일 금요일, 홍콩 센터는 주룽(九龍) 반도 동부에 있는 차이팡 지역 사회 강당에서 채식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 ‘채식으로 시작하는 아름다운 삶’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사람들이 가능한 한 빨리 자비로운 생활 방식으로 바꾸도록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차이팡 지역은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오래된 공업 지구로서 많은 산업체와 초·중·고등학교가 있다. 동수들은 이 지역의 문화적 환경을 고려해 대형 강당을 꾸미고 채식 장려를 주제로 한 전시장을 만들었다. 강당에는 스승님께서 고개를 돌려 중생들을 바라보시는 대형 법상을 비롯해 ‘왜 채식을 해야 하는가?’, ‘채식을 해야 건강해지는 까닭’, 그리고 전세계 엘리트 채식주의자를 소개하는 포스터가 걸렸다. 이 외 동물들이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사육되고 잔인하게 도살당하는 사진들이 있는 포스터도 전시돼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내용이 풍부하고 흡인력이 있는 이 포스터들은 매우 큰 효과를 발휘했다. 강당 중간에는 대형 TV가 설치돼 ‘평화의 음악으로 하나 되는 세상’과 ‘진정한 영웅’이 연속해서 상영되었다. 방문객들 모두 이 영상물을 매우 좋아했다.

행사는 오후 3시에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동수들이 예상한 대로 첫 번째로 방문한 사람들은 며칠 전에 ‘대안적인 삶’ 전단과 이번 행사 입장권을 받은 노인들이었다. 큰 기대를 하고 행사에 참석한 노인들 대부분이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 요리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 중 이미 채식을 하고 있는 일부 노인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자신이 채식을 선택한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음을 확인하고선 온갖 풍상을 겪은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다. 두 번째로 방문한 사람들은 대부분 수업을 마친 학생들과 이제 막 퇴근한 직장인들이었다. 그들은 집에 가는 길에 전단을 받고 찾아온 것이었다. 세 번째 손님들은 이웃들로부터 이 행사 소식을 듣고 특별히 채식 음식을 맛보기 위해 방문한 가족들이었다.

이 행사를 조직하기 위해 동수들은 지난번 두 차례의 행사에서 얻은 경험을 검토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했다. 이를테면 기존의 자료들 외에 ‘채식 요리 재료 성분표’와 비인간적으로 사육되고 잔인하게 도살되는 동물의 모습을 보여주는 포스터를 추가하고 현장에서 채식 요리법을 시연했다. 또한 채식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간단한 강연과 더불어 채식 시식회를 하는 동안 다양한 영양소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이 밖에 우리는 강당의 무대와 음향시설을 최대한 이용해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공연 프로그램을 선사했다. 다재다능한 동수들은 바이올린·피아노·하모니카 연주를 하고 즉흥적으로 단체 무용을 선보여 참석자들에게 수행자들의 내적·외적 아름다움과 예술적인 재능을 보여 주었다. 우리의 열정적인 공연은 관중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그중 몇몇은 같이 공연에 동참하기도 했다.

방문객들은 이 행사가 지역을 위해 좋은 일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상서롭고 조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맛있는 채식 음식을 맛본 손님들은 채식에 대해 아름다운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몇몇 중년 부인들은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이 행사를 열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우리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많은 손님들이 건 본책자와 뉴스잡지, 센터의 연락처를 요청하면서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더 알기 위해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한 가지 언급할 만한 것은,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채식 캠페인을 한 이후 홍콩 센터에 와서 방편법을 신청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 관음 동수들 또한 점점 더 협동이 잘 되고 있다는 점이다.

홍콩 동수들 모두가 이번 행사에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었다. 많은 동수들이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이 행사에 참여했다. 행사 전에 방문객이 얼마나 될지 정확히 추산하기 어려워 맛있는 채식을 많이 준비해 놓고도 음식이 부족할까 봐 전전긍긍했는데 양은 딱 알맞아서 저녁 8시 이후에 온 방문객들도 흡족하게 채식을 맛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없이도 서로 이해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스승님의 위대한 축복과 자비로운 은총 덕택이었다. 이를 통해 홍콩 동수들은 스승님의 무소부재한 힘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이 행사는 즐거움 속에 완벽하게 끝을 맺었다. 모두들 매우 행복해했고 이 행사를 위해 일하는 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할 이런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홍콩 동수들은 ‘대안적인 삶’을 계속해서 홍보해 나갈 것이다. 🍀



### 대한민국

## 한국에 채식 붐이 일어난다

부산 및 대구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 🍀 부산 🍀

황금시대 3년(2006년)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부산 센터 동수들은 부산 전시 컨벤션 센터(BEXCO)에서 열린 부산 국제 식품전에 참가했다. 올해 음식 문화와 식당 문화 동향에 대한 이 국제적 대형 행사에는 12개국에서 180개 업체가 참가했다. 이 전시회 동안 우리는 ‘대안적인 삶’ 전단을 배포하는 한편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다양한 채식 음식도 소개했다.

많은 사람이 방문해 줄까지 서가며 채식 ‘고기’를 시식했다! 또한 부스 한쪽에 TV를 설치해 한국 3대 방송사 중 하나인 SBS에서 방영한 프로그램도 상영했다. 이 프로그램과 채식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동수들의 설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동물들의 열악한 생활 조건과 단지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동물들에게 자행되는 참상을 알게 되었고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 밖에 ‘생명 사랑 1천만 서명 운동(사람들의 각성과 자비로운 채식 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시작된 청원)’도 진행했는데 전시회 동안 2,100명이 서명했다! 많은 사람들이 콩으로 만든 양질의 맛있는 갖가지 육류 대체품인 채식 고기를 맛본 뒤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해서 우리는 동물 친구들을 대신해 깊은 고마움을 느꼈다.

스승님의 견본책자와 뉴스잡지, ‘대안적인 삶’ 전단에 대한 요구는 우리의 예상치를 훨씬 웃돌아서 매일 수량을 늘려도 언제나 부족하기만 했다.

이 행사 동안 우리는 채식을 대중화시키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알리기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다. 이 성공적인 국제 식품전을 통해 스승님의 축복과 사랑의 메시지가 전세계 곳곳으로 전해져 나가게 되었다!

## 대구

‘2006 대구 국제 식품 산업전’과 ‘2006 대구 음식 박람회’가 6월 8일부터 11일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같이 개최되었다. 이 대형 박람회에 참석한 대구 동수들은 아주 좋은 자리 에다 큰 부스를 마련할 수 있었다.

‘2006 대구 음식 박람회’는 향토 음식 발굴과 계승, 우수 음식 전시를 주제로 했다. 이 박람회에는 높은 선발 기준으로 사전 심의를 통과한 단체만이 참가할 수 있었다. 우리는 전문가들 틈에서 우리가 심사 기준에 적합할지 걱정했으나 주최측은 채식에 큰 관심을 표했고 채식 식당이 없는 대구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채식 요리를 시연하고 전시할 수 있도록 큰 부스를 배정해 주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안배였다. 전문 요리사들이 경연을 벌이는 박람회에서 우리만 비전문가였다. 그러나 대구 센터 동수들은 다른 센터 요리사 동수들의 도움을 받아 30여 가지가 넘는 다채로운 채식 요리를 전시할 수 있었다. 꽃과 만세등으로 장식된 우리 부스는 평온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자아내 많은 방문객의 발길을 모았다. 동수들은 채식 시식회와 더불어 스승님의 DVD ‘진정한 영웅’과 다른 채식 관련 비디오를 상영했다. 또한 다각적인 면에서 채식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대안적인 삶’ 전단과 함께 다른 채식 자료를 나눠 주었다.

박람회 동안 우리 부스는 관심의 초점이었다. 이를 본 한 동수는 “대구 엑스코에 채식 폭탄을 터뜨린 것 같다.”고 농담 삼아 말했다. 많은 방문객이 채식 요리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열성적으로 배우고 싶어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전단을 받아 갔으며 요리법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물었다. 처음으로 콩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기를 맞본 한 주부는 그 맛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선 다음날 자녀들을 데려와 30분이나 기다렸다가 아이들에게 맛을 보였다.

시민들뿐 아니라 전문 요리사와 대학 조리학과 요리학원의 학생들도 우리 채식 요리에 관심을 가졌다. 그들은 어떻게 달걀 없이 케이크를 만들고 글루텐으로 만든 밀고기에서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 대단히 놀라워하며 우리 요리법을 얻는 데 열성적이었다.

행사 주최측 또한 큰 관심을 보였다. 엑스코 이사장은 우리 부스를 방문해 앞으로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오는 채식주의자 손님에게 채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진지하게 물었다. 이 요청에 우리는 대구 교외에 있는 한 채식 식당을 추천해 주었다.

손님들은 우리 음식을 시식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자연스레 '진정한 영웅'을 시청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감동했음은 말할 나위 없다. 아이들은 동물들의 고통에 가슴 아파했고 한 어린이는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기까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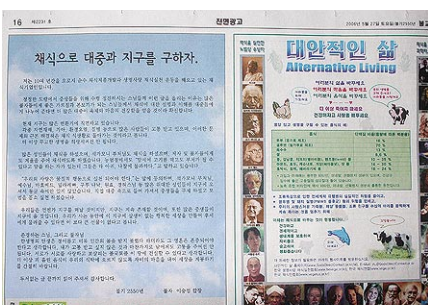
이번 대구 음식 박람회 부스 참가자들과 방문객들이 채식에 대해 각성할 수 있었던 가치 있고 훌륭한 기회였다. 이 기간에 1만 명이 '대안적인 삶' 전단을 받아 갖고 4천 명이 '생명 사랑 1천만 서명 운동'에 서명해 지지를 표했다. 이 가슴 벅찬 호응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는 또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정말 고양됐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일이었다. 스승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 그림으로 보는 이야기



5월부터 6개월 동안 65개 시내 버스에 '대안적인 삶'이 부착되게 된다.



『불교신문』에 게재된 '대안적인 삶' 메시지와 불교 신자들에게 채식을 권하는 내용의 편지.



서울 동수들이 '대안적인 삶'의 메시지가 인쇄된 부채를 월드컵 축구팬들에게 나눠 주며 열기를 식히게 하다.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Ching Hai

观音法门与灵性大觉醒  
The Quan Yin Method & The

싱가포르

## 채식 생활 방식 -지혜롭고 똑똑하고 멋진 선택

싱가포르 뉴스그룹 (원문 영어)

스승님의 가르침과 '대안적인 삶'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센터는 황금시대 3년(2006년)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선택(Suntec) 시립 전시관에서 개최된 2006년 도서전에 참가했다. 또 박람회를 마친 후 6월 11일에는 센터에서 대중들을 위한 비디오 강연회도 개최했다.

도서전 기간 동안 우리는 최근에 나온 스승님의 채식 부채를 비롯해 스승님의 다양한 예술 작품으로 부스를 장식하고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을 하루 종일 상영했다. 또한 몇 명이 돌아가면서 귀엽고 사랑스러운 오리, 양, 사과 등으로 분장해 전단을 나누어 주었다. 스승님의 말씀에 흠뻑 빠진 마음과 영혼들을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었다. 많은 방문객들이 걸음을 멈추고 오랫동안 서서 스승님의 강연을 들으며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으며 깨달은 스승님의 유머가 담긴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면 천진한 어린아이처럼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 중에는 자리를 뒀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스승님의 사진에 매혹된 한 신사는 이를 연속해서 우리 부스를 찾아왔다. 그는 즐겁고 미소 띤 모습이었으며 올 때마다 스승님의 책을 사 가지고 갔다. 그는 또한 당시(唐詩)도 두 편 적었는데, 그 중 몇 줄은 스승님을 따르고자 하는 갈망을 나타내고자 바꾸어 썼다.

한 조선소 직원도 우리 부스를 세 번이나 방문했다. 그는 돌아갈 때마다 그날 밤에 스승님의 꿈을 꾸었는데 스승님께서 텔레파시로 그와 소통하시는 것을 감지하는 꿈을 꾸기도 했고 우산을 갖고 계신 스승님의 사진을 보는 꿈을 꾸기도 했다. 그는 꿈에서 스승님의 온몸이 관음보살처럼 눈부신 빛을 뿜어냈다고 하면서 "정말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하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부스 다른 쪽 끝에서 싱가포르 채식 협회(Vegetarian Society of Singapore, VSS)에서 제공해 준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씨앗'(Seeds for a Better World)이란 비디오도 계속 상영해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모았다. 그 중 한 편에서는 동물들이 학대되고 도살당하는 끔찍한 장면들이 펼쳐졌는데 이를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경악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 비디오가 사람들의 양심을 움직이고 그들 가슴속에 있는 자비심을 일깨워 준 게 틀림없는 듯했다. 많은 방문객들이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보여 주겠다며 그 VCD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이 밖에 전세계 수백 명의 엘리트 채식주의자를 소개하는 슬라이드 쇼도 상영되었다. 사람들은 이토록 많은 유명한 과학자, 저명인사, 의사, 운동선수들이 채식주의자라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아이들은 특히 '스파이더맨(토비 맥과이어)'과 '배트맨(크리스천 베일)'도 채식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흥분을 금치 못했다!

6월 3일, 우리는 도서전 무대 공연장에서 '대안적인 삶'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에 앞서 도서전 3일 전, 미디어Corp 라디오(MediaCorp Radio)의 '938 라이브' 프로그램 사회자로부터 전화 연락이 온 적이 있었다. 그 다음날 인터뷰할 사람을 보내줄 수 있는냐는 그의 말에 우리는 기뻐하면서 재빨리 피트니스 전문가인 사형을 안내했다. 인터뷰는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잘 진행되었으며 채식이 왜 건강한 선택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사회자는 '채식을 하면 몸이 허약하다'는 일반적인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그곳 스튜디오에 앉아 있던 피트니스 강사인 사형은 채식한 지 10년이 넘는 데다 튼튼하고 건강했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그런 오해에 대한 살아 있는 반증이었다! 사형은 과학적인 논거와 다른 여러 가지 실제 사례를 들어 이 잘못된 사회적 통념의 실체를 밝혀 주었다. 인터뷰 마지막에 사회자는 우리가 도서전에서 '대안적인 삶'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예고하면서 청취자들에게 참석해 보길 권유했다. 우리는 30분에 달하는 방송 시간에 고마워했으며 우리 전단을 그 사회자의 손에 쥐어 준 '이름 모를 천사'에게 감사했다!

우리는 '대안적인 삶' 프로그램에 참석한 손님들에게 채식을 시작하는 이들을 위한 자료집을 선물했다. 여기에는 뉴스잡지 162호에서 발췌한 채식주의에 대한 기사들과 '대안적인 삶' 전단, 견본책자, 다른 매체들의 기사, 권장도서 및 웹사이트 목록이 들어가 있었다.

'대안적인 삶'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육식이 지구를 망친다(Diet for a New America)',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씨앗', 스승님의 최신 DVD '진정한 영웅' 등 세 편의 영상물을 상영해 청중들의 이성에 호소하고 그들의 가슴과 영혼을 울려 자연스레 채식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게 했다. 프로그램에는 '채식하는 어린이 퍼레이드'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참가한 아이들 중 태어날 때부터 채식을 해 온 어린이들은 채식이야말로 심신의 건강에 유익한 식생활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확실한 증거였다! 그 중 몇 명 어린이들은 '대안적인 삶' 티셔츠를 입고 '레몬 트리' 노래 반주에 맞춰 춤을 공연해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스승님의 창작 가곡인 '영원토록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의 노랫소리에 맞춰 일부 엘리트 채식주의자들에 대한 정보를 보여 주는 슬라이드 쇼가 상영되자 일부 청중은 감동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스승님의 노래에 담긴 사랑과 축복, 강렬한 음악은 '대안적인 삶' 프로그램의 대미를 장식했다!



6월 4일에 도서전이 끝나자 우리는 바로 6월 11일에 열릴 비디오 강연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행사 당일 일부 동수들은 친구와 가족들을 데리고 왔으며, 며칠 전 도서전에서 우리 부스를 방문했던 낯익은 손님들도 보였다. 칭하이 무상사의 약력이 담긴 비디오 '사랑의 길을 걷자'로 시작된 강연회는 주요 프로그램인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 '신을 위한 햇불이 되자' 시청으로 이어졌다. 다음으로 우리는 스승님께서 시작하신 전세계적인 '대안적인 삶' 캠페인에 대해 손님들에게 간략히 소개한 뒤 최근 방영된 TV 프로그램 '예술과 영성' 제188집에 나온 스승님의 강연 '황금시대, 새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로운 생활 방식'을 상영했다. 그 뒤 스승님의 노래 '영원토록 당신을 사랑 하겠어요'를 배경으로 엘리트 채식주의자들을 소개하는 슬라이드 쇼를 보여 주었다. 이를 통해 채식을 해야 하는 많은 합당한 이유를 알린 뒤 우리는 준비해 온 맛있는 채식 음식을 참석자들에게 대접했다.

이 밖에 우리는 손님들과 인터뷰도 가졌다. 그 중 중국에서 온 한 청년은 동수인 친구를 통해 5년 전에 스승님에 대해 알게 되었다 고 한다. 그는 강연회 이후로 채식주의자가 되었으며 현재 싱가포르에서 일하면서 입문을 결심했다. 인터뷰를 한 또 다른 손님은 이번에 스승님을 처음 알게 된 서양 여성이었다. 그녀는 비디오 강연회가 유익했으며 자기 마음속에 있던 많은 것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관음법문을 배우는 데에도 관심을 보였다. 도서전에서 우리를 알게 된 한 인도 신사는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이 매우 훌륭하다고 말했다. 떠나기 전에 그가 중국인 동료들에게 줄 견본책자를 몇 권 챙기는 것을 보고 우리는 농담 삼아 그를 스승님의 '배달원'이라 말했다.

사랑하는 스승님과 인연이 깊은 사람들이 지고의 힘과 만날 수 있도록 이미 시간적·공간적인 안배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세계의 많은 엘리트들이 채식주의자라는 사실과 채식을 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를 알고 '대안적인 삶', 채식이야말로 진정으로 지혜롭고 똑똑하며 멋진 선택임을 깨닫기를 희망했다! 그들이 우리 대열에 합류해 '진정한 영웅'이 되길 초대하는 바이다.

## 후기



우연히도, 비디오 강연회가 끝나고 일주일 뒤인 6월 17일, 싱가포르 주요 신문인 『스트레이츠 타임스(Straits Times)』에 피터 싱어(Peter Singer)가 쓴 '생각하게 하는 음식: 육식의 윤리(Food for Thought: The Ethics of Eating Meat)'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글쓴이는 농장에서 동물들에게 행해지고 있는 잔인한 사육 방식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동물들을 공장식 농장에 가두면 그들에게 먹일 농작물을 생산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얻는 식량은 적어진다. 보통은 가축의 먹이에 1/3도 안 되며 때로는 1/10밖에 되지 않는다." 피터 싱어는 프린스턴 대학의 저명한 생명 윤리학 교수로서 짐 메이슨(Jim Mason)과 함께 『우리가 먹는 방식(The way we Eat)』를 공동으로 저술했다.

1주일 후 싱가포르의 주요 경제 신문인 『비즈니스 타임스(Business Times)』 6월 24일과 25일 주말판에도 '영혼이 찾는 음식(Soul-searching Food)'이라는 전면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에서는 엔소 주방(Enso Kitchen), 창세기 건강 채식 요리점(Genesis Vegetarian Health Food Restaurant), 요기의 집(Yogi Hub) 등 채식 식당 세 곳을 소개했다.

티베트 불교 신자가 운영하는 엔소 주방은 부처의 불살생 계율에 따라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완전 채식 음식 메뉴를 제공한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창세기’에서 채식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신도와 가까운 친구들이 개업한 ‘창세기’ 식당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식사 방식을 알리기 위해 시작됐다. 선(禪) 불교에서 창세기를 거쳐 이어지는 차례는 요가이다. ‘요기의 집’은 채식의 치유력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려 준다.

사랑하는 스승님께서 ‘대안적인 삶’ 캠페인을 시작하신 이래 확실히 전세계적으로 채식 식당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며 채식 생활 방식은 이미 유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 오래지 않아 지구는 거주민들에게 더욱 훌륭한 ‘호텔’이 될 것이다! ☺

## 포모사

# 전 국민에게 생명 보호와 채식의 이상을 전파하다

포모사 뉴스그룹 종합 보도 (원문 중국어)

## 🌿 타이베이 🌿

매일 타이베이 시 곳곳에서 ‘대안적인 삶’ 홍보 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타이베이 센터는 동수들의 개별적인 활동과는 별개로 대대적인 활동을 계획했다. 이에 따라 ‘2006 타이베이 국제 채식·유기 농산물 축제’와 ‘타이베이 춘계 컴퓨터 전시회’에 참가하는 한편 신장 시에 있는 광화 초등학교·쓰쎌 초등학교·쑹산젠 초등학교, 단수이의 덩공 초등학교·신싱 초등학교·원화 초등학교·단수이 중학교 등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채식의 메시지를 전하고 타이완 동물 사회 연구회(Environment & Animal Society of Taiwan, EAST)의 활동에도 지지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 외에 타이베이 센터는 특별히 ‘대안적인 삶’의 내용이 새겨진 책받침 4만 장을 제작해 초등학생에게 나누어 주며 동물 보호에 대한 이념을 어린 이들의 마음속에 심어 주었다. 또한 다기능 받침대(마우스 받침과 테이블 매트로 쓸 수 있음) 10만 개도 제작해 신의 메시지를 받을 인연 있는 친구들에게 나눠 주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소식은, 황금시대 3년(2006년) 5월 30일 『대만일보』에서 ‘채식 생활을 선택하면 전세계 자원 불균형 문제를 해결한다’



대만일보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는 큰 제목 밑에 ‘예로부터 많은 위인들은 채식을 신봉했다’는 소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한 것이다. 이 기사는 양쪽에 스승님이 디자인하신 ‘대안적인 삶’과 동물 복장을 한 채 애완동물을 데리고 길에서 전단을 배포하는 동수들의 사진도 실었다. 이는 언론 매체가 지구 환경 보호와 채식 생활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지지를 보여 주는 것이었다.

## 채식 박람회와 컴퓨터 전시회

2006 타이베이 국제 채식·유기 농산품 박람회와 춘계 컴퓨터 전시회가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타이베이 세계 무역 센터에서 동시에 열려 매일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타이베이 센터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시회장과 근처의 인파가 몰리는 교차로에서 전단을 배포했다.

2006 국제 채식·유기 농산품 박람회에 참가한 부스들은 다양하고 맛있는 각종 채식 음식을 전시해 유기농 채식에 관심 있는 많은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몇몇 사람들은 동수들과 함께 ‘대안적인 삶’ 전단 배포에 동참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 4만 장의 전단을 배포할 수 있었다.



## 신장 시 광화 초등학교



5월 30일 우리는 학생 수가 5천 명이 넘는 광화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대안적인 삶’ 서류철 5,400개를 선물했다. 리한둔 교장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기쁘게 선물을 받았다. 그는 세상에 묵묵히 돈과 힘을 들여 말없이 봉사하는 우리 같은 단체가 있다는 것에 놀라워했다. 우리는 그의 말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리 교장은 학교의 교육 이념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학생들에게 유익한 일이라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 단체의 동물 보호·자비심 발휘·생명 존중 등과 같은 주제를 실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 타이완 동물 사회 연구회

타이완 동물 사회 연구회는 ‘인간·동물·환경의 조화’를 취지로 한 단체로서 직원 모두 채식을 실천하고 있다.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타이베이 센터 동수들은 6월 12일 타이완 동물 사회 연구회를 방문해 스승님의 축복이 가득한 뉴스잡지와 사탕, 과자 등을 전달했다. 또한 5만 NT와 ‘대안적인 삶’ 서류철 1,000개도 같이 기증해 이 단체에 대해 지지와 격려를 표하고 함께 생명을 존중하고 동물을 보호하는 인도적 생활 방식을 장려하자는 뜻을 전했다.

이 단체는 이미 우리 단체와 여러 차례 왕래가 있었던 터였다. 우리를 친절하게 맞이한 천위민 주임은 우리 단체의 선행에 대해 감탄하는 한편 뉴스잡지의 멋진 편집에 대해서도 놀라워했다. 그녀는 동물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보호 및 동물의 권리에 대해 홍보할 때 겪는 제일 큰 어려움으로 일반인들이 오랫동안 잘못 알고 있는 선입견과 그릇된 습관, 그리고 산업계와 이익 집단의 압력 등을 꼽았다. 천 주임은 우리 단체의 ‘대안적인 삶’ 배포 활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채식을 홍보하는 활동이 아닌 그 뒤에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신장 시 쓰쎈 초등학교

6월 13일, 동수들은 ‘대안적인 삶’ 대형 포스터와 서류철 2,500개, 다기능 반침대 150개를 타이베이 신장 시에 있는 쓰쎈 초등학교에 증정했다. 양총다 학생주임은 대표로 선물을 받은 후 학생들의 심신과 영혼에 이로움을 주는 이번 활동에 대해 지지를 보였다. 그는 포스터를 교내 건강센터에 붙이겠다고 말했다. 양주임은 학교에 채식을 하는 선생님이 몇 분 있는데 그 중 한 분은 원래 고혈압이 있었지만 채식으로 바꾼 후 혈압이 내려가고 체중도 5kg이나 줄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 학교의 중앙 식당은 채식하는 학생을 위해 특별히 채식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데 채식하는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채식주의자에 대한 학교측의 존중과 보살핌에 대해 큰 감동을 받았다.



## 신주

신주 센터는 이동 트럭을 이용해 ‘대안적인 삶’을 홍보해 왔다. 동수들은 신주 지역을 소규모 마을 단위로 나눈 후 전단 내용이 인쇄된 차를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십자로 부근에 주차시켜 놓고 깃발과 전단을 함께 나누어 주어 길을 가는 사람과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 중에는 일부러 차를 세우고 자세히 읽어 보는 사람도 있었다.



신주에는 학가족(客家族)이 많이 살고 있다. 그래서 동수들은 전단을 배포하는 동안 학가어로도 전단의 내용을 설명해 주었는데 이것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다. 유명한 관광지인 어메이(峨嵋) 호에서는 전단을 미처 받지 못한 관광객 몇 명이 다시 돌아와 받아가기도 했다. 또한 동수들은 부근 상점의 동의를 얻어 대신해서 전단을 배포해 달라고 위탁해 놓았다.



한 사저는 자신이 키우는 애완견을 데리고 전단 배포를 나갔다가 뜻밖의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다. 전에 그녀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던 한 아파트 관리원이 개를 보고선 들어가게 허락해 줬을 뿐 아니라 강아지를 키우는 경험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다.

대학교에서의 배포 활동도 큰 호응을 받았다. 이 포스터가 채식 홍보와 관련된 것임을 안 한 교직원 은 동수와 의견을 주고받으며 채식의 이로움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위생 보건과 직원들도 포스터를 읽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어 본 후 기꺼이 붙이도록 허락했다. 마침 위생 보건과 문 밖에도 우리의 홍보 주제와 상통하는 ‘고기  
를 적게 먹자’는 내용의 건강 생활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 장화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장화 센터 동수들은 단오절 전날인 5월 28일 장화 시 기차역 앞에서 열린 ‘2006 시장배 단오절 육상 용선 축제’에 초청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대중들에게 맛있는 무료 채식 음식을 제공하고 부모와 자녀를 위한 재미있는 게임도 진행했다. 또 부스를 설치해 스승님의 서적과 그림을 전시하고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를 상영하는 한편 ‘대안적인 삶’ 전단도 배



포했다. 이런 큰 행사에 참가하는 드문 기회를 맞아 동수들은 12가지의 훌륭한 채식 음식 4천 명분과 1,000개가 넘는 채식 종즈를 준비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제공한 음식을 즐기면서 육상 용선 시합을 구경했으며, 부스 근처에서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를 감상하거나 자녀와 함께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행사 기간에 원귀밍 장화 시장과 천제 입법위원이 각각 우리 부스를 방문해 이번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동수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스승님의 가르침과 자비로운 행적에 대해 찬탄과 존경을 표했다. 또한 우리가 주창하는 ‘자비·건강·환경 보호’의 채식 이념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주관 단체인 시 기관은 큰 비에도 아랑곳없이 더욱더 힘을 기울여 시종일관 헌신함으로써 순조롭게 이번 행사가 끝나도록 해주었다면서 장화 동수들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행사 기획을 맡은 사회과의 순 과장은 장 주임 비서관과 함께 부스를 방문해 우리를 격려하고 칭찬했다. 특히 잊지 못할 일은, 장 비서관이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가능한 한 건강과 자비의 이상을 바탕으로 한 채식으로 바꾸라고 호소한 것이다.

아침 8시부터 정오까지 행사가 계속되는 동안 우리 부스에는 많은 인파가 몰렸다. 채식 음식을 맛본 사람들은 흐뭇한 미소를 띄며 매우 만족해했고 게임에 참가한 어린이들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단오절을 보냈다. 또한 사람들은 ‘대안적인 삶’ 전단을 받고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았다. 행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되자 마침내 며칠 동안 계속 내리던 큰 비가 그치고 태양이 얼굴을 드러냈다! 우리는 속으로 스승님의 축복에 감사하는 한편 이 좋은 날씨를 이용해 서둘러 전단과 전단 내용이 인쇄된 환경 보호 가방을 대량으로 배포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 실용적인 쇼핑 가방을 받아갔다. 사람들이 쇼핑 가방을 들고 만족한 웃음을 지으며 떠나는 모습을 보니 우리의 마음속에도 큰 기쁨과 깊은 감사의 마음이 솟아올랐다.

이 밖에 장화 센터 동수들은 같은 지역에 있는 베이더우 초등학교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의 천진황 주임이 이쪽 방면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선 어린이들에게 지식, 실제 경험, 가족의 영향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채식의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 특별히 이 학교를 방문해 ‘대안적인 삶’ 서류철과 책받침, 테이블 매트를 기증했다. 천 주임은 채식을 홍보하고 동물 보호의 이상을 전파하는 우리 단체에 지지를 표하는 외에 교내에서 열리는 마음 수련 관련 활동에 우리를 정식으로 초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는 상황이 허락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기꺼이 참가해 지식을 함께 나누겠다고 응답했다.



### 난터우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 다시 입시철이 되었다. 7월 1일부터 사흘 연속해서 포모사 대학 연합고사가 치러졌다. 난터우 지역에서는 중싱 고등학교에서 시험이 치러졌다. 난터우 센터는 ‘대안적인 삶’을 부채로 제작해서 연합고사 첫날 아침 시험장에 도착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운 날씨에 시원한 바람을 선사하기 위해 그들에게 부채를 나눠 주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부채를 받고 무척 기뻐했다. 자녀가 시험을 치르고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부채질도 하고 인쇄된 내용도 읽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특히 학부모들이 반가워했다.



시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 정부에서 많은 경찰들이 파견을 나와 교통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 우리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지지한 한 경찰은 경찰서에 있는 다른 동료들에게도 나누어 주겠다고 하며 부채를 더 많이 요구했으며 다른 경찰 한 사람도 동료들에게 줄 ‘대안적인 삶’ 서류철을 요청했다.



때마침 중싱 고등학교 옆 운동장에서 전국 노인 크로켓 시험이 열리고 있었다. 동수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시험에 참가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부채를 나누어 주었다. 모두들 기뻐하며 앞 다투어 받아 가는가 하면 같은 팀 동료에게 줄 분량을 요청하기도 했다. 어떤 행인은 전단을 받고 우리가 채식을 홍보하는 자원 봉사자라는 것을 알고선 우리 활동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요즈음 같은 사회에서 사심 없이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은 보기 드물다고 하면서 몇 번이고 우리를 칭찬했다.



### 타이난

타이난 센터는 일요일마다 타이난 시 곳곳에서 전단을 배포하고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는 보다 대대적으로 ‘대안적인 삶’ 캠페인을 펼치기로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일정을 잡아 실행했다.

5월에는 타이난 용선 시합 기간 중 인파가 가장 많이 몰리는 단오절 당일에 활동을 진행했고, 6월에는 안네이 초등학교에서 거행했다. 이 밖에 타이난 센터는 타이난 현 사회국, 교육국, 현립 문화 센터, 항공소 등의 정부 기관과 안핑 문화교육 재단, 진청 문화 교육국 재단, 타이난 시 대만어 로마자 연구 협회, 타이난 시 난뤄(南羅) 방언 한학 협회, 중화 서각 예술 학회 등의 비영리 단체도 방문해 '대안적인 삶' 서류철을 증정했다. 그와 동시에 센터는 타이난 시립 도서관과 현립 도서관, 각 마을 도서관과 대학 도서관에 스승님의 책과 '대안적인 삶' 서류철, '채식을 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채식 관련 의학 자료 등을 증정했다.

## 채식 홍보를 위한 절호의 기회 -국제 용선 시합

타이난 시 국제 용선 시합이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타이난 운하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타이난에서 가장 특별한 문화 행사인데, 올해에는 미국 워싱턴 용선 협회까지 참가해 각지에서 많은 인파를 끌었다.

단오절 당일, 센터는 친분이 있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행사장 근처의 한 음식점의 공간을 빌려 그곳을 전단 배포와 홍보 활동 진행을 위한 거점으로 삼았다. 대회 주최측 본부와 주요 무대가 우리 식당 바로 앞에 위치한 것을 보고 행사에 참여한 동수들은 모두 떨 듯이 기뻐하며 스승님의 절묘하신 안배에 깊이 감사드렸다. 우리는 행사장에 '대안적인 삶' 현수막을 걸고 대형 포스터를 붙이는 한편 각자 '대안적인 삶' 티셔츠를 입고 '채식을 해야 하는 10가지 이유'와 유명한 의사나 인물이 쓴 채식에 관련된 의학 자료 1천여 부도 마련해 두었다. 주방 팀은 700개가 넘는 영양 많고 맛있는 채식 종즈를 준비해 대중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포스터를 붙이자마자 이에 관심을 보이며 찾아온 첫 번째 손님은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이었는데, 그는 우리 활동을 매우 높이 평가했다. 많은 사람들이 포스터의 내용을 자세히 읽었으며 몇 백 개의 종즈가 순식간에 다 나갔다. 당일 저녁, 준비 위원회에서 마련한 특별 공연이 열리자 우리 부스는 사람들로 꽉 찼으며 채식 자료 천 부가 금방 배포되었다. 이 밖에 우리는 미리 준비해 온 아몬드 쿠키를 전단과 함께 나누어 주었다. 과자를 받은 사람들은 놀라움과 기쁨을 표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내용을 읽어 보고 견본책자를 요구했다.

68세의 쉬 선생은 자기에게 전단 내용을 설명하며 견본책자를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주는 사저의 지혜안에서 견본책자 표지의 사진과 똑같은 모습의 화신 스승님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매우 신기해했다! 그는 사저의 설명을 흥미롭게 듣고 난 후 스승님이 살아 계신 큰스승으로서 천백억 화신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선 자신도 채식을 하며 수행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성스러운 시후 센터도 방문하고 싶어하며 우리에게 연락처를 남기며 최대한 빨리 연락을 달라고 희망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타이난 가수 협회도 우리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우리가 이 메시지를 보다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공연을 우리 활동에 맞춰 주었다. 그날 저녁 비가 오는데도 열성적인 시민들은 우산을 든 채 공연을 지켜보았다. 참석자 모두 전단과 채식 자료, 사랑의 종즈를 받았는데, 모두들 그날 저녁이 매우 행복하고 즐겁다고 말했다. 그들의 얼굴 가득 피어 오른 웃음에서 우리는 그 마음을 역력히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현장에 있던 동수들도 모두 스승님의 사랑과 가피를 느낄 수 있었다.

### ‘생명 존중 · 동물 보호’ 안네이 초등학교 활동

6월 홍보 활동은 15일에 타이난 현 옌수이 군 안네이 초등학교에서 진행했다. ‘생명 존중·동물 보호’를 주제로 한 이 행사에는 교육에 종사하는 많은 동수들이 일부러 휴가까지 내고 참가했다.

올해 정월, 타이난 센터에서 겨울철 노인 돕기 행사를 할 때 안네이 초등학교 평추상 교장이 2, 30명의 학생들을 데려와 노인들에게 사자춤 공연을 보여 준 적이 있었다. 그때 동수들이 준비한 맛있는 채식 뷔페를 맛본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 자랑을 늘어놓자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이 부러워했다. 그래서 이번에 교장 선생님이 이번 행사 소식을 전하자 아이들은 모두 흥분된 마음으로 이날이 오기만을 고대했다.

행사 당일 전교 어린이들이 강당에 모여 ‘진정한 영웅’을 감상했다. DVD를 상영하기 전 평 교장은 의례적인 환영사 외에 학생들에게 생명을 존중하고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해 주었다. 동수들은 교장 선생님이 이 영상을 본 적이 없을 텐데 어떻게 그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무척 의아해했다. 나중에 평 교장은 동수들에게 다음과 같이 털어놓았다.



“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이들에게 오늘 행사에 대해 어떻게 소개할까 생각하는데, 머릿속에 갑자기 이 DVD의 내용이 한바퀴 돌며 지나갔어요. 그래서 대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었지요.”

중국어 자막을 읽지 못하는 유치원부와 저학년 어린이 친구들을 위해 현장에서 한 사저가 동시에 자막을 읽어 주었다. 이어서 상품이 걸린 퀴즈 시간이 되었다. 문제는 모두 DVD 내용에서 출제된 것이었는데, 어린이들은 답을 맞추는 데 매우 열성적으로 참가했다.

놀랍게도 유치원생과 저학년 어린이들 모두가 DVD의 내용을 잘 이해해 정답을 맞추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진정한 영웅’을 매우 집중해서 감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이들은 ‘영혼’으로 이해한 게 분명하다!

센터는 ‘대안적인 삶’ 서류철과 사탕, 과자, 그리고 문구점을 하는 동수가 제공한 학용품 두 상자를 상품으로 준비해 왔다. 이렇게 풍부한 상품이 걸린 퀴즈 프로그램은 전교생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마지막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가장 고대했던 '생명 존중·동물 보호' 채식 요리 시식회였다. 음식 모두 동수들이 자신이 제일 잘하는 장기 요리를 정성스레 만든 것이었는데, 우리는 먹음직한 십여 종류의 중식 및 양식 요리를 선보이며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동물의 생명을 희생하지 않고도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몇몇 선생님들이 자신들도 채식을 하고 싶긴 한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기에 우리는 즉시 전단에 적혀 있는 웹사이트를 추천해 주며 그곳을 방문하면 채식 요리 동영상과 요리법, 그리고 매우 완벽한 채식 관련 자료를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알려 주었다.

한 어린이는 온 가족이 채식을 하는데 이렇게 맛있는 채식 요리를 같이 나눠 먹고 싶다고 음식물 쪼개 가도 되는지 수줍게 물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선생님에게 부탁해 어린이들 모두 실컷 음식을 먹고 난 후 준비된 용기에 음식을 쪼개 가도 된다는 말을 전했다.

현장에 전시한 포스터들도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들은 '진정한 영웅'을 감상한 후 포스터들을 다시 읽어 보며 또 한번 복습했다. 이로 인해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채식을 실천하자는 의미가 이미 그들 마음속 깊이 뿌리내렸으리라 믿는다!

행사가 끝난 후 평 교장은 스승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그녀는 일요일마다 방영되는 TV 프로그램 '예술과 영성'을 즐겨 본다니면서, 그 까닭은 스승님이 전하는 가르침이 자신의 인생관과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반인들은 외적인 수행만을 중시하는 데 비해 칭하이 무상사는 내면에서 외면에 이르기까지 수행하도록 사람들을 인도하신다고 말했다. 또한 평 교장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 감사장을 수여하며 이날 활동에 대한 소감도 덧붙였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동수들한테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에게서 인간 성품의 밝고 선량한 면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정신, 그리고 동물을 포함한 만물을 평등하게 대하는 자세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사회의 귀감입니다."

우리는 학교의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채식을 해야 하는 10가지 이



평 교장 (오른쪽).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유'와 지역 채식 식당 목록이 첨부된 '대안적인 삶' 서류철을 전달하고 어린이 친구들에게는 '대안적인 삶' 책받침도 나누어 주었다. 또한 스승님의 이야기책과 만화집, '진정한 영웅' 등의 출판물을 학교 도서관에 기증했다. 이번 활동은 안네이 초등학교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행복하고 잊지 못할 하루를 선사했다!



이야기 세상

## 채식인의 높은 이상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다

포모사 타이베이 뉴스그룹 정리 (원문 중국어)

지난 몇 달 동안 '대안적인 삶'의 메시지를 나 누고 채식을 홍보하는 포모사 동수들의 부단한 노력 은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을 뿐 아니 라 채식의 이상을 그들의 마음속 깊이 심어 주었 다.

한 남성은 우리 동수들이 최근 다섯 달 동안 계속해서 전단을 배포한 결과 많은 사람들의 양심이 깨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채식 인구가 눈에 띄게 늘 어났고, 채식 매장도 번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집 근처에도 최근 채식 식당 두 곳과 채식 카페 한 곳이 생겼다고 한다.

정성 라디오 방송국의 프로그램 '바다 너머 추격'의 사회자인 장치루 씨는 길거리에서 '대안적 인 삶' 전단을 받았을 때 동수들의 신실한 태도에 깊 은 감동을 받았다. 전단의 메시지에 공감을 한 그

는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로 타이베이 센터에 연락해 동수들과의 인터뷰 약속을 잡고 이 전단을 나눠 주는 활동에 숨겨진 깊은 뜻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어했다. 일요일에 방송되는 '바다 너머 추격' 프로그램은 해협을 사이에 둔 중국 사람들의 활동을 보도하는데, 주로 포모사 북부의 청중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인터뷰를 하던 중, 친절한 장 선생은 우리 협회의 꾸준하고 변함 없는 활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 활동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로움을 준다고 말했다. 이 인터뷰는 어 머니의 날에 이루어졌는데, 장 선생은 가족들에게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인 채식 음식을 보다 많 이 만들어 달라고 세상의 어머니들에게 호소했다. 인터뷰에 참석한 세 명의 동수들은 스승님의 가르침 과 채식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다. 사회자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가 현대인들에게 우울증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큰 관심을 표하자 동수들은 타이베이 센터에서 무료 명상 시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울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증권가에서 일하고 있는 쉬 사저는 고객인 양 선생에게 ‘대안적인 삶’ 전단을 한 번 준 적이 있었는데 그 후 양 선생은 인터넷을 통해 쉬 사저에게 세상에 공헌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그 첫 번째로 채식을 장려하는 일을 하고 싶어했다. 그는 믿고 있는 종교는 없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이 치매에 걸렸고 형이 아주 어린 나이에 뇌졸중으로 죽는 등 아픈 경험들로 인해 이 세상이 덧없다는 진리를 깨닫고선 채식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양 선생은 또한 외국 여행을 하는 동안 채식을 했던 자신의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마음만 있으면 채식을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무역회사의 여 사장은 ‘대안적인 삶’ 전단을 받고 꼼꼼하게 읽어 본 후 채식을 하면 인류가 조류 독감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때문에 채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고등 상업을 가르치는 한 선생님으로부터 ‘대안적인 삶’ 서류철을 받고 그녀는 보다 자주 채식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심지어 유명한 몇몇 채식 식당의 저녁 식사 쿠폰을 사서 주변 사람들과 친구, 선생님들에게 나눠 주며 그들도 채식을 하게 되길 희망했다. 최근 완전 채식을 하게 된 그녀는 건강과 혈액이 모두 좋아졌다. 그녀는 채식을 하도록 권해준 선생님께 감사하는 한편 자기와 같이 배우고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 채식의 이로움을 소개했다.

증권 거래소에서 근무하는 린 선생은 관광을 하다가 ‘대안적인 삶’ 전단을 받은 후 주차장에서 또 한 번 전단을 받은 데 이어 동료인 쉬 사저에게서도 ‘대안적인 삶’ 서류철을 받았다. 반복되는 이 메시지는 자비심을 발휘하고 육식을 그만두라는 것임이 분명했다. 그는 처음 전단을 읽었을 때 특



정 종교의 색깔도 없는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여겼다. 그러다가 나중에 쉬 사저로부터 서류철을 받았을 때는 전단을 디자인한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칭하이 무상사가 디자인하셨다고 하자 마치신의 메시지가 그의 영혼을 건드린 듯 그는 바로 자기 책상에 전단을 붙여 놓고 채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워 줄 도구로 삼았다.

정 사형은 교과서를 파는 영업 사원이다. 그는 일 때문에 학교를 자주 방문하는데 그 참에 ‘대안적인 삶’ 전단과 서류철을 나눠 주곤 한다. 어느 날 그는 네이후 고등학교의 한 선생이 재래 시장과 할인 마트, 길거리에서 전단을 받았는데 처음에 전단을 받는 즉시 디자인이 다른 일반 광고와는 다르다고 느끼고 주의 깊게 읽어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 선생님은 그 후 같은 전단을 네 차례나 더 받으면서 채식이 건강에 매우 좋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채식을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채식이 건강과 환경을 위해 좋다는 것을 깨닫고 이로 인해 채식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지구를 더 밝고 평화롭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지구에 이미 천국이 도래했음을 믿고 있다! 🌸

# Why Vegetarian

## ‘아일랜드 고등학교’ ♥♥♥♥ 교과 과정에 일어난 일대 변화

더블린 뉴스그룹 (원문 영어)

채식 사상과 요리법이 이제 ‘생활 학습’ 교과서에 포함되었다.

아일랜드의 14, 15세의 고등학생은 매년 중등 자격 시험이라는 첫 번째 큰 시험을 치른다. 올해 처음으로 채식 사상과 요리법이 이 시험 교과 과정에 포함되었다. 학생들은 이 시험을 치른 후, 최종 시험을 보고 졸업할 때까지 3년 간 채식학 관련 수업을 들어야 한다.

그 중 교과 과정에 포함된 ‘생활 학습’이라는 교과는 채식을 해야 하는 이유와 채식주의자에게 알맞은 요리법에 관한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

아래의 글은 2006년 ‘중등 자격 시험’ 교과서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왜 채식을 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채식을 선택하는 것은 그것이 좀더 건강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채식주의자들은 과체중이나 심장병, 장 질환에 쉽게 걸리지 않는다.

일부 종교에서는 채식을 권장한다.

어떤 이들은 먹거리로 삼기 위해 동물을 죽이는 것을 반대한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소와 곡물 생산은 비교적 쉽고 생산비가 저렴하다.”

이것으로 보아 ‘고기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음식’의 영양 가치와 채식 조리법에 대해 충분히 교육받은 이 수만 명의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이끌어 나갈 아일랜드의 미래는 매우 밝아 보인다.

아일랜드 관음 수행자들은 아일랜드 국민에게 기적과 같은 축복을 내려 주시고 국민 의식을 고양시켜 새롭고 고귀한 이상을 갖게 해주신 스승님께 다시 한번 정중하게 감사드립니다. 🙏



# 삶의 질을 높이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채식을 권장하다

타이완 위생병원 영양과 주임과의 인터뷰

포모사 타이베이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타이완 위생병원 영양과 류치친 주임과 인터뷰를 가졌다.

타이완 위생병원(Taiwan Adventist Hospital)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설립한 교회 병원으로서,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하느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보라,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나니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는 채식을 따르라는 것을 의미한다. 타이완 위생병원은 1955년에 세워진 타이완 최초의 채식 병원이다.

지난 52년간 포모사인들을 돌봐 온 이 병원은 뛰어난 의료 기술과 자비로움을 갖춘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예방 의학과 영양 많은 채식 식단 권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현 이사장인 후 목사는 건강 음식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한다. 그는 스스로 철저한 채식을 하면서 병원 전체의 완전 채식을 지지하고 있다. 오늘날 음식이 날이 갈수록 정제됨에 따라 일부 사람들은 이런 정제 식품 때문에 만성 질병에 걸린다. 1997년부터 타이완 위생병원은 ‘뉴스타트(NEW START) 영양 채식 식단을 권장하기 시작했다. ‘뉴스타트’ 영양 채식 식단에는 달걀, 유제품, 정제유, 설탕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 대신 식이 섬유가 많

이 포함되어 있다. ‘뉴스타트’ 생활 방식 프로그램은 전세계 170개 위생병원에서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

미국 위생병원의 연구 결과는 ‘뉴스타트’ 방식이 수명을 연장시키고 각종 암과 질병들을 예방하는 식단임을 증명한다. 그러니 타이베이 시에서 매년 시행하는 ‘건강 병원 평가’에서 타이완 위생병원이 여러 차례 특별상을 수상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또 중국 영양사 연맹 이사장과 다른



많은 영양학자들도 타이완 위생병원에서 추진하는 건강 식단의 성과를 크게 인정하고 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타이베이 센터 동수들은 타이완 위생병원을 방문해 이 병원에서 19년째 재직하고 있는 영양과 류치진 주임과 인터뷰를 가졌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그녀 또한 뉴스타트 식단을 따르고 있었다. 인터뷰 도중 류 주임은 건강의 관점에서나 인간의 소화 기관 구조상에서나 인간, 특히 환자는 채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육류에는 단백질이 많지만 인간 내장 기관에 부담을 주는 물질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 인간, 특히 환자에 해롭다는 것이다.

류 주임은 또한 우리가 먹는 음식이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

했다. 영양과는 병원 내의 수많은 부서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직원이 한정되어 있고 병원 내의 모든 직원들의 협조에 의지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간호사처럼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환자들에게 건강 식단의 중요성을 설명할 책임이 있으며 영양사들은 식단표 뒤에 건강 식단의 핵심을 적어 놓고 환자들을 방문할 때 이를 소개한다. 환자들뿐 아니라 병원의 모든 직원들도 건강 식단의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영양과는 신

입 직원 연수 기간 동안 ‘건강 8대 원칙’을 비롯해 건강 식단에 관해 자세히 설명한다. 병원에서는 직무 교육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연수를 일년에 세 차

레씩 실시하고 있다.

타이완 위생병원은 병원 내에 채식 문화를 건립하는 외에도 난터우 현 위치 향에 있는 삼육 건강 교육센터에서 ‘뉴스타트’ 생활 방식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13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에는 전문의들의 건강 상담과 전문 영양사의 영양학 원칙 강의, 천연 조리법 시연이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참가자들이 건강한 음식, 건강한 생활 방식을 체험함으로써 집에 가서 계속 이런 식생활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다. 13일간의 프로그램이 끝나면 많은 참가자들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된다. 예를 들어 의사인 한 참가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300mg/dl(정상수치는 200mg/dl 이하)이 넘었었는데 프로그램에 참가해 13일이 지난

후에는 정상이 되었다. 당뇨병이 있는 다른 참가자의 경우에는 혈당과 혈중 지방을 조절하기 위해 하루에 열세 알의 약을 복용해야 했는데 건강 식단을 시행한 후 세 알로 줄일 수 있었다.

류 주임의 말에 따르면 통풍(痛風)과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뉴스타



구내식당 벽에 붙은 아름다운 포스터. 건강 식단의 올바른 개념과 채식을 알리고 있다.



트' 식단을 따른 후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한다. 매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상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는다는 점이다. 인터뷰 끝에 류 주임은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건강이 재산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길 원한다면,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고 좋은 생활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수명도 늘리고 생활의 질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심신에 균형을 맞춰 주는 영적인 믿음도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신성한 힘을 믿는 것은 육신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같은 것을 없애 주지요.”




건강에 좋은 이곳 요리들은 찾는 손님들이 많으며 호평이 끊이지 않는다.

인터뷰가 끝난 후 류 주임은 점심 식사를 함께하자며 우리를 직원 식당으로 안내했다. 식당은 은은한 조명으로 아늑했으며 벽에는 온갖 채식 요리법이 붙어 있었다. 다채롭고 건강에 이로운 채식 음식은 입맛을 돋우게 했다. 테이블마다 영양과에서 준비한 '건강 8대 원칙(영양·운동·물·햇빛·절제·공기·휴식·신성한 힘에 대한 믿음)'에 관한 인쇄물이 놓여 있어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건강의 개념과 원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이 식당은 직원들뿐 아니라 많은 환자들과 방문객들도 이용한다. 이곳의 건강 요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서 식당은 종종 만원을 이루며 음식이 동이 나는 경우도 있다. 류 주임은 근처 상업 지역에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러 오거나 갓 구워낸 건강 빵을 사 간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때 병원 근처의 회사에 다니는 한 여성이 자신은 철저한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평상시 이 식당을 자주 이용하다 보니 몸도 좋아지고 지금은 모기에도 물리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가 병원 관계자와 인터뷰를 하려고 왔으며 우리 단체가 채식을 권장하는 단체임을 알고선 채식은 몸에 이로우니 권장할 만하다고 기분 좋게 말했다.

점심을 같이 하면서 류 주임은 자신이 미국에서 7년간 거주했다면서 미 농무부가 1992년에 '식단 피라미드'를 발행한 이래 미국 정부는 줄곧 초·중학교에 건강 식단을 권장해 오고 있다고 알려 주었다. 좋지 않은 식습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들을 예방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확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점심을 마치고 병원을 나왔을 때 이날 하루가 매우 유익했다고 느꼈다. 사람들이 건강을 돌보고 건강한 채식 식단을 권장하는 이 병원에 신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 전세계 모든 곳에서 건강 채식 식생활이 채택되길 바란다.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뉴스타트' 생활 방식 프로그램의 유익함과 최근 연구 결과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www.tahsda.org.tw/newstart/about/about02.htm> (중국어)

<http://www.newstart.com/NSacronym.html> (영어)



## 천국의 야구

칭하이 무상사/ 2003. 2. 4.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DVD No. 754

평생 동안 열렬한 미국 야구팬이었던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야구와 관련된 이야기만 하고 거의 1년 내내 갈 수 있는 모든 야구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그들은 누가 먼저 죽든 천국에 야구 경기가 있는지 남은 사람에게 알려 주러 오기로 약속까지 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저녁, 두 친구 중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물론 야구 경기를 관람한 후라서 그는 행복하게 죽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남아 있던 친구인 밥에게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세!” 그러자 밥이 말했지요. “존, 자네인가?”

“물론이지. 나 아니면 누구겠나?” 존이 대답했어요.

“믿을 수 없군!” 밥은 소리쳤죠. “그래, 천국에 야구가 있든가?”

그러자 존이 말했어요. “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뭐 먼저 듣겠나?”

“좋은 소식부터 말해 주게.”

“좋아. 좋은 소식은 천국에 야구가 있다는 거네.”

밥은 말했어요. “와, 대단하군! 그럼 나쁜 소식은 뭐지?”

“나쁜 소식은, 자네가 내일 밤에 투수를 할 차례라는 거네!” 오



## 재능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칭하이 무상사/ 2003. 2. 4.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DVD No. 754

한 여자아이가 집에 돌아와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캄캄해도 글씨를 쓸 수 있나요?” 아버지가 대답했죠, “그럴 것 같은데. 뭘 써 줄까?” “아, 그냥 이 성적표에 이름만 써 주시면 돼요!” 오



스승님의 농담을 동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주위 분들과 함께 유쾌한 스승님의 농담을 나누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net/eng/news/171/jk1.htm>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71/jk1.htm> (포모사)

미국

# 어울락 학생들에 대한 칭하이 무상사의 자비로운 마음

## 오렌지코스트 대학 베트남 학생 협회 장학 재단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엔터테인먼트 팀 보도 (원문 영어)

어울락인들은 아주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어울락의 지도를 보면 아주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S자형, 혹은 도교의 태극 문양처럼 생겼지요. 어울락은 이런 모양으로 생긴 유일한 나라입니다!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는데 전체 모양이 이와 같습니다. 영적인 땅은 위대한 인물을 낳는 법입니다. 세세생생 많은 대수행자들, 위대한 영웅, 큰 사상가들이 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세계는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어울락 난민-세상을 위한 축복’에서 발췌. 칭하이 무상사/ 1992. 4. 3. 포모사 미아오리 시후 센터. 원문 중국어.)

1975년 어울락 난민들이 미지의 땅을 향해 배를 타고 어울락을 떠난 지 벌써 31년이 넘었다. 미국의 다른 이민 공동체에 비하면 어울락인은 신흥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어울락인들은 이 땅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기여했으며 이제는 미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다.

31년이 지난 지금, 해외에 사는 어울락인들은 고된 일과 근면한 정신으로 안정적인 경제 기반과 편안한 삶을 확립했다. 그러나 그들은 난민의 처지였던 과거를 잊지 않은 채 어울락 청년들과 이전의 자신들 처럼 소외 받는 사람들에게 튼튼한 기반과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고자 애쓰고 있다.

어느 사회든 청년들이 견고한 도덕적 기초를 형성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항상 중요하다. 해외의 어울락인들은 그들 공동체를 위한 구호를 만들었다. ‘한 나라의 부강과 도덕성, 번영은 청년의 힘과 도덕성, 아름다움에 달려 있다.’ 이들 젊은 세대는 정말 미래의 지도자인 것이다!

최근 『비엣 바오 일보(Viet Bao Daily)』에 실린 한 기사가 스승님의 관심을 끌었다. 오렌지 코스트 대학(Orange Coast College)의 베트남 학생 협회(Vietnamese Student Association, VSA)의 활동을 보도한 내용이었는데, 불우한 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문인 후에 팜(Hue Pham) 박사의 지도 하에 VSA 장학 재단이 설립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아신 스승님은 불우한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미화 1만 달러를 VSA 장학 재단에 기부하기로 하셨다. 스승님은 지금까지 여러 나라에 이와 비슷하게 장학금을 기부해 오고 계시다. 최근에는 필리핀의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하신 바 있다(뉴스잡지 170호 ‘사랑의 바다에서 온 물방울’ 참고).

강연 ‘어울락 난민-세상을 위한 축복’에서 칭하이 무상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히셨다.

“어울락 사람들은 영적인 축복을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축복은 아니지요. 그 중에는 성인도 있고 수행을 잘해 등급이 매우 높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성취한 깨달음의 지위를 희생한 채 이 세상을 돕고 많은 나라에 영적인 씨를 뿌리기 위해 난민으로 내려왔습니다. 오직 스승만이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돕고자 동분서주하는 것은 그들이 나의 동포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전세계를 위해서입니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 예일, 남캘리포니아 대학교(USC)를 비롯해 미국 전역에 있

는 많은 대학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VSA는 다양성과 문화 의식, 공동체 발전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어울락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의 중심부에 있는 오렌지 코스트 대학(OCC)의 VSA는 같은 학생 단체 중 가장 활발하고 강력한 조직으로 여겨진다. 해마다 오렌지 코스트 대학 VSA는 어울락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기리고 나누고 소개하는 ‘문화의 밤’을 개최하고 있다.

황금시대 3년(2006년) 7월 12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동수 대표들은 오렌지 코스트 대학을 방문해 VSA 장학 기금에 칭하이 무상사의 관대한 기부금을 전달했다. VSA 장학 기금의 집행 이사인 더글러스 베네트(Douglas Bennett) 씨와 교무·특별 서비스 주임인 후에 팜 박사가 진심으로 우리 동수들을 환영하면서 학생들을 대신해 스승님에게 감사를 표했다.

더글러스 베네트 집행이사: “여기 오렌지 코스트 대학의 어울락 학생회회를 후원하고자 보내 주신 칭하이 무상사의 1만 달러를 정말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런 장학금은 매우 귀중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 우리가 여태까지 받은 이런 특별한 장학금 중 가장 큰 선물입니다. 팜 박사와 저는 칭하이 무상사와 힘을 모아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 아주 기쁩니다. 이 장학금은 오렌지 코스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든, 캘리포니아주의 다른 대학이나 이스트 코스트의 대학으로 옮겨 공부를 계속하는 학생이든 VSA의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마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후에 팜 박사: “저는 칭하이 무상사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고 그분의 TV 프로그램도 몇 편 본 적이 있습니다. 칭하이 무상사께서 재정을 지원해 주시겠다는 연락을 받고 ‘정말 멋져요.’라고 말했답니다. 우리에게 이런 장학금을 주신 칭하이 무상사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VSA가 세워진 이래 이렇게 많은 기부금은 처음입니다. 이곳 베트남 학생 협회(VSA) 모두를 대표해 칭하이 무상사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께서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 특히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어 줄 영성에 대한 가르침에 귀 기울이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내적인 평화를 찾는 게 특별한 중요성을 갖기 때문이지요. 또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내적인 평화를 찾아낸다면 그 평화가 전세계로 퍼져나가겠지요. 그것이 제 소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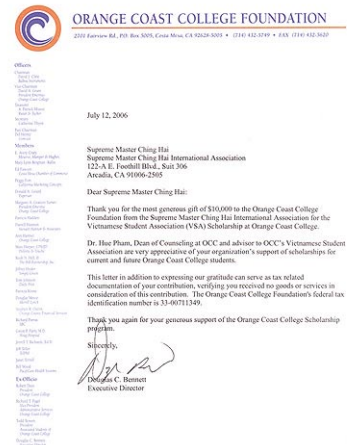
더글러스 베네트 집행이사는 학생들에게 이런 선물을 주신 점에 대해 칭하이 무상사께 감사 편지도 썼다. 스승님은 ‘고대의 어울락’(DVD NO. 759)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해외의 어울락인들은 고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어울락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계발한 방법이 없지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배움의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유용한 수단들을 최대한 활용해 영적인 삶을 계발하고 우리의 마음과 능력을 한껏 발휘해야 합니다.”

(칭하이 무상사/ 1991. 3. 1. 미국 텍사스 휴스턴 원문 어울락에)



VSA 장학 재단의 더글러스 베네트 집행이사(가운데)와 교무주임인 후에 팜 박사(오른쪽)가 고학생들을 위한 칭하이 무상사의 기부금 미화 1만 달러를 받고 기뻐한다.



미국 오렌지 코스트 대학 재단의 감사 편지.





스페인

## 발렌시아 지하철 사고의 현장에 사랑을 보낸다

발렌시아 뉴스그룹 보도

스페인 매체 보도에 따르면 7월 3일 오후 1시에 스페인 발렌시아(Valencia)의 예수 역과 에스파냐 광장 역 사이에서 지하철이 탈선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 사고로 41명이 사망하고 3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소식을 접하고 희생자들을 크게 걱정하신 자비로운 스승님은 즉시 스페인 동수들에게 부상자들을 위문하라고 지시하셨다. 본부의 긴급 지시를 받은 스페인 동수들은 곧바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적십자사에서 이미 현장에 나와 긴급 구조를 하고 있었고 경찰들은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있는 상태였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그들은 필요 없다고 대답했다. 전국 각지에서 온 매체 기자들도 봉쇄 지역에 들어갈 수 없어서 바깥에서 후속 소식을 기다려야만 했다. 이날 날씨가 찜통처럼 더웠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준비해 온 56개의 도시락과 생수를 기자들에게 나눠 주었다. 그들은 매우 놀라면서 자기네들까지 챙겨 줄 사람이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진작부터 배가 고팠던 듯 많은 기자들이 그 자리에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어떤 기자는 마드리드에서 서너 시간을 운전해서 급하게 달려 왔는데 현장에서 새로운 소식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어 음식에 신경을 여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동수들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라고 인쇄된 눈에 띄는 노란 조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마드리드에서 온 한 TV 방송국(Telemadrid)에서 우리를 인터뷰하러 왔다. 그들은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면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온 것인지 물었다. 신문 기자들도 우리를 인터뷰했다. 동수들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회원이라고 소속을 밝히고선 우리가 칭하이 무상사의 자비로운 가르침에 따라 전세계에서 많은 인도주의 활동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자들이 제일 먼저 뉴스를 보도하기 위해 고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가능하면 어떤 도움이든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중에 그 기자들은 대중에게 스승님과 우리 협회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단체의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번 활동에서 부상자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스승님의 자비와 사랑, 축복을 현장에 가져다 주었다. 또한 기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스승님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 ㄹ





## 단오절에 노숙자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전하다

포모사 타이베이 뉴스그룹 정리 (원문 중국어)

단오절 전날 밤, 타이베이 센터 동수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 노숙자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우리는 옷을 기증하는 한편 타이베이 시 중허 노숙자 쉼터와 ‘평안의 집’ 노숙자 보호소에서 영성 세미나를 개최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 중정 사회복지 센터

황금시대 3년(2006년) 5월 26일 오전, 우리는 타이베이 시 정부 사회복지국의 중정 사회복지 센터를 방문해 남성용 여름 옷과 수건, 반창고, 요오드팅크, 쿵푸화, 뉴스잡지를 기증했다. 대표로 물품을 수령한 관리 소장인 저우전링 감독관과 사회복지사 양 선생은 오랜 기간 노숙자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또한 노숙자들이 환절기마다 이런 사려 깊은 생활 물품과 영혼을 고양시키는 선물을 받고 기뻐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사회국 직원들도 쿵푸화는 부드럽고 가볍고 튼튼해서 노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류라고 말했다.



### 완화 사회복지 센터

이날 오후에는 타이베이 시 완화 사회복지 센터를 찾아 남성용 여름 옷과, 비누, 수건, 쿵푸화, 뉴스잡지 등의 물품을 전달했다. 사회복지사 장셴중 씨가 노숙자들을 대표해 선물을 받았다. 이 증정식이 있기 직전 한 노숙자가 이 보호소를 찾아와 목욕한 후 깨끗한 옷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그 상황을 눈여겨보던 장 선생은 옷 상자를 받는 즉시 그에게 알맞은 옷과 신발을 찾아내 건네 주었다. 우리는 보모처럼 자애롭게 돌보는 그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 중허 노숙자 쉼터의 영성 세미나

5월 29일, 동수들은 노숙자들이 풍성하고 즐거운 단오절을 보내길 바라며 갖가지 여름 옷과 선물 꾸러미, 가피물, 스승님의 출판물, 그리고 20여 가지의 채식 음식을 준비해 타이베이 시 중허 노숙자 쉼터를 방문했다. 간단하면서도 엄숙한 기증식에서 '자비 박애원'의 위즈닝 부소장이 대표로 수령하고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그는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가 오랫동안 이곳 거주자들에게 생필품을 제공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정신적 위안과 용기를 준 것에 매우 고마워했다.



동수들이 맛있는 채식 음식을 다 차리자 거주자들은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린 채 무엇부터 먹어야 할지 고민했다. 심지어 한 남자는 감격한 나머지 눈물을 흘리며 이처럼 풍성한 음식은 지금껏 보지 못했다고 했다. 오후에 동수들이 노래방 시간을 만들자 많은 노숙자들이 참여해 소리 높여 노래를 불렀고 판 소장도 그 대열에 합류했다. 그 뒤 우리가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를 보여주자 모두들 주의 깊게 시청했다.

판 소장은, 자신은 신을 믿으며 어려서부터 집에서 키운 가축은 먹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날 스승님의







비디오를 본 뒤로 육식을 줄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또한 그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함으로써 자비심을 키우도록 격려했다. 이 센터에서는 한동안 완전 채식을 제공할 수 없었지만, 그곳의 많은 노숙자들이 방법법을 배우고 싶어했다. 그래서 동수들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빨리 수행을 시작해 해탈할 수 있도록 스승님께 기도해 보도록 권했다.

장씨 성을 가진 한 여자 노숙자는 다리가 불편해서 걸을 때마다 힘들어했지만 노래방 시간에는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당신은 어디에 계신가요?'라는 노래를 부를 때 훌쩍이기 시작하며 스승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며 그분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 닿아서 울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녀의 특별 요청에 따라 동수들은 나중에 연고와 옷, 쿱화 두 켤레를 부쳐 주었다. 우리가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려 하자 그녀는 우리에게 가지 말라며 언제 다시 오는지 계속해서 물었다. 우리는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가 그들을 감동시켰음을 느낄 수 있었다.

## 돌봄의 집

5월 29일, 타이베이 현 자원봉사 협회와 노숙자 갱생 보호소인 '돌봄의 집'의 자원 봉사자 대표 세 명이 우리 타이베이 센터에 들러 노숙자들에게 전하는 남자용 여름 옷 일곱 상자를 받아 갔다. 그 중 한 명인 청 선생은 아주 정중하게 말하길, '돌봄의 집' 식구들과 타이베이 현 노숙자들은 오랫동안 칭하이 무상사와 동수들의 지원과 보살핌을 받아 왔으며, 지난번 동수들이 방문해 방법법을 가르쳐 준 뒤로 (뉴스잡지 168호 기사 참고) 모두들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곳 노숙자들이 새로운 삶을 일구기 위해 밭을 넓히고 각종 채소를 심어 '돌봄의 집'에서 방법법을 수행하고 채식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모두들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려 주었다. 또한 그들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스승님과 동수들의 사랑과 보살핌에 감사했다!



## 노동국 취업 지원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노숙자들의 취업을 돕고 계절에 맞는 옷을 제공하기 위해 5월 30일 타이베이 현 노동국 취업 지원 센터를 방문해 노숙자들이 면접을 볼 때나 일할 때 입을 새 평상복과 테니스화, 양말, 속옷, 수건, 면도기, 칫솔, 치약 등이 포함된 많은 물품을 전달



했다. 이 센터의 부주임인 천리위안 여사는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사려 깊은 마음과 친절에 감사하며 국제협회의 도움으로 노숙자들이 면접을 볼 때 더욱 자신감을 갖고 고용 기회를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라 노숙자와 사회복지사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 ‘평안의 집’ 갱생 보호소의 영성 세미나

5월 30일 동수들은 타이베이 현 노숙자 갱생 보호소인 ‘평안의 집’을 방문했다. 우리를 맞이한 천주교 마 신부는 우리의 따뜻한 관심에 고마워했다. 우리는 풍성한 채식 도시락과 단오절 종즈, 간식용 과일바구니, 사탕, 과자, 가피물 선물 꾸러미, 홍차, 스승님의 출판물을 가져갔다. 채식 점심 식사를 즐기는 동안 우리는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를 상영했다. 모두들 스승님의 가르침에 동감했으며 많은 사람이 방법법을 배우고 싶어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주고 우리 센터를 방문하도록 권했다.



6월 2일 ‘평안의 집’에 있는 두 노인이 스승님의 가르침과 방법법에 대해 좀더 알아보고자 센터를 찾아왔다. 그들은 스승님의 아름다운 사진을 보고 많이 구매했다. 그 중 한 분은 몸이 좀 좋아지면 밖에 나가 일도 하고 날마다 채식을 하겠다고 말했다. ‘평안의 집’ 음식은 담당자가 외부에서 주문하는 것이어서 채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신께서 이들의 바람을 들으셨는지 채식을 하는 자원봉사자 왕 선생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평안의 집’에서 매일 음식을 주문할 때 채식 도시락도 몇 개씩 주문하도록 알려 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두 노인과 방법법을 배우고 싶어하는 다른 친구들이 아주 빨리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 🍀





# 스승님의 사랑으로 재소자들의 삶을 밝히다

대구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안동과 대구 동수들은 정기적으로 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들에게 스승님의 빛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 또한 매년 특별 행사를 개최해 선물과 맛있는 채식을 제공한다.

황금시대 3년(2006년) 5월 19일, 안동과 대구 동수들은 '따뜻한 정과 사랑을 나눕니다'라는 연례 위문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주로 몇 년 동안 아무도 면회 오는 사람이 없고 가족에게조차 외면당해 정과 사랑에 굶주린 40명의 장기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행사를 위해 사형 사저들은 옷, 사탕, 과자와 견본 책자, 뉴스잡지, '대안적인 삶' 전단 등 스승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선물 꾸러미를 준비했으며 갖가지 채식 음식도 풍성하게 마련했다.

방문 당일, 하늘에서 축복의 비가 내리는 가운데 행사가 시작되었다. 동수들은 서류 작성과 신분 증명 등의 복잡한 수속을 거쳐 몇 겹의 철문을 지난 뒤에야 교도소 안에 있는 강당에 들어설 수 있었다. 재소자들은 바깥 세상과 철저히 격리되어 있었다! 동수들은 우리 협회를 간단히 소개하고 영혼을 위로하는 말을 전한 후 좁은 감방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요가 체조를 소개했다. 점심 시간엔 동수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맛있는 채식 도시락을 제공했다. 동수들은 그들과 같이 점심을 먹고 싶어했지만 교도소 측에서 엄격하게 분리했다. 교도관은 이들이 더 이상 앓을 게 없는 사람들이라 무슨 일이든 생길 수 있어서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수들은 작년의 경험으로 음식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알고 올해는 충분히 준비했다. 재소자들은 갖가지 맛있는 채식 요리를 마음껏 즐겼다. 그들은 이 음식이 평소 먹는 음식보다 훨씬 맛있다고 했다. 특히 신선한 과일들을 좋아해서 눈 깜짝할 새에 큰 수박 10통이 사라졌다. 얼굴에 나타난 웃음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기쁜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그저 음식이 맛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날 그들이 정성어린 돌봄과 관심을 받았다는 것이다. 재소자들은 동수들의



안동 교도소 앞에서.



간단한 요가 체조를 소개하다.




동수들이 공연과 노래를 하다.



깜짝 선물에 매우 고마워했으며 아주 기쁘게 견본책자와 뉴스잡지를 읽었다.

동수들은 점심 시간 후 간단한 공연을 마련했다. 성악을 전공하는 사제가 몇 곡을 부른 뒤 다른 동수들이 바이올린과 하프 연주를 했다. 모든 동수들이 노래방 기계에 맞추어 노래를 하자 재소자들이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고 몇 번이나 앙코르를 요청했다. 그 순간 동수들은 그들과의 장벽이 사라지고 모두가 하나 되는 느낌을 받았다.

허락된 두 시간은 쏠살같이 흘렀다. 모두들 시간이 너무 짧은 것에 아쉬워하며 다음 만남을 기대했다. 손을 흔들면서 전송하는 재소자들의 얼굴에는 깊은 고마움이 떠올라 있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고 겹겹이 많은 제한도 있었지만 재소자들은 즐거운 노래와 스승님의 사랑 속에 행복하게 웃을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 기회를 통해 세상에서 격리된 외로운 사람들에게 기쁨과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해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리며 신의 사랑이 늘 그들과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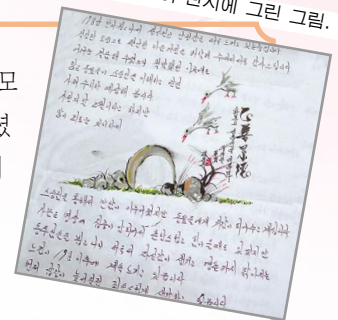
## 재소자들의 감사 편지

“19일날 만나 뵈고 나서 정신적인 안정감을 더욱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편안한 마음가짐을 허락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걸음을 해 주셨으니 척박했던 이곳에도 많은 동료들이 스승님을 이해하고 관심 가져 주리라 예상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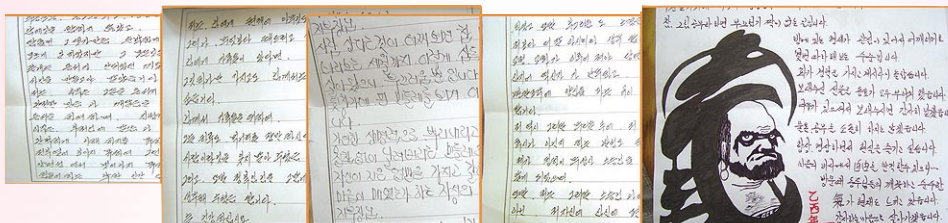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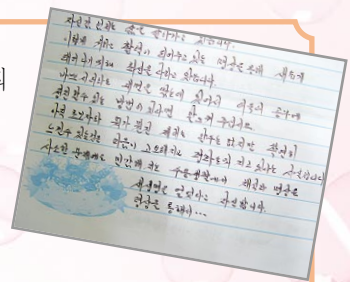
가정의 달 5월이라고 하지만 많이 외로운 곳이라서 스승님을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졌지만 동료들에게 귀감이 되어 주고 계십니다.

가끔은 명상에 집중이 안 되어서 혼란스럽고 힘이 들 때도 있었지만 동수님들을 뵈고 나니 더욱 더 자신감이 생기고 영혼까지 맑아지는 느낌이 19일 이후에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재소자들이 편지에 그린 그림.



“이렇게 귀하고 활력이 되어 주고 있는 명상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내면을 닦는 데 있어서 더욱 더 공부에 정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아직 초보자라 뭐가 뭔지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확연히 느낄 수 있는 것은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소한 문제에도 민감해지는 수용 생활에서 채식과 명상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고 자신합니다...”



재소자들의 감사 편지.



## 한 사람 한 사람 이어지는 신의 사랑

호주 브리즈번 뉴스그룹 (원문 영어)


어느 추운 아침, 버스 운전기사인 한 사형이 브리즈번 한 시내에 차를 댔다. 막 운행을 마친 그는 다음 차례 운행에 앞서 잠시 휴식을 취할 참이었다.

그때 한 건물의 입구에서 담요 한 장만 덮은 채 자고 있는 남자가 눈에 띄었다. 즉시 그에게 다가가 가볍게 말을 건넸다. “밖에서 자려는 거예요?” 그러자 남자는 “맞아요. 캠핑 중이에요.” 하고 농담처럼 답했다. 잠시 대화를 한 뒤 사형은 그가 가정 문제로 집을 나와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돈도, 갈 곳도 없었던 그는 거리로 나오는 수밖에 없었다.

대화 중에 이 남자가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형은 최대한 그를 위로해 주었다. 그러면서 그가 현재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임금을 받으려면 며칠 더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불쌍한 사람은 오갈 데도 없었을 뿐더러 먹을 것이나 따뜻한 옷을 살 돈도 없는 상태였다. 이에 사형은 갖고 있던 돈을 모두 그에게 주었다. 호주 달러로 20달러였다.

그 남자는 행복해하며 한시름을 놓고 아주 고마워했다. 그는 계속해서 사형에게 감사하다고 하며 돈을 갚겠다고 말했다. 사형은 돈 갚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정말로 그 20달러를 갚고 싶다면 돈이 생겼을 때 불우 이웃을 돕거나 아니면 자신이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고 말했다.

일주일 뒤 이른 아침에 사형은 같은 버스 정류장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는 면도를 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고 출근하는 중이었다. 그 남자는 사형을 알아보고선 다시 한 번 감사하며 그때 받은 20달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려 주었다. 그는 몇 끼니 분의 식량을 샀고 자선 단체인 세인트 빈센트(St. Vincent)에서 담요 몇 장과 옷을 사서 임금을 받을 때까지 며칠을 견뎌왔다고 한다. 생활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자 그는 다른 사람에게 사형과 똑같이 행했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에게 20달러를 주면서 자신도 어려웠을 때 20달러를 받았으며 이후 형편이 괜찮아지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선행을 베풀라는 말을 들었다고 얘기해 주었다. 그러면서 그가 상대방에게 가능하다면 그 역시 다른 이에게 똑같이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상대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사형은 그의 행동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 남자를 도움으로써 자신이 신의 사랑을 전달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일을 통해 그 사람은 새롭게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돕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거지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로 변모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혼이 풍요로워졌기 때문이다. 



다음 명단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는 훌륭한 나라에 있는 연락인과 연락처입니다.  
여러분의 지역에 연락인이 없다면 우리 본부나 가장 가까운 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 전세계 연락처

P.O.Box 9, Hsihu, Miaoli 36899, Formosa, R.O.C.  
P.O.Box 730247, San Jose, CA 95173-0247, U.S.A.

### ■ 아프리카 ■

★ 앙골라: 센터/ 244-923-338082/ luandacentre@yahoo.com  
★ 베냉: 센터/ 229-21-383982/ smbenin@yahoo.fr  
★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 센터/ 226-50-341704/ smburkinafaso@yahoo.fr  
★ 카메룬: 두알라 센터/ 237-3-437232/ smcameroon@hotmail.com  
★ 콩고민주공화국: 칸사사 센터/ 243-810583010/ blessedcongo@yahoo.fr  
★ 가나: 센터/ 233-277607-528/ smghanac@yahoo.com  
★ 케냐: 센터/ 254-726944744/ smoothgoing@gmail.com  
★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Mr. Eric Razahidah/ 261-33-1115197/ hidahrza@yahoo.fr  
★ 모리셔스: 포트루이스/ Mr. Liang Dong Sheng/ 230-2566286  
포트루이스/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smchmauritus@intnet.mu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요하네스버그/ Mr. Gerhard Vosloo/ 27-82570-4437/ ghvosloo@mweb.co.za  
요하네스버그/ Ms. Khena Refiloe Truelove/ 27-83-5014853/ emzinikababe@yahoo.com  
★ 토고: 팔리메/ 센터/ 228-4-410-948  
로메/ 센터/ 228-2-222-864/ smtogo@yahoo.com  
로메/ Mr. David Chine/ 228-2-215-551  
★ 우간다: 캄팔라/ Mr. Samuel Luyimbaazi/ 256-7764-9807/ semazima@yahoo.com

### ■ 아메리카 ■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regresandoacasas25@yahoo.com.ar  
★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M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301758/ adamunhoz@hotmail.com  
트리니다드/ Mr. Wu Chao Shien/ 591-4625964  
★ 브라질: 벨ém/ Mr. Wei Cheng Wu/ 55-91-32234424, 55-91-3274661/ belemcenter@yahoo.com.br  
고이아니아/ Mr. & Mrs. Erwin Madrid/ 55-62-3941-4510/ erwinerrano@terra.com.br  
레시페/ 센터/ RecifeCenter@click21.com.br  
레시페/ Ms. Maria Vasconcelos de oliveira/ 55-81-3326-9048/ mariaoliveira\_cultural@click21.com.br  
레시페/ Ms. Monica Tereza Nogueira/ 55-81-8742-3431, 55-81-3304-0452  
상파울루/ 센터/ 55-11-5904-3083, 55-11-5579-1180/ br\_center@yahoo.com.br  
★ 캐나다: 에드먼튼/ Mr. Brian Hokanson/ 1-780-444-6568  
에드먼튼/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anh2sd@hotmail.com  
런던/ 센터/ 1-519-933-7162/ uniself@yahoo.com  
몬트리올/ 센터/ 1-514-277-4655/ smchmontreal@sympatico.ca  
몬트리올/ Ms. Euchariste Pierre/ 1-514-481-9816/ p\_euchariste1@sympatico.ca  
몬트리올/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thehungnguyen@sympatico.ca  
오타와/ Mr. Jianbo Wu/ 1-613-829-5668/ jianbowu2002@yahoo.ca  
오타와/ Ms. Jean Agnes Cambell/ 1-613-839-2931/ jean.quanyin@gmail.com  
토론토/ 센터/ 1-416-503-0515  
토론토/ Ms. Dlep Hoa/ 1-905-828-2279/ hoadlep0723@yahoo.com  
토론토/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hiepham@rogers.com  
토론토/ 연락인 사무실/ torontocontact@yahoo.ca  
밴쿠버/ Ms. Li-Hwa Liao/ 1-604-541-1530/ jsung2277@yahoo.ca  
밴쿠버/ Ms. Shella Coodin/ 1-604-580-4087/ qycontactperson@yahoo.ca  
밴쿠버/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yentinguyen2002@yahoo.com  
★ 칠레: 라세레나/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451019/ laserenacenter@hotmail.com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1@yahoo.com  
산티아고/ Mrs. Millaray Lizana Lizana/ 56-2-4544278/ millaraynoemi@yahoo.com  
산티아고/ Mrs. Jacqueline Barrientos/ 56-2-3147788/ jackybarrientos@gmail.com  
★ 콜롬비아: 보고타 센터/ 57-1-2712861/ luzdelsonido@yahoo.com  
★ 코스타리카: 산호세/ 센터/ 506-2200-753

산호세/ Ms. Laura Chen/ 506-3632-748/ lauracmesa401@hotmail.com  
★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Ms.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 멕시코: 멕시코주/ 연락인 사무실/ 52-55-5852-1256/ texcenter@gmail.com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al Suflo/ 52-8-18104-1604/ monterreycenter@yahoo.com.mx  
★ 니카라과: 마나과/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pastora7iglesia@yahoo.com  
★ 파나마: 파나마/ 센터/ 507-236-7495  
파나마/ Ms. Maritza E. R. de Leone/ 507-6673-2220/ mrleone2@yahoo.com  
★ 파라과이: 아순시온/ Ms. Emilee Cespedes Gimenez/ 595-21-523684/ ec\_py2002@yahoo.com.ar  
★ 페루: 아레키파/ Mr. Julio Cardenas Pelizzari/ 51-54-453828/ qyarequipa@yahoo.com  
쿠스코/ Ms. Patricia Kross Canal/ 51-84-232682/ cuscoentro@yahoo.com  
리마/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4667737/ edyter@viabcp.com  
리마/ Mr. Victor Carrera/ 51-1-2650310  
푸노/ Ms. Mercedes Rodriguez/ 51-54-353039/ punocentropetu@yahoo.es  
투루하요/ Mr. & Mrs. Raul Seugra Prado/ 51-44-221688/ rsp\_trujillo@hotmail.com  
★ 미국: \* 애리조나: 센터/ 1-602-264-3480  
애리조나: Mr. & Mrs. Kenny Ngo/ 1-602-404-5341/ kennynngoaz@hotmail.com  
\* 아칸사스: Mr. Robert Jeffreys/ 1-479-253-8287/ bobedj@cox.net  
\* 캘리포니아: 프레스노/ Ms. Frances Lozano/ 1-559-322-9793/ estudios62301@yahoo.com  
로스앤젤레스/ 센터/ 1-951-674-7814  
로스앤젤레스/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tlin54@hotmail.com  
로스앤젤레스/ Mr. Gerald Martin/ 1-310-836-2740/ gmartin0999@hotmail.com  
로스앤젤레스/ Ms. Chiem, Mai Le/ 1-714-924-5327/ smlw31@yahoo.com  
세크라멘토/ 센터/ saccenter@gmail.com  
샌디에이고/ 센터/ 1-619-280-7982/ quanyinsd@juno.com  
샌디에이고/ Mr. & Mrs. Tran Van Luu/ 1-619-475-9891  
샌프란시스코/ 센터/ khoaluong@aol.com  
샌프란시스코/ Mr. & Mrs. Khoa Dang Luong/ 1-415-753-2922  
샌프란시스코/ Mr. & Mrs. Dan Hoang/ 1-415-333-9119/ sfcenter@hotmail.com  
세인트루이스/ Ms. Sophie Lapaire/ 1-650-464-8066/ Margorifico@yahoo.com  
세인트루이스/ Mr. Loc Petrus/ 1-510-813-2300/ petrul2k4@gmail.com  
\* 플로리다: \* 플로리다: 케이프코랄/ Mr. & Mrs. Thai Dinh Nguyen/ 1-239-458-2639/ CapeCoralCenter@Gmail.com  
케이프코랄/ Ms. Trina L. Stokes/ 1-239-433-9369/ moonwater33957@yahoo.com  
올랜드/ Mr. Michael Stephen Blake/ 1-407-333-0178/ smch\_orlando@yahoo.com  
\* 조지아: Mr. James Collins/ 1-770-294-1189/ georgiacenter@hotmail.com  
\* 조지아: Mr. Roddell Pleasants/ 1-678-429-7958  
\* 조지아: Ms. Kim Dung Thi Nguyen/ 1-404-422-1431  
\* 하와이: 센터/ 1-808-735-9180/ hawaiictr@hotmail.com  
\* 하와이: Mrs. Dorothy Kaomi Sakata/ 1-808-988-6059/ DorothySakata@aol.com  
\* 일리노이: Mr. Tran, Cao-Minh Lam/ 1-773-506-8853/ caominhtran@yahoo.com  
\* 인디애나: Ms. Josephine Poellnitz/ 1-317-842-8119/ josiepoeb@sbcglobal.net  
\* 캔자스: 프랭크퍼트/ 센터/ kycenter2000@yahoo.com  
프랭크퍼트/ Mr. & Mrs. Nguyen Minh Hung/ 1-502-695-7257/ Fuji.Nguyen@ky.gov  
\* 루이지애나: Mr. John L. Fontenot/ 1-504-914-3236/ jlfontenot@hotmail.com  
\* 메릴랜드: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marylandcenter@yahoo.com  
\* 메사추세츠: 보스턴/ 센터/ 1-978-528-6113/ bostonctr17@yahoo.com  
보스턴/ Ms. Gan Mai-Ky/ 1-508-842-0262



보스턴/ Mr. & Mrs. Huan-Chung Li/ 1-978-957-7021  
 \* 미시간: Mr. Martin John White/ 1-734-327-9114/ mading02000@yahoo.com  
 \* 미네소타: Ms. Quach Ngoc/ 1-612-722-7328/ quachmn@yahoo.com  
 \* 미주리: 물라/ Mr. & Mrs. Genda Chen/ 1-573-368-2679/ gchen@umr.edu  
 \*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Ms. Helen Wong/ 1-702-242-5688  
 \* 뉴멕시코: Mr. & Mrs. Nawarskas/ 1-505-342-2252/ nawarskas@comcast.net  
 \* 뉴저지: 센터/ 1-973-209-1651/ NJCenter@gmail.com  
 \* 뉴저지: Mr. Hero Zhou/ 1-617-794-8282/ yb\_zhou@hotmail.com  
 \* 뉴저지: Ms. Lynn McGee/ 1-973-864-7633/ lynn.mcgee@yahoo.com  
 \* 뉴저지: Ms. Bozena Chetnik/ 1-732-986-2907/ bozena\_chetnik@yahoo.com  
 \* 뉴욕:  
 뉴욕/ Mr. & Mrs. Zhihua Dong/ 1-718-567-0064/ dong@physics.columbia.edu  
 로체스터/ Ms. Debra Couch/ 1-585-256-3961/ dcouch@rochester.rr.com  
 \* 노스캐롤라이나: Mr. & Mrs. Huynh Thien Tan/ 1-704-535-3789/ northcarolinacenter@hotmail.com  
 \* 오크하임:  
 해밀턴/ Mr. & Mrs. Vu Van Phuong/ 1-513-887-8597/ ohiocenter@yahoo.com  
 \* 오를레앙: Mr. & Mrs. Tran Kim Lam/ 1-405-632-1598/ ltran2292@yahoo.com  
 \* 오리건:  
 포틀랜드/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oregon\_center90@yahoo.com  
 포틀랜드/ Ms. Youping Zhong/ 1-503-257-2437/ youping320@yahoo.com  
 \* 펜실베이니아: Mr. & Mrs. Diep Tam Nguyen/ 1-610-931-4699/ DiepAshleyPa@aol.com  
 \* 펜실베이니아: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 텍사스:  
 오스틴/ 센터/ 1-512-396-3471/ jldawu@yahoo.com  
 오스틴/ Mr. Dean Duong Tran/ 1-512-989-6113/ trandungdean@yahoo.com  
 달라스/ 센터/ 1-214-339-9004/ DallasCenter@yahoo.com  
 달라스/ Mr. Tim Mecha/ 1-972-395-0225/ t.mecha@comcast.net  
 달라스/ Mr. Weidong Duan/ 1-972-517-5807/ water96@yahoo.com  
 달라스/ Mr. Jimmy Nguyen/ 1-972-206-2042/ jimmyh.nguyen@yahoo.com  
 휴스턴/ 센터/ 1-281-955-5782  
 휴스턴/ Ms. Carolyn Adamson/ 1-713-6652659/ cadamson@houston.rr.com  
 휴스턴/ Mr. & Mrs. Charles Le Nguyen/ 1-713-922-1492/ cuc-le@houston.rr.com  
 휴스턴/ Mr. & Mrs. Robert Yuan/ 1-281-251-3199/ ryuan@houston.rr.com  
 샌안토니오/ Mr. Khoi Kim Le/ 1-210-558-2049/ lethong@hotmail.com  
 \* 버지니아: 센터/ 1-703-941-0067  
 버지니아비치/ 센터/ 1-757-461-5531/ llem\_je23502@yahoo.com  
 버지니아비치/ Mr. & Mrs. Hua Phi Anh/ 1-703-978-6791/ anhhly@hotmail.com  
 \* 워싱턴:  
 시애틀/ Mr. Ben Tran/ 1-425-643-3649/ benptran@aol.com  
 시애틀/ Mr. Edward Tan/ 1-206-228-8988/ edtan@usa.com  
 \* 와이오밍: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sumaemo@yahoo.com  
 ★ 푸에르토리코:  
 카위/ Mrs. Dinsalda Hernandez Morales/ 1-787-262-1874/ disnsalda@caribe.net

■ 아시아 ■

★ 포모사:  
 타이베이/ 센터/ 886-2-2706-6168/ tpe.light@msa.hinet.net  
 타이베이/ Mr. & Mrs. Loh, Shih-Hung/ 886-2-27062628/ shloh@ndmctsg.edu.tw  
 미야오리/ Mr. & Mrs. Chen, Tsan-Gin/ 886-37-221618  
 미야오리/ Mr. Chu, Chen Pei/ 886-37-724726  
 가오슝/ Mr. & Mrs. Zeng, Huan Zhong/ 886-7-733-1441  
 ★ 홍콩:  
 홍콩/ 센터/ 852-27495534  
 홍콩/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sm\_hongkong@yahoo.com  
 ★ 인도네시아:  
 발리/ 센터/ 62-361-231-040/ smch\_bali@yahoo.com  
 발리/ Mr. Agus Wibawa/ 62-81-855-8001/ wibawa001@yahoo.com  
 자카르타/ 센터/ 62-21-6319068/ smch-jkt@ndnet.id  
 자카르타/ Mr. Tal Eng Chew/ 62-21-6319061/ cte@envirotec.co.id  
 자카르타/ Ms. Lie Ik Chin/ 62-21-6510715/ herlina@uei.com  
 자카르타/ Ms. Murniati Samarga/ 62-21-3840845/ hal@cbn.net.id  
 자카르타/ Mr. I Ketut P. Swastika/ 62-21-7364470/ ketut@sinarmas.co.id  
 말랑/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yudi\_wartono@telkom.net  
 말랑/ Mr. Henry Soekianto/ 62-341-325-832  
 매단/ Mrs. Merlinda Sjalluddin/ 62-61-4514656/ smch\_medan@hotmail.com  
 수라바야/ 센터/ 62-31-5612880/ ahimsasb@indosat.net.id  
 수라바야/ Mr. Harry Limanto Liem/ 62-31-594-5868/ harry\_l@sby.dnet.net.id  
 요그야카르타/ Mr. Augustinus Madyana Putra/ 62-274-411-701/ tadianingtyas@lycos.com  
 ★ 이스라엘: Mr. Yaron Adari/ yadari@freuk.com  
 ★ 일본: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divinalv@mth.biglobe.ne.jp  
 도쿄/ Ms. Yukiko Sugihara/ 81-90-6104-5770/ lotus@sky.plala.or.jp  
 도쿄/ Ms. Yoshie Takeda/ 81-90-3963-0755/ y-plus@f6.dion.ne.jp  
 ★ 대한민국:  
 출판사/ 042-543-9250/ chinghaikpt@yahoo.co.kr  
 영동/ 센터/ 054-532-5821/ houmri2@yahoo.co.kr  
 서울/ 센터/ 02-577-2158/ goldenseoul@yahoo.co.kr  
 서울/ 조영원/ 011-9670-5839/ seoulyoungwon@yahoo.co.kr

부산/ 센터/ 051-334-9205/ chinghaibusan@hanmail.net  
 부산/ 송호준/ 051-903-4552/ 011-599-4552  
 부산/ 황상원/ 051-805-7283  
 대구/ 센터/ 053-743-4450/ chinghaidaegu@hanmail.net  
 대구/ 김익현/ 053-633-3346  
 대구/ 한선화/ 053-746-5338  
 대구/ 차재현/ 053-856-3849  
 대전/ 센터/ 042-625-4801/ smdaeejeon@yahoo.co.kr  
 대전/ 도봉화/ 042-471-0763/ dbhs44463@yahoo.co.kr  
 전주/ 센터/ 063-274-7553/ shc5824@hanmail.net  
 전주/ 신현창/ 063-254-5824  
 광주/ 센터/ 062-525-7607  
 광주/ 조영대/ 061-394-6552/ smgwangju@naver.com  
 인천/ 센터/ 032-867-5351/ lighthundinchon@yahoo.co.kr  
 인천/ 이재문/ 032-244-1250  
 안동/ 센터/ 054-821-3043/ smandong@hanmail.net  
 안동/ 김상태/ 010-3929-1859  
 청곡/ 센터/ 054-673-1399

★ 라오스:  
 비엔티안/ Mr. Somboon Phetphommassouk/ 856-21-415-262/ sobophet@yahoo.com  
 ★ 마카오:  
 마카오/ 센터/ 853-532231/ mcdlove@yahoo.com.hk  
 마카오/ 연락인 사무실/ 853-532995  
 ★ 말레이시아:  
 알로르세타르/ Mr. Chiao-Shui Yu/ 60-4-7877453  
 조호르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6622518/ supreme2@tm.net.my  
 팔라렝푸르/ 센터/ 60-3-21453904/ klsmch@yahoo.com  
 팔라렝푸르/ Mr. Phua Kai Liang/ 60-12-3073002/ klnet23@yahoo.com  
 페낭/ 센터/ 60-4-2285853/ pgsmch@streamyx.com  
 페낭/ Mr. & Mrs. Lim Wah Soon/ 60-4-6437017  
 ★ 몽골:  
 울란바토르/ Ms. Erdenechimeg Baasandamba/ 976-11-310908/ baasandamba@yahoo.com  
 바가누르/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76-121-21174  
 ★ 미얀마: Mr. Sai San Aik/ 95-1-667427/ ssalkss@mptmail.net.mm  
 ★ 네팔:  
 카트만두/ 센터/ 977-1-4254-481/ chinghal\_kathmandu@hotmail.com  
 카트만두/ Mr. Ajay Shrestha/ 977-1-4473-558/ ajaystha@hotmail.com  
 포카라/ 센터/ 977-61-531643  
 포카라/ Mr. Bishnu Neupane/ 977-984-60-36423/ neupanebishnu@hotmail.com  
 ★ 필리핀: 마닐라 센터/ 63-917-474-9845/ manilach@hotmail.com  
 ★ 싱가포르:  
 싱가포르/ 센터/ 65-6741-7001/ chinghal@singnet.com.sg  
 싱가포르/ 연락인 사무실/ 65-6846-9237  
 ★ 스리랑카:  
 콜롬보/ Mr. Lawrence Fernando/ 94-11-2412115/ samantha\_nbt@zeynet.com  
 ★ 태국:  
 방콕/ 센터/ 66-2-674-2690/ bkck66@gmail.com  
 방콕/ Ms. Laddawan Na Ranong/ 66-1-8690636, 66-2-5914571/ edasnlad@stou.ac.th  
 치앙마이/ Ms. Sriwan Supatchamnan/ 66-50-332136/ sriwanily@gmail.com  
 콘겐/ 센터/ 66-43-378112  
 송크라/ 센터/ 66-74-323694

■ 유럽 ■

★ 오스트리아:  
 비엔나/ 센터/ 43-699-12272892/ Chinghai@gmx.at  
 비엔나/ Mr. Nguyen Van Dinh/ 43-2955-70535  
 ★ 벨기에:  
 브뤼셀/ Ms. Ann Goorts/ 32-472-670272/ qybelgium@yahoo.com  
 브뤼셀/ Mr. Ellen De Maesschalk/ 32-486-242248  
 ★ 불가리아:  
 소피아/ Mr. Ruslan Staykov/ 359-2-8575358/ wwwruslan@yahoo.com  
 플로브디프/ Mrs. Miglena Bozhikova/ 359-32-940726/ chinghaiplovdiv@yahoo.com  
 ★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51-251081/ zeljstar@inet.hr  
 ★ 체코:  
 프라하/ 센터/ 420-261-263-031/ czech-center@spojenisbohem.cz  
 프라하/ Mrs. Marcela Gerlova/ 420-608-265-305  
 ★ 덴마크: Mr. Thanh Nguyen/ 45-66-190459/ my@webspeed.dk  
 ★ 핀란드:  
 헬싱키/ 센터/ 358-50-596-2315/ helsinkicenter@yahoo.com  
 ★ 프랑스:  
 알사스/ Ms. Despretz Anne-Claire/ 33-3-89770607/ arclai@infonie.fr  
 아르데슈/ Ms. Reynet Jeanine/ 33-4-75376232  
 몽펠리에/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tich.hung@infonie.fr  
 파리/ 센터/ 33-1-4300-6282  
 파리/ Ms. Lancelot Isabelle/ 33-1-7069-3210/ llancelot@celestialfamily.net  
 ★ 독일:  
 베를린/ Mr. Grigori Guinzbourg/ 49-30-5498-6147/ Grigori.Guinzboung@gmx.de  
 베를린/ Ms. Thi Hoa Hoang/ 49-30-3083-4712/ Pureocean@web.de

튀스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203-4846374/ ngoc-thao.nguyen@gmx.de/dusseldorfcenter@hotmail.com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HamburgCenter@gmx.de  
 ★ **원렌**/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ChingHal@aol.com  
 원렌/ Ms. Kang Cheng/ 49-89-3616347/ lovesource8@yahoo.de  
 ★ **그리스**:  
 아테네/ Ms. Vicky Chrisikou/ 30-210-8022009, 30-6944-470094/ luckychrisikou@yahoo.gr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Mr. Kamlung Cheng/ 31-647838638/ kamlung27@hotmail.com  
 ★ **헝가리**: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budapestcenter@gmail.com  
 부다페스트/ Mr. Lehel Csaba/ 36-20-2400-259/ clehel@gmail.com  
 부다페스트/ Gabor Soha/ 36-20-221-5040/ gabor.soha@gmail.com  
 ★ **이탈리아**:  
 페스카라/ Bettina ADANK/ 39-085-454-9184/ bettina.adank@fastwebnet.it  
 ★ **아일랜드**:  
 더블린/ Mr. & Mrs. Bernard Leech/ 353-1-6249050/ dublinquanyin@yahoo.co.uk  
 ★ **노르웨이**:  
 오슬로/ Ms. Marte Hagen/ 47-64978762, 47-92829803/ marte.hagen@gmail.com  
 ★ **폴란드**: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azk/ 48-91-4874953/ gingal@wp.pl  
 바르샤바/ Ms. Elzbieta Ukleja/ 48-22-8367814/ elzbieta\_q1@yahoo.com  
 ★ **포르투갈**:  
 레이리아/ Mr. Antonio Jose Vieira Caldeira/ 351-2625-97924/ alcoa\_center@hotmail.com  
 ★ **루마니아**: 부차레스트/ 센터/ bucharestoy@yahoo.com  
 ★ **러시아**:  
 모스크바/ Mrs. Leera Gareyeva/ 7-095-732-08-32/ moscowcenter@rambler.ru  
 ★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센터/ 386-1-518-2542/ quanyin@siol.net  
 류블랴나/ Mr. Janez Pavlovic/ 386-41-320-268/ janez.pavlovic@siol.net  
 마리보/ Mr. Rastislav Alfornz Kovacic/ 386-3-581-4981/ rast05alfornz@yahoo.com  
 ★ **스페인**:  
 마드리드/ Ms. Lidia Kong/ 34-91-547-0366  
 마드리드/ Mr. Claudio Octavio Silva Zuniga/ 34-667090831/ claudiosilvachile@yahoo.es  
 발라가/ Mr. Wang Ya-King/ 34-95-235-1521  
 발렌시아/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발렌시아/ Mr. Yu Xi-Qi/ 34-96-3301778/ valenciachinghal@yahoo.es  
 ★ **스웨덴**:  
 영엘름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Angelholmswe@yahoo.com  
 오프/ Ms. Viveka Widlund/ 46-647-32097/ smchsweden@yahoo.se

스톡홀름/ Mr. Mats Gigard/ 46-8-882207/ mats.gigard@telia.com

#### ★ 스위스:

제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fengli@lo.org

제네바/ Ms. Klein Ursula/ 41-22-369-1550/ ursula\_klein@bluewin.ch

#### ★ 영국 연방:

\* 잉글랜드:

입스위치/ Mr. Shahid Mahmood/ 44-1473-436961/ shahidocean@hotmail.com

런던/ 센터/ 44-2088-418866/ pnl@matters19.freeserve.co.uk

런던/ Mr. Nicholas Gardiner/ 44-2089-773647

런던/ Mrs. C Y Man/ 44-1895-254521/ chuk\_yee\_man@hotmail.com

스트록온트렌트/ Mrs. Janet Weller/ 44-1782-866489/ j.weller4@ntworld.com

서리/ Mr. C. W. Wo/ 44-1293-416698/ stmchwo@hotmail.com

\*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lillig2002@yahoo.co.uk

#### ■ 오세아니아 ■

#### ★ 호주:

애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leonadelaide@hotmail.com

브리즈번/ 센터/ briscentre\_en@yahoo.com.au

브리즈번/ Mr. Gerry Bishop/ 61-7-3901-6235

브리즈번/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ctieng\_briscentre@yahoo.com.au

브리즈번/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dlch136@hotmail.com

캔버라/ Mr. Hoang Khanh/ 61-2-6259-1993/ smcanberra@hotmail.com

멜버른/ 센터/ melbsmch@aol.com

멜버른/ Mr. & Mrs. Rob Nagtegaal/ 61-3-5282-4431/ rosrobbery@aol.com

멜버른/ Mr. Phong Minh Tan Do/ 61-3-9850-2553/ phongloveme@yahoo.com

멜버른/ Mr. Alan Khor/ 61-3-9857-4239/ ckhor@netspace.net.au

퍼스/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daveb@inet.net.au

퍼스/ Mr. Ly Van Tri/ 61-8-9242-2848

시드니/ Mr. Ly An Thanh/ 61-2-9823-8223/ anbinh\_sydney@yahoo.com.au

시드니/ Mrs. Kathy Divine/ 61-2-9891-5609/ universallove22@yahoo.com.au

태즈메이니아/ Mr. Raymond Dixon/ 61-3-62314420/ ray\_jule@bigpond.net.au

#### ★ 뉴질랜드:

오클랜드/ Mrs. Noelyne No Thi Ishibasi/ 649-277-9285/ takahide@xtra.co.nz

오클랜드/ Mr. Peter Morrin/ 64-9-579-2452/ ptr@ihug.co.nz

오클랜드/ Mr. Chang Jen-Hor/ 64-9-2749298/ changjenhor@yahoo.com

크라이스트처치/ Mr. Michael Lin/ 64-3-343-6918/ nzchchsmch@yahoo.com.au

해밀턴/ Mr. Glen Vincent Prime/ 64-211399934/ hamnzcont@yahoo.co.nz

넬슨/ Ms. Sharlene Lee/ 64-3-539-1313/ shale@ihug.co.nz

\* 전세계 연락처는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연락처를 확인하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 www.Godsdirectcontact.org.tw/eng/cp/index.htm](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cp/index.htm)

## TV 프로그램 '예술과 영성' 비디오테이프

이메일: TV@Godsdirectcontact.org

## SM 경서팀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

팩스: 1-240-352-5613/ 886-949-883-778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

팩스: 886-946-730-699

## SM 보석 주식회사

이메일: smcj@mail.sm-cj.com

전화: 886-2-8791-0860

팩스: 886-2-8791-1216

<http://www.sm-cj.com>

## 온라인 천상의 상점

<http://www.thecelestialshop.com>

## 뉴스그룹

이메일: lovenews@Godsdirectcontact.org

팩스: 1-801-740-9196/ 886-946-728-475

## 포모사 타이베이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886) 2-8787-3935

팩스: (886) 2-8787-0873

<http://www.smchbooks.com/>

## 대한민국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kpt@yahoo.co.kr

전화: 042-543-9250

팩스: 042-543-9258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 대한민국 청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hounmri21@yahoo.co.kr

전화: 054-532-5821

팩스: 054-532-5822

(해피요기, SM 보석, 천의·만세등·그림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영동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 최고로 영광된 사랑

종페이/ 포모사 타오위안 (원문 중국어)



스승님께서 전세계 중생들의 영적 등급을 끌어올리신 이후로 나는 스승님께서는 오는 모든 메시지에 특별한 관심을 두었다. 그리고 스승님의 보석 디자인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로 영광된 사랑’이라 이름 붙여진 보석에 큰 관심이 갔다. 그건 내가 예수님을 매우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비할 데 없이 아름답고 훌륭한 이 예술 작품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 즉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일을 떠올리게 된다. 내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예수님의 핏방울(빨간 루비)은 우리 모두를 위한 그분의 위대한 사랑이다.

스승님을 따라 관음법문을 수행한 이후 나는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목적을 보다 명확히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진정한 품성의 본질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법을 배우면서 이생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다. 이 사랑과 희생 정신은 우리 스승님께서 그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 주신 모범이었다. 그래서 내 안에서는 이 보물을 소유해서 나 자신을 일깨우는 도구로 삼고 싶은 강한 열망이 생겨났다.

스승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천상의 보석을 다시 주문할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들렸다! 와, 정말 기쁜 소식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주문서를 작성하면서 나는 속으로 ‘스승님께서 이 보물을 곧 갖게 해주실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그런데 그 후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며칠 후 ‘최고로 영광된 사랑’ 하나가 재고로 남아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내 평생 최고의 행운으로, 나는 2006년 새해 첫 번째 일요일에 ‘최고로 영광된 사랑’을 신의 가장 큰 새해 선물로 받게 되었다.

이 성스런 보석을 처음 착용한 순간부터 바로 편안하고 안전한 느낌이 들었고 매우 만족스러웠다. 또한 삶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더욱더 많은 통찰력과 축복을 얻었다. 그건 ‘신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며 이생이 끝날 때까지 매순간마다 명상하고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라는 것’이었다.

위대한 성인인 타고르의 말씀 중에 ‘삶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우리는 그것을 내어줌으로써 얻는다’라는 말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은 그저 신께 다가가려는 갈망의 마음뿐이었지만 내게 돌아온 것은 무한한 신의 축복이었다. 그리고 나의 내면에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이 형용할 수 없는 느낌들을 사랑하는 스승님에 대한 깊은 감사로 바꾸는 것뿐이다. 🌹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CD

CD-CG10 (중국어)

### 수행자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간다

1988. 11. 26. 포모사 시후 센터 단체명상

#### 주요 내용:

희생 정신은 수행의 진보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대부분의 중생들이 전능하신 신, 또는 감응하시는 부처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면서도 고해(苦海) 속에 윤회하며 생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은? 이 CD에서 스승님은 동수들에게 수행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길 희망하신다. 또한 수행자가 왜 수행의 힘을 이용해 덧없는 것을 구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상기시키신다. “우리의 마음이 단순하고 순수할수록 힘과 공덕, 그리고 이른바 ‘신통력’이라는 것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우리의 지혜는 쓰면 쓸수록 더욱더 계발됩니다. 반면 쓰지 않으면 계발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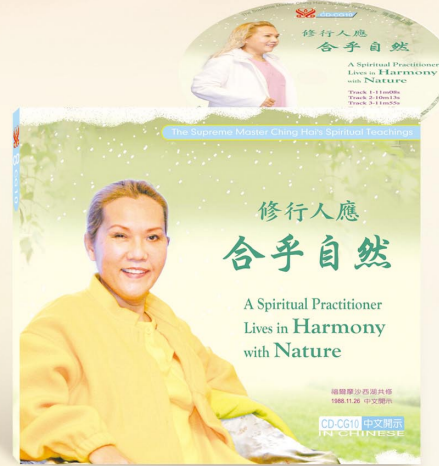
CD-E762 (영어)

### 업장을 다루는 법

2002. 9. 8./ 2002. 9. 29. 멕시코 · 코스타리카와의 화상 회의

#### 주요 내용:

이 강연 CD에는 스승님이 제자들과 가지신 두 차례의 화상 회의가 담겨 있다. 스승님은 이 모임에서 두뇌를 제어하고 수행의 장애를 극복하는 법 등 수행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자비롭게 답해 주셨다. 또한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 명상 외에 수행을 진보시킬 비결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유 의지를 훈련할 최상의 기회는 언제인가? 동물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방법은? 어떻게 하면 신의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는가? 스승님은 사려 깊은 격려로써 동수들에게 큰 힘을 주시고 완벽한 답변으로 모두에게 귀중한 지침을 제공해 주셨다.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자막이 새로 추가된 재판 (아랍어, 페르시아어 자막)

665A (영어+터키어 통역+27개 국어 자막)

### 마음의 평정

중동·아프리카 순회 강연-1999. 11. 20. 터키 이스탄불 강연







# 스승님의 최신 그림



생존력 *Survival Strength*

위 그림들은 스승님이 최근 그리신 작품 중 일부로서 현재는 판매하지 않습니다.